

## 해의직구 역직구 '2조 vs 3700억' 유통업 해법 여기에 있다

국경 없는 소비시장, 중국인 직구물량 10%만 잡아도 1.3조  
한류타고 한국제품 관심 높아 '역직구' 편의성 높여야 승산

수년째 저성장 국면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유통업의 회생을 위해서는 '역직구' 시장의 적극적 육성이 필수라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역직구 시장의 공략은 한국 소비자들의 직구 열풍으로 입은 국내 유통업의 손해를 상쇄하는 동시에 향후 유통의 탈국경화에 따라 형성되고 있는 거대한 미래 유통시장을 선점하는 데 의미가 크다. ▶관련기사 3면

1일 업계와 증권가 등에 따르면 2013년 중국인 직구 시장은 13조원에 달한다. 2018년 400조원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10%로 끌어올리면 한국의 역직구 시장은 약 40조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는 국내 대형유통업 1위 이마트의 지난해 연매출 13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하지만 한국 역직구 시장 규모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국내 주요 인터넷 쇼핑몰의 2013년 역직구 금액은 3700억원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액 38조5000억원의 1%가 채 안 되는 수치다. 반면, 해외 직접구매(직구) 시장은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액의 6%에 육박하는 2조원 규

모로 추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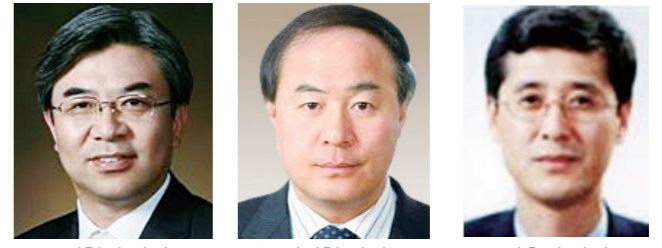
직구와 역직구의 규모 차이는 국경이 사라진 소비 시장에 국내 유통업체들이 글로벌 무한경쟁에 완전히 노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온·오프라인,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 소비행태는 이미 걸림돌 없이 무한확장 중이다. 국내 직구 시장은 2010년 약 5000억원에서 4년 새 4배 이상 경증 뛰었다.

전문가들은 국내 유통업체들이 살아남기 위해선 역직구 시장의 활성화와 동시에 이를 위한 발상의 전환, 맞춤 전략이 동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류 확산으로 국내 제품에 대한 해외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직구도 그렇지만 역직구도 1980년대 이후 태어난 35세 미만의 'Y세대'가 주도하고 있

## 김현석·전영현·이윤태 사장 승진

삼성, 11명 사장단 인사... 최소수준으로 조직 안정



삼성이 3명의 사장 승진과 1명의 대표이사 부사장 승진, 이동 및 위촉업무 변경 7명 등 총 11명의 사장단 인사를 1일 단행했다. 최근 4년간 승진 및 이동 등 사장단 인사 규모가 16~18명인 것을 고려하면 최소 수준의 인사로, 큰 폭의 인사교체 대신 조직 안정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8면

UHD(초고해상도) TV 등 TV부문에서 성과를 낸 김현석 삼성전자 CE부문 영상 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했다. 메모리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부문 핵심직에 힘입어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 메모리사업부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했다. 이윤태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은 삼성전기 사장으로 승진했다.

당초 변화가 예상됐던 DS(부품), CE(소비자가전), IM(IT·모바일) 등 3대 사업부 체계가 그대로 유지됐고, 권오현 DS부문 부회장, 윤부근 CE부문 사장, 신종균 IM부문 사장도 그대로 유임됐다. 단, 실적이 부진했던 IM부문의 경우 이준주 전라북도 마케팅 담당실장 등 3명의 사장이 물러났다.

홍원표 미디어솔루션센터(MSC) 사장은 글로벌마케팅전략실장(사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삼성물산 상영조 부사장은 삼성BP화학 부사장으로 이동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한화그룹으로의 매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석유·냉장 계열사인 삼성중화학 정영석 사장, 삼성토발 손석원 사장, 삼성테크윈 김철교 사장은 모두 유임됐다. 박상진 삼성SDI 사장 겸 에너지솔루션 부문장은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조남성 삼성SDI 사장 겸 소재부문장이 삼성SDI 사장을 맡아 삼성SDI는 단일대표 체제로 전환됐다.

윤용암 삼성자산운용 사장은 삼성증권 사장으로, 육현표 삼성경제연구소 전략지원총괄 사장은 에스원 사장으로 각각 이동했다. 김재열 삼성엔지니어링 경영기획총괄 사장은 제일기획 스포츠사업총괄 사장으로, 김석 삼성증권 사장은 삼성사회공헌위원회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번 인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승진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지영 기자 gujy@

## 25만명

비수기 무색한 청약 열기  
주말 전분주택 구름인파

올 겨울 부동산 분양시장은 비수기라는 통상적 편견을 깨고 활황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뺨다방'이 등장하고, 모델하우스 진출입로가 한꺼번에 물린 차량으로 뒤엉키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셋값 상승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저금리를 이용해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층을 겨냥, 건설사들이 쌓아 둔 물량을 대거 쏟아 냈고 청약통장 기준 완화도 한몫했다고 분석한다.

건설사들은 지난 주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5곳, 지방 7곳 등 모두 12곳에서 모델하우스를 운영하며 1만7000여 가구의 물량을 쏟아냈다. 작년 12월 첫주 5000여 가구, 둘째 주 3000여 가구와 견주어 대폭 늘어난 물량이다.

지난달 28일 문을 연 현대엔지니어링의 '힐스테이트 광교' 모델하우스에는 주말을 이용해 3만8000여명이 다녀갔다.

곳은 날씨에도 모델하우스 오픈 2시간 전부터 관람객이 몰리며 300m 이상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주변에는 이동식 중개업소인 '뺨다방'이 몰렸다.

서울 신길뉴타운 래미안 에스티움과 광명역 호반베르디움 모델하우스에는 각각 3만여명이 찾아 북새통을 이뤘다.

대우건설이 문을 연 한강신도시, 경기도 이천, 부산 서대신동 건본주택 3곳에도 7만명이 찾은 등 전국 12개 모델하우스에 25만여명이 몰리면서 분양 비수기를 무색하게 했다. 분양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미분양 필지에 나선 점과 내년부터 1순위 청약통장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 미리 청약통장을 사용하려는 투자자와 실수요자의 심리가 맞아떨어졌"이라고 말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지난 7월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위안화 거래 활성화 방안에 합의하면서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개설됐다. 김한중 외환은행장, 주장정 중국대사관 경제공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권선주 기업은행장(왼쪽부터)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에서 열린 원·위안화 은행 간 직거래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개장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 중견기업 지주사 체제 전환 '일석이조'

지배구조 강화·세제혜택 효과  
올 중소·중견 지주사 6곳 늘어

국내 중견기업들이 최근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확대하고 있다. 회사 분할로 주력사업에 집중하고,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통해 지배구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내년 종료되는 관련 세제 혜택도 중견기업들을 지주사 전환으로 끌어들이는 한 이유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중소·중견기업의 지주회사 수는 지난해에 비해 6곳이 늘었다. 이에 반해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들은 같은 기간 1개 감소해

중견기업과 차이를 보였다.

유압기·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중견기업인 동양기전의 경우 이남부터 지주회사 체제로 본격 출범한다. 기존 회사가 유압기 업체 디와이파워와 자동차부품 업체 디와이오토로 분할되고 (슈디와이가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식이다).

한솔그룹도 내년 1월 1일부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28일 주주총회를 열고 지주회사 한솔홀딩스와 신설법인 한솔제지로 분할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솔로지스틱스→한솔제지→한솔EME→한솔로지스틱스로 이어지는 한솔그룹의 순환출자 구조도 단계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주력 계열사인 한솔제

지도 제지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들 회사 외에 태산하이메탈, 한라홀딩스, 서연, 코스맥스비타이아, 일동제약 등의 중견기업이 내부적으로 체제 전환을 준비 중이다.

중견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은 경영권 승계가 입박한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세제 혜택도 내년엔 종료되기 때문에 미리 전환을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법상으로는 내년까지만 지주회사가 사업회사와 지분 거래 시 나오는 양도세에 대해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김정유 기자 thec98@

## 골프존 가맹점에 날아든 '稅포탄'

국세청, 부가세 사후검증 통해  
수천만원대 누락분 납부 통보

국세청이 스크린골프 국내 1위 업체인 골프존 가맹점을 향해 칼을 빼 들었다.

1일 골프존 가맹점과 세무업체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초 골프존 점주들에게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 안내문을 발송, 누락된 세금을 납부토록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5면

골프존 점주들이 공문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은 최소 1000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골프존 가맹점 수가 전국적으로 4000여 개에 이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국세청이 거둬들이는 세금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7월 초 부가세 확정 신고와 관련해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스크린골프에 대해서는 사용자 충전·사용 내역과 라운드 건수내역을 수집·분석하는 한편 사후검증 결과 신고누락 혐의금액이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골프존 점주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일부 점주들은 "국세청에서 골프존에 의뢰해 서울시내 골프존 매장 캐시요금 현황을 받아 그것을 증빙자료로 활용, 부가세 누락분을 추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12년과 2013년 캐시충전 내용과 신고한 매출이 달라 세금을 토해낸 점주도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골프존도 점주와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라도 캐시 인상보다는 오전 캐시요금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총 매출의 20%를 캐시요금이란 명목으로 떼 가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골프존 등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누락된 세금을 납부토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골프존은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시장점유율 84.1%를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스크린골프 국내 1위 업체다. 최근에는 골프장 운영과 건설사업, 골프용품 판매와 골프게임 개발 사업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 데이터 뉴스 Data News

### 갤럭시, 4년 연속 '최고의 브랜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가 브랜드 가치 평가회사인 브랜드스타이 발표한 '2014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1위에 올랐다. 갤럭시는 브랜드스타이 브랜드 가치 평가지수인 BSTI 936점을 획득, 2위인 이마트(922점)를 제치고 4년 연속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정상에 지켰다. 만점은 1000점이다.

3위는 작년 14위에서 단숨에 3위로 치고 올라온 카카오톡(913점)이 차지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2014 한국 100대 브랜드  
1 삼성전자 갤럭시

2 이마트  
3 카카오톡  
4 인천공항  
5 롯데백화점

※출처: 브랜드스타이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광고  
1 SKT '잘생겼다'

2 KT '아니라고'  
3 광동제약 '비타500'  
4 LGU+ '발로팔로미'

※출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올해 이통3사 광고싸움 치열했네

올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광고로 SK텔레콤의 '잘생겼다'가 뽑혔다. 가장 기억에 남는 광고 모델은 전지현이었다. 1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발표한 '2014년 소비자행태조사(MCR)' 결과를 보면 올해 소비자들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응답한 광고는 SK텔레콤의 '잘생겼다'로, 15.5%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2위는 이동통신업계 라이벌인 KT의 광고(국악소리 송소희와 개그맨 조운호 출연, 7.0%)가 차지했다. 박성제 기자 psj@

Biz 월요섹션 17~21일

커버스토리  
통신 '속도전쟁' 재점화

홍일표 의원 ▶ 신창제 회장 ▶ 6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 “낮출 여력 있다” vs “자본유출 우려”… 고민 커지는 이주열

“더 내려야” “동결해야”… 경제전문가의 조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기준금리는 올해 8, 10월 두 차례 하향 조정되면서 연 2.0%로 사상 최저 수준이다. 그러나 2014년이 다 가도록 경기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것은 물론 디스플레이선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일본, 유럽, 중국 등 주요국들이 통화 정책을 완화하면서 내달 금리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반면 1%대로 금리를 내리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1%대 금리인하 주장에 불을 지핀 것은 국책연구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다. KDI는 최근 한국도 일본과 유사한 형태의 디스플레이선 켜줄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적 금리 인하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준 KDI 연구위원은 “현재 명목 정책금리가 2.0%로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물가도 사상 최저 수준이므로 실질금리는 금융위기 당시보다 높다”면서 “현 상황에서도 금리를 추가로 낮출 여지가 있고 좀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도 “내년 정책금리는 1%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하로 낮출 여지가 있다”며 “저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임을 시장에 명확히 전달해 경제 주체들의 수요 확대에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두 차례의 금리인하에도 실물경제는 침체조각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금리인하는 부작용만 키울 것이라는 무용론도 거세다.

우선 추가 금리인하가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금리인하가 마중물 효과를 낼

“현재 2.0% 사상최저…물가도 낮아 실질금리 금융위기때보다 높아 내년 1%대…추가인하 여지도 있어

“가계부채·청년실업 등 성장 제자리 금리인하엔 자본 비효율적 흐름 美 Fed 금리인상 변수… 아껴둬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이 구조개혁, 규제완화 등을 위한 성장동력인 ‘모터’가 고장 난 상황에서는 마중물만 부으면 오히려 자본이 비효율적 부분으로 흘러 들어가게 할 뿐이다”며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제시했던 성장 정책들이 제대로 실현이 안 되고 있는데 통화정책을 건드리려고 하기보다 성



장담론을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경기회복이 더딘 것은 가계부채, 청년실업, 기업구조조정 등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지 재정-통화정책이 덜 완화적이어서가 아니다”라며 “큰 이변이 없다면 상당기간 금리는 동결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국내 현실을 고려해 볼 때 1%대 금리 수준은 무리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처럼 비

기축통화국이자 소규모 개방국가에서 1%대 금리 수준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며 “자본유출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물론 어느 정도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야 유의미한 통화정책을 펼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위원은 “국가 부도의 위험도를 보여주는 CDS프리미엄을 고려했을 때 기준금리를 대략 최대 1%까지 낮출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4번밖에 안

남았다”며 “내년에도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금리인하 여력을 너무 빨리 써버리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1060조원을 넘어서 가계빚과 내년 중후반으로 예상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이 개시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자본유출 우려 등도 금리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더하고 있다. 이진영 기자 mint@

## MERRY CHEVY CHRISTMAS

2014년, 당산을 지켜줄 수 있어서 행복했던 쉐보레가 함께 달려온 당신을 위해 따뜻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 전시장 내방 응모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스파크 5대 또는 아이패드 에어 100대 증정 (재제출과금 본인 부담)
- 모든 응모 고객에게 고급 무릎 담요 증정
- 최대 3년 무이자 (스파크, 크루즈, 캠퍼에 한함)
- 차중에 따라 최대 200만원 할인 (스파크 EV 한함)
- 3년 이상 된 차량 보유 고객 30만원 추가 할인 (스파크, 크루즈, 발러우, 올란도, 캠퍼, 일베온 구매 시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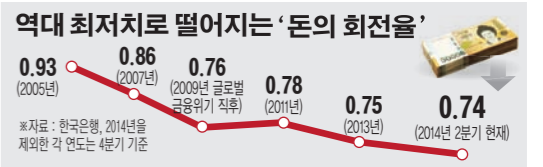
NEW KSAI 한국수출입서비스품질지수 2년 연속 1위

한국차별 고객센터 080-3000-5000 www.chevrolet.co.kr [쉐보레 공식딜러] 신화오토 02-753-9900 에스에스오토 02-519-0001 스페드오토 042-520-4000 아우토토 02-2023-1900 대원오토 051-712-3800

## ‘돈맥경화’ 유동성 함정 빠진 한국경제

### 화폐유통 속도 0.74 ‘최악’… 돈이 안돈다

금융위기때보다 낮아 소비 연결 안돼 대기업 유보율 109.3% 넘쳐나는 현금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도 돈이 중앙은행과 은행 사이에서만 왔다갔다한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상황이 지속하면서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가 본격적으로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한 상황이지만 징후는 곳곳에서 관찰된다. 유동성 함정이란 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기업투자와 가계소비 등의 실물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금리를 내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처방이지만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진 상황에서는 잘못된 처방이 된다. 경제주체들이 미래의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게 되면서 목표도 삼았던 소비와 투자의 진작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구조조정이 지연되거나 자산거품이 생기는 등의 부정적 효과만 두드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의 유동성 함정 사례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미국 경제를 들 수 있다. 당시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양적완화 정책을 시작했지만 경기는 상당 기간 동안 정부의

기대를 밑돌았고 물가도 정체돼 있었다. 장기간의 저금리 정책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았던 1990년대 초반 일본의 사례도 있다. 한국 경제도 요즘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이 잘 먹혀들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2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화폐유통 속도는 0.74다. 10년 전은 물론이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화폐유통 속도는 한 단위의 돈이 일정 기간 얼마나 회전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대기업의 넘쳐나는 유동성도 징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 기업의 6월 말 기준 유보율은 109.2%에 달한다. 시중에 풀린 실물경제로 흘러가지 않고 금융권에서만 돌고 있다는 얘기다. 현대경제연구원 임희정 연구위원은 “최근 상황이 불안하니까 금융과 실물 간의 관계가 약해져 금리전달 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재정정책과 금리정책이 함께 가는 모양새를 취하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있을 것으로 당국은 판단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 ‘D의 공포’ 빠진 세계경제

### 엔저·위안화 약세…韓수출기업 ‘샌드위치’

日 이어 中도 경기부양 위해 통화완화 IT·車·철강·조선 등 주력사업 빨간불

디플레이션 공포가 전 세계를 덮치고 있다. 유럽, 일본, 중국 등에서 경기부양책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는 환율 변수로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수출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업종들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이후 금리인상 가능성에 따른 달러화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환차익을 반색할 겨를도 없이 엔저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앞선 데 덮친 격으로 중국에서도 지난달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위안화 약세도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환율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지 여부

가 초미의 관심사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앞다퉈 금리인하와 유동성 확대 공급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원-엔 동조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지만 엔화 약세 속도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엔화 대비 원화는 절상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와 환율 사이 딜레마에 빠져 있어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리기도 쉽지 않다. 원-달러 환율 레벨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려 원화 약세를 유도할 경우 수출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 또한 경기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경기 하강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높이는 역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진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원-엔 환율 하락세가 지속되며 증시에 부정적 영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엔화 약세로 인한 IT, 자동차, 철강, 기계, 전자 업종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정칭 기자 jcha@

# “해외 엄지족 잡아야 산다”...국경없는 e장터 승부수 띄웠다

국내 유통업체들이 역직구(해외직판) 시장에 승부수를 띄웠다. 한류의 확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국내 제품에 대한 해외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다. 더욱이 해외직구 활성화로 국내 소비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어 수익에 타격을 받고 있다. 이에 유통업체들은 국내 소비자들을 붙잡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면서도 동시에 해외 소비자들을 흡수하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시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국내 유통업체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시장은 중국이다. 중국 전자상거래 연구센터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의 해외직구 금액은 2013년 13조원대였지만 올해 27조원, 2016년 106조원, 2018년 4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픈마켓, 역직구 채비 끝냈다 = 역직구 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곳은 오픈마켓 업체들이다. 중국 내에서 인터넷으로 다른 나라의 물건을 직접 구입하는 '하이타오족(중국의 해외직구족)'이 급증하고 있는데, 한중 FTA 체결로 무관세 혜택까지 적용되면서 중국 소비자들이 국내 온라인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할 것은 확실시되고 있다.

이베이코리아는 2억명이 이용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사이트 이베이를 수출 플랫폼으로 삼아 세계 200여개국에 국내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외국인 전용사이트를 개설하고 국가간 거래(CBT) 프로그램과 중소상인 해외판매지원 플랫폼(GEP)을 통해 국내 중소 판매업자들이 제품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베이코리아 측은 “현재 5000여명의 판매자가 글로벌 셀러로 활동하면서 CBT 매출액은 지난 3년간 연 30%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수출국도 아시아권에서 유럽, 남미, 브릭스(BRICS) 중심의 제3세계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SK플래닛 11번가는 “영문 11번가와 전 세계 배송관을 운영하면서 역직구족을 공략하고 있다. 또 국내 판매자가 상품을 아마존, 라쿠텐, 테오비오, 알리바바 등 해외 유명 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알리페이·해외 대형몰 입점... ‘해외엄지족 모셔라’ = 종합 온라인몰과 홈쇼핑, 패션·화장품 업체는 오픈마켓이 자체 결제 서비스를 구축한 것과 달리 알리페이 등을 도입하고, 해외 대형쇼핑몰에 입점하면서 해외 엄지족 모시기에 적극 나섰다.

롯데닷컴은 올해 2월부터 미국, 중국, 홍콩, 일본 등 19개국을 대상으로 역직구 서비스를 시작했다. 2000여개 브랜드 70만개 제품을 판매하는 ‘롯데닷컴 글로벌관’은 4월부터 알리페이와 계약을 맺고 중국인들에게 편리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해외 소비자가 자국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완성했다.

GS샵은 최근 세계 103개국에 상품을 배송



“2015 코리아그랜드 세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오투를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 명동에 대거 몰려 큰 혼잡을 이뤘다.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을 찾는 쇼핑 관광객들을 위주로 한 해외 시장 공략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한류 제품의 채널을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계한 역직구 수요로 한중 다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시스

해외직구로 국내 소비자 이탈 가속  
하이타오족 ‘온라인 큰손’ 부상  
올 27조 구매 예상...2018년 40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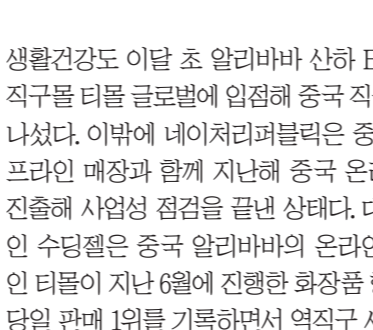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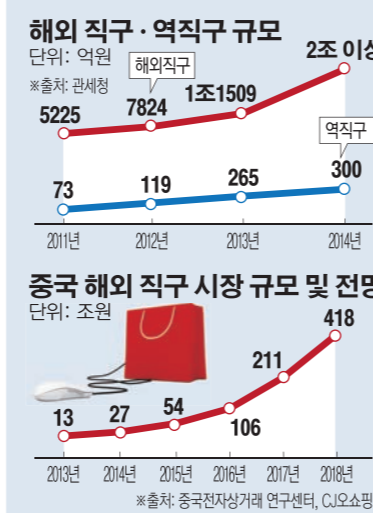
다양한 마케팅으로 해외고객 유혹

외국어 사이트 개설·대형몰 입점

알리페이 등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

에이컴메이트 2008년부터 중사업

철저한 시장 파악...올 1000억 예상



업체명	사업 내용
이베이코리아	외국인 전용사이트 개설, CBT 및 GEP를 통해 국내 중소판매업자들의 해외 수출 지원
11번가	영문 11번가 사이트 개설 및 전세계 배송관 운영, 국내 판매업자들의 해외 유명 쇼핑몰 상품 판매 지원
롯데닷컴	19개국 대상으로 롯데닷컴 글로벌관 운영, 2000여개 브랜드 70만개 제품 판매
GS샵	세계 103개국에 상품 배송하는 세계로 배송 서비스 시작, 추후 영문 및 중문 사이트 개설 및 해외 카드결제 시스템 구축
CJ오쇼핑	CJ몰 중문판 오픈, 취급 상품수 1만개까지 확대 예정
인터파크	글로벌 쇼핑사이트 오픈, 국간 결제시스템 구축 예정
코오롱인더스트리	중국 역직구 사이트 오픈, 쿠팡 등 6개 브랜드 판매
LF	온라인몰에 영어 및 중국어 지원 시스템 도입
제일모직	역직구 사이트 오픈 예정
아모레퍼시픽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다오비오 쇼핑몰에 입점
LG생활건강	알리바바 산하 해외직구몰 티몰 글로벌에 입점

생활건강도 이달 초 알리바바 산하 B2C 해외 직구몰 티몰 글로벌에 입점해 중국 직구사업에 나섰다. 이밖에 네이처리퍼블릭은 중국 내 오프라인 매장과 함께 지난해 중국 온라인몰에 진출해 사업성 점검을 끝낸 상태다. 대표 상품인 수딩젤은 중국 알리바바의 온라인 쇼핑몰인 티몰이 지난 6월에 진행한 화장품 행사에서 당일 판매 1위를 기록하면서 역직구 사업의 기대감을 높였다.

◇1000억 눈앞... 에이컴메이트가 시사하는 점은 = 중국 하이타오족이 최근 주목하는 곳은 에이컴메이트가 운영하는 역직구 쇼핑몰이다. 지난 2008년 중국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시작한 에이컴메이트는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국 내 소매상 및 소비자들에게 한국 상품을 판매하는 대표적인 이커머스 기업이다.

현재 중국 내 티몰(Tmall) 및 국제 티몰(tmall.hk), 징둥닷컴(jd.com), 1호점(yhd.com) 등 중국 내 주요 쇼핑몰플랫폼에 입점하는 브랜

드들의 운영 대행을 맡아주고 있다. 또 한국 브랜드의 중국 판매채널인 디제이미닷컴과 해외 직판 쇼핑몰 고우포유를 운영하고 있다.

에이컴메이트는 중국의 블랙프라이데이로 알려진 11월 11일 솔로데이 하루 동안 티몰을 통해 1억2000만위안(약 217억원) 판매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3000만위안(약 54억원)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 2013년 500억원의 거래액을 기록한 에이컴메이트는 올해 거래액 1000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이컴메이트의 이 같은 성공은 중국시장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바탕이 됐기 때문이다. 송중신 에이컴메이트 부사장은 “한류 열풍만 믿고 중국 시장이 크다고 무작정 입점하면 실패한다”며 “중국 온라인상의 프로세스와 운영체계, 시스템, 정산방식, 중국 소비자의 특성 등 중국 시장의 특수성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운영 인프라를 구축한 후 입점해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인터뷰 이종식 판다코리아닷컴 대표

### 천송이코트 풀렸지만... “시장 활성화 장벽 많아 무관세협약 체결해야”

창업자 자금지원·해외바이어 정보공유 태부족  
박람회 등 통한 해외 유명 온라인몰 제휴 시급

“역직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관세협약이 꼭 추진되어야만 합니다.” 국내 대표 역직구쇼핑몰 판다코리아닷컴 이종식 대표(사진)는 늘어나고 있는 중국 역직구 쇼핑 고객을 대거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무관세협약을 꼭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올해 초 중국인들이 전지현이 드라마에서 입고 나온 천송이코트를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정부가 나서서 공인인증서 제도를 없애고 온라인 결제방식을 간편화하도록 지난 8월부터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본지 인터뷰를 통해 “화장품은 없어서 못판다. 주문량에 비해 제품 공급이 항상 부족하다”며 역직구시장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면서도 아직 미흡한 시장 지원구조에 대해서는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한미 FTA에서는 200달러 무관세 혜택으로 해외직구족이 늘어나는 등 시장 활성화의 단초가 마련됐다”고 예를 들었다.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200달러 이하 제품을 구입하는 한국 소비자는 사실상 제품 종류에 상관없이 무관세 혜택을 보게 됐다. 즉, 중국과도 전자상거래상 무관세협약을 체결한다면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의미다.

이 대표는 역직구시장 업계 사람으로서 정보 수집 및 공유의 어려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무역협회나 코트라가 보유한 해외 바이어 정보를 역직구몰을 만들려는 사람들에게 공유하도록 으른했으면 한다”며 “해외 바이어 정보는 국민 세금으로 수집한 정보인데 접근이 너무 어렵다”고 불편함을 전했다. 이어 “또한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해외에 공개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위한 판퍼런스, 박람회 등 만남의 장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직구 시장은 아직 소규모 자본을 보유한 중소기업 규모 수준”이라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베이, 아마존 등과 같이 해외 유명 온라인몰과 접촉하거나 제휴할 수 있는 기회가 쉽지 않다”며 “정부가 나서서 판퍼런스, 박람회 등을 개최해준다면 만남의 기회라도 생길 것”이라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 당신에게 딱 맞는 단말기 유통법 활용백서

### 지금껏 혜택 못 받던 휴대폰 오래 쓴 이용자·자금론 가입자도 12% 요금 추가할인

최신 휴대폰 구입자는 물론 휴대폰을 오래 쓴 이용자·자금론 가입자까지 혜택이 확대된 단말기 유통법 시대, 당신만의 합리적인 통신생활을 지금 펼쳐보세요

- 쓰던 폰도 다시보재! 12% 추가할인**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는 약정계약 시 최소 12% 추가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금론, 개통 후 24개월이 초과된 지원금 지급폰 등
- 저가요금제도 혜택받자! 지원금 적용확대**  
중저가요금제에 지원금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금 때문에 불필요하게 고가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꼭 필요한지 따져보재! 부가서비스**  
부가서비스 의무사용 강요가 금지됨에 따라 자신에게 꼭 필요한 부가서비스만 선택·가입할 수 있어 통신 과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안심하고 구입하자! 투명한 지원금 공시**  
단말기 지원금이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누구나 차별없이 안심하고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통사 홈페이지,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 등에서 확인 가능

이젠 법률심사



김용태 정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1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 새해예산안, 정부안에서 4000억 삭감

375조6000억 잠정 합의

3.7조 감액... 3.3조 증액

창조경제 예산 일부는 삭감

여야 예산부수법안도 논의

조3000억원 정도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부분 쟁점은 해소돼 증액 항목들을 점검하고 있는 중"이라며 "95%는 (심사가) 끝났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공들여 온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상당 부분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건립,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 등 합의되지 않은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창조경제 예산의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의원은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내용이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졌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위원장인 원내대변인인 박완주 의원은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결위에서 불요불급한 창조경제 예산을 많이 삭감한 것은 아담의 적지 않은 성과로 본다"고 했다.

막판 쟁점은 증액 심사과정에서 있을 정부와 국회의 힘겨루기다. 예산 증액분에 대해서 정부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만큼 각 지역구 예산을 관철시키려는 국회와 예산 관성권을 권 기획재정부의 조율작업이 만만치 않다. 특히 서로 실익을 챙기려는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예산 나눠먹기'나 '쪼개 예산'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예결위 관계자는 "국회는 지역구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오려 하고, 정부는 국회에서 깎인 주요 사업의 예산을 복원하려 하기 때문에 결국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오

전까지 증액심사를 계속 진행, 감액과 함께 전체 규모를 맞춰 가급적 이날 오후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예산안이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만, 여야가 합의를 마치는 대로 2일 수정안을 함께 올려 표결로 수정안을 가결하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예산안과 동시에 처리할 예산부수법안 관련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

예산부수법안의 대부분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일 심사를 재개해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기업소득 환율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기업상속 공제 한도 인상' 등 이권이 큰 사안에 대한 절충을 시도한다.

김미영 기자 bomnal@

칭찬합시다

홍일표 의원·새누리당

## 계과 논리보다 균형감 정평

중소상인 보호·CSR 입법 주력

협력의 국회 만들기 기획연재

여야 의원간 서로 '칭찬 세례'



홍 의원이 지난해 만든 이 포럼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 방안 모색과 CSR 활성화에 필요한 입법 기능 강화, 제도개선책 마련이 목표다. 그는 전반적으로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에 응답하면서 CJ올리브영과 같은 대기업으로, 기업형수퍼마켓(SSM)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냈다.

"제발 좀 그만 싸워라."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다. 올해 역시 여야 그리고 각당 계파 간 패를 갈라 가시 돌린 말들을 주고받으며 '독실 전쟁'을 벌인 정치권. 이투데이는 여야 의원이 서로 다른 진영의 정치인을 지목, '칭찬' 릴레이를 벌이며 이해와 협력의 국회를 만들어 가도록 기획연재를 시작한다.

첫 주인공은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다. 오는 8일 홍 의원이 야당의 한 의원을 칭찬하고, 이 의원은 또 다른 여당 의원을 칭찬하는 식으로 매주 여야 의원 간 칭찬 세례를 이어간다.

재선의 홍 의원은 은화한 상품에 합리성을 갖춘 중립적 인사다. 정치권에 입문할 당시 친이(친이명박)계로 분류됐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캠프 대변인으로 활약했으나 계파 논리에 치우친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균형감을 보여왔다는 평가다. 현재도 계파에 얽매지 않고 사회적 약자 보호, 민생중심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국회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책 연구포럼'은 홍 의원의 의정활동 방향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다.

판사 출신인 그는 법제사법위 여당 간사를 맡으면서 현장정보로 상임위 내실을 기하고 있다. 지난 9월 정기국회 공전 와중에도 자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서울보호관찰소 전자발찌 중앙관제센터를 찾아 전자발찌 사후관리 부실 원인 및 대책을 따졌고, 이어 법사위는 물론 산상위원들도 이끌고 서울중앙지법 과산부를 방문해 중소기업인의 과산 부담을 완화해 줄 대책을 살폈다.

홍 의원은 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싸우지 말고 잘해 달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명심하면서 정책으로 경쟁하고 정치문화를 바꿔나가는 데 앞장서겠다"며 "민생 중심 국회는 물론, 상대 정당의 입장에 고려하는 상생의 국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bomnal@



국회가 담뱃값 인상폭을 확정짓 첫 주말인 30일 서울 구로동의 한 편의점 담배 판매대가 사재기로 텅 비어있다. 여야가 지난 28일 담뱃값 2000원 인상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내년부터 담뱃값은 4500원(대중 1갑기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신태현 기자 holjiak@

## 국회 담뱃값 내년부터 2000원 인상 최종 확정

## 하루 1갑 흡연 시 연간 73만원 추가 부담

국세 비중 낮추고 지방세 높여

개소세 부과방식은 '중량세'로

담뱃값 인상안 주요내용

개정안	주요내용	예산세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물품가격의 77% 개별소비세 신설(594원)	국세편인 475.2원 소방안전교부세 118.8원 신설	1조3023억 2000만원 3255억 8000만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소비세 인상(641원 → 1,007원) 지방교육세 인상(321원 → 443원)	904억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354원 → 841원)	7683억

담뱃값 인상폭이 국회를 거쳐 2000원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국산 담배의 가격은 450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하루 1갑을 피우는 흡연자 기준으로 한 해 연 73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담뱃값 인상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1일 새해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다만 여야가 새해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는 2일까지 수정안을 제출한 만큼 담뱃값 인상안도 수정을 거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합의한 담뱃값 인상안에는 담뱃값이 2000원 오른다는 것은 변함없지만 일부 세목 변경을 통해 국세 비중을 낮추고 지방세 비중을 높였다.

담뱃세 인상은 크게 3가지 법률 개정을 통해 동시에 진행된다. △개별소비세 594원 신설(개별소비세 개정안) △담배소비세 641원→1007원 인상, 지방교육세 321원

→443원 인상(지방세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841원 인상(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이다.

여야는 개별소비세 가운데 20%를 신설한 소방안전교부세 명목하에 지방세로 전환할 예정이다. 따라서 담뱃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입 가운데 국세 비중이 52%, 지방세 비중은 48% 정도로 바뀐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이번 담뱃세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수는 총 2조4866억원이다. 이 가운데 △개별소비세 국세편인 1조3023억2000만원 △개별소비세 중 지방세로 편입되는 소방안전교부세 3255억8000만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7683억원 △지방세 904억원 등이다.

특히 정부는 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등 3가지 세목을 대통령령으로 물가와 연동해 최대 30%까지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국회 동의 없이 매년 담뱃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개별소비세의 부과방식은 증가세가 아닌 중량세로 가닥이 잡혔다. 증가세는 담배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따지는 데 비해, 중량세는 담배 수량에 따라 같은 금액을 일괄 부과하는 방식이다.

김미영 기자 zerg@

## 투자활성화 대책 쏟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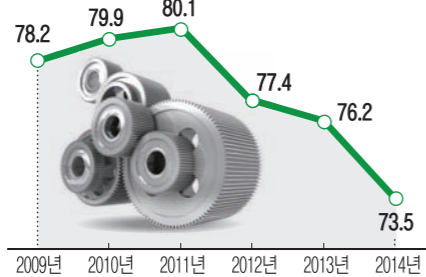
## 경기지표는 연일 '최저치'

설비투자 증가율 내리막

제조업 출하액도 감소세

제조업 평균 가동률

단위: %, 10월 기준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지만 경기 지표는 연일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3분기 연속 감소세이며 기업의 순이익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광업과 제조업 출하액 역시 IMF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1일 통계청의 10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이 지난해 동기 대비 8.6% 감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분기 설비투자 증가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2% 늘었지만 3분기에는 1.5% 증가에 그쳤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14년 경제전망과 크게 엇갈린다. 당시 정부는 전기전자, 자동차 등 주력업종의 설비투자가 확대돼 연간 6.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금융위기 여파가 불어닥친 지난 2009년 5월(73.4%) 이후 최저치인 73.5%를 나타냈다. 올해 8월 74%를 기록한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최저치를 경신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자동차(-13.8%), 반도체-부품(-6.5%) 등 수출 주력 품목에서 평균 가동률이 줄었다.

국내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기준 기업활동조사'가 잠정 결과를 보면 매출액 1000원어치를 팔아 평균 39.2원의 순이익을 남겼다. 이 수치는 금융위기가 불어닥친 2008년(32.5원) 이후 최저치로, 매출액 1000원당 순이익은 2011년 51.7원에서 2012년 47.2원, 2013년 39.2원으로 3년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 광업·제조업 기업의 생산 제품 중 기업 내부에 재고로 쌓여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간 부분을 집계하는 출하액 역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

## 최경환 "원·위안화 거래, FTA와 中 선점 쌍끌이 동력 될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실물부문에서의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금융부문의 위안화 거래 활성화를 중국시장 선점의 쌍끌이 동력으로 활용해 우리 경제 재도약의 계기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 이날 외환은행 본점에서 개최된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성'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정산 은행과 더불어 오

늘 직거래 시장이 개설됨으로써 위안화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위안화 시장을 새로 창업하는 새내기 벤처기업에 비유하며 "큰 잠재력을 지닌 신생 벤처기업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히든챔피언으로 길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로 은행 간 환전 수수료가 줄어들면서 고객

에게 적용되는 환전 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대)중국 흑자 규모가 536억 달러에 이르는 등 직거래 시장으로 위안화를 공급할 여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중국 무역액의 1.2% 수준인 위안화 무역결제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박상영 기자 sypark@

## 청와대 파견 경찰관 전원 물갈이... 왜?

문건 유출 문책성 인사설 돌아

청와대 비선 실세로 지목받고 있는 정운회씨의 국정개입 문건이 유출된 가운데 청와대 민정수석실 경정급 경찰관 전원인 몇 개월 사이 전원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경위를 놓고 경찰이 지목되고 있어 통상적이지 않은 이번 교체가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청와대 내부 문건 작성 관여 및 유출 의혹을 받는 박모(48) 경정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1년간 근무하다 지난 2월 12일자로 파견 해제됐다.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던 다른 경정 역시 2월 10일자로 파견 해제되고, 지난 7월에도 민정비서관실 경정 3명이 비슷한 시기에 교체된 바 있다.

민정수석실 파견은 근무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1년 이상 근무하되 인사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체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각종 검찰, 인사 등 청와대 관련 정보가 누출됐고 소문의 근원지로 청와대 파견 경찰관들이 지목되면서 문책성 인사라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

## 우편번호 5자리로 바뀐다

내년 8월부터 시행

내년 8월부터 우편번호가 기존 6자리에서 5자리로 바뀐다.

우정사업본부는 도로명주소 시행 정착에 맞춰 우편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내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기초구역 체계의 우편번호 개편안을 확정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사용하는 우편번호는 읍·면·동 및 집배원별 담당구역을 나타내는 6자리로 구성돼 있으나, 새 우편번호 체계는 5자리로 앞의 3자리까지는 시·군·구 단위로, 뒤 2자리는 일련번호로 구성돼 총 3만 4000여개가 부여된다.

새 우편번호인 국가기초구역번호는 소방, 통계, 우편 등 모든 공공기관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게 돼 국가 차원의 시너지 효과 예상된다.

또 국가기초구역 단위가 하천, 철도, 도로 등 객관적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설정돼 우편업무가 더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유미 기자 jscs508@

# ‘전력 검침원은 근로자’ 판결 퇴직금 청구 소송 이어질 듯

## 대법 “개인사업자 아니다”

위탁계약에 의해 일하는 전력 검침원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전력, 수도, 가스 검침원 등의 수는 1만여명에 달한다. 한국전력과 수도공사 등은 검침업무 등을 자체 근로자가 아닌 외부업체에 위탁업무를 주는 식으로 운영해왔다.

한국전력 등은 앞으로 직접 검침이 아닌 원격검침 사업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시하는 검침원들이 업무위탁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잇따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법원에 계류돼 있는 유사소송은 20여건으로 추산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3일 전력 검침원 이모씨가 주식회사 한전산업개발을 상대로 “퇴직금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전산업개발은 한국전력으로 부터 전기계량기 검침, 전기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 업무를 위탁받아 그대로 위탁원들에게 위탁한

것이어서, 위탁원들이 담당할 검침과 송달 등의 업무는 한전산업개발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침원들이 한전산업개발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위탁원들은 전기수용기구의 수에 따라 업무량이 정해져서, 스스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업무량을 늘릴 수 없는 이상 위탁 검침원들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위탁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2심 판결에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03년 11월부터 2009년 5월까지 한전의 위탁원으로 근무하면서 징수 및 계량기 검침업무 등을 수행했다. 이씨는 계약이 종료돼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퇴직금을 청구했지만, 사측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일 뿐이라면서 거절했다. 위탁원들이 ‘보람설계사’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이유였다. 이씨는 소송을 냈으나 2심 재판부는 “위탁에 의해 일하는 원고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좌영길 기자 jyg97@

## “여성 성장잠재력 무궁무진”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주최 여성인력 활용 국제회의에 참석해 ‘여성 성장잠재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기업메시징 시장 독점 LGU+·KT 과징금

## 무선통신망 이용 저가 판매... 공정위 “중소 사업자 퇴출 유도”

### 양사 “과도한 규제” 행정소송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메시징 시장을 독점해 중소기업자를 퇴출시켰다며 LG유플러스와 KT에 철퇴를 가했다. 양사는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기업메시징 시장 1·2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KT에 각각 43억원과 19억원 등 총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건당 9.2원 미만으로 팔 수 없게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기업메시징은 신용카드 승인,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쇼핑물 주문배송 알림 등의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서비스로,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45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공정위 측은 “두 업체는 다른 기업메시징 업체와 달

리 무선통신망 이용 요금을 따로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저가 판매가 가능했다”면서 “중소사업자보다 훨씬 싼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시장퇴출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불공정행위의 결과 두 업체의 기업메시징 시장 점유율은 2006년 29%에서 2010년 47%, 지난해 71%로 수직 상승했다.

LG유플러스와 KT는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행정소송 진행을 검토 중이다. 양사는 “기업이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로 문자를 보내거나, 애플리케이션 등 자체 솔루션을 구축해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면서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규제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박성제 기자 psj@

## 디도스 추정 공격 SK브로드밴드

### 복구 후에도 접속 오류

SK브로드밴드가 지난 29일 오전 디도스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아 전국 전산망이 이날 오전 11시경부터 70여분 동안 마비됐다. 복구 뒤에도 일부 소비자들은 여전히 인터넷 접속 오류를 겪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29일 오전 디도스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아 10시55분부터 오후 12시7분까지 약 70분 동안 전국 전산망이 마비됐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오전 10시 55분 외부 디도스 공격 영향으로 당사 DNS서버 과부하가 발생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날 오후 12시7분부터는 정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30일 오전 12시 이후에도 인터넷 접속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박성제 기자 psj@

## ‘모뉴엘 뒷돈’ 수은 전 간부 영장청구

가전업체 모뉴엘의 사기대물 사건과 관련해 이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수출입은행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병기)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수출입은행 전직 해외 사무소장인 이모 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1년 모뉴엘 담당 팀장이었던 이 부장은 당시 대출한도를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뉴엘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수출입은행은 이 부장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2주 전 그를 대기발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모뉴엘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무역보험공사 허모(52) 부장과 수출입은행장 비서실장 서모(54) 실장을 구속했다. 수출입은행은 1135억원의 신용대출을 해줘 내줘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무역보험공사는 보증을 서했다가 법정관리 신청으로 3256억원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좌영길 기자 jyg97@

## 파리바게트·배스킨라빈스 가맹점 이어 골프존

# ‘세수 메우기’ 팔 걷고 나선 국세청

## “데이터와 실제 매출 차이 난다”

### 다음 타깃 화장품·커피점 예상

### 프랜차이즈 부가세 추정 어디까지

프랜차이즈 업체가 국세청 움직임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는 국세청이 최근 골프존 가맹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본격 추정하고 나섰다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한 국세청의 부가세 폭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뚜레쥬르에 이어 파리바게트와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등 SPC그룹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1000억원대 세금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국세청은 POS(Point Of Sales·판매시점 관리시스템) 데이터와 실제 매출 간 차이를 근거로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이 지난달 초 골프존 가맹점에 대해 발송한 부가세 과소 신고본 안내(문) 또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골프존 가맹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익명을 요구한 A모 점주는 “대다수 골프존 가맹점주들은 라운드당 부과되는 골프존의 온라인 캐시에 대해 문제점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매장 매출도 아닌 데 카드 결제 금액



국세청이 최근 스크린골프 국내 1위 업체인 골프존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부가세 추징에 나선 가운데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사진은 스크린골프장.

만 커지고, 이 가운데 20%는 고스란히 골프존이 가져가고 있다”며 “세무당국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가맹점주들에게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연도말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업체를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가맹본부들 통해 수집한 포스 매출 자료와 신고 매출을 비교해 부가세 신고 적정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며 “세수 확보를 위해 나선 검증작업은 아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 가맹점주들은 최근 1~2년 지속되는 국세청의 부가세 추징에 대해

적잖게 우려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에게도 부가세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골프존 가맹점에 이어 그 다음 타깃으로는 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급성장한 화장품과 커피전문점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골프존 가맹점에 대한 부가세 추징에 앞서 지난 1월 골프존 본사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올해 초 474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당시 이 같은 세금을 부과한 것은 골프존이 법인세를 축소해 신고하고,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등 문제가 확인됐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수 기자 tearand76@

**신뢰받고 앞서가는  
글로벌 금융그룹**

## 둘보다 큰 하나 더 큰 하나카드가 되겠습니다

12월,  
하나SK카드와 외환카드가 만나  
하나카드의 이름으로  
더욱 커진 행복을 꿈꿉니다

기대하세요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는  
새로운 카드의 탄생을

### 나만 바라보는 카드 하나카드

CC브랜딩-141126-19

**하나카드  
고객센터 1800-1111**

# 매각 무산 우리銀 “지분 쪼개 팔 수도”

공자위 4일 민영화 재논의  
경영권 프리미엄 제외  
지분 분할매각 방안 유력  
다시 ‘주인없는 은행’ 우려

큰 기대를 모았던 우리은행 민영화가 4전 4패로 쓸쓸하게 끝나면서 정부의 후속 매각방안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외한 지분 분할매각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적자금관리위

원회는 오는 4일 회의를 열고 다섯번째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자위는 경영권 매각 실패 이유와 조건 등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새로운 시장 환경을 반영한 후속 대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마감된 우리은행 경영권 입찰 결과, 예비입찰 제안서를 제출한 곳은 중국의 안방보험 한곳 뿐이었다. 유력 인수후보였던 교보생명도 불참하면서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결국 경영권 매각은 유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권 매각 무산을 대비해 ‘플랜B’를 세워두지 않았다”며 “리은행이 워낙 빅딜이다보니 매각 방안을 논의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신재운 금융위원장이 ‘직(職)’을 걸고 민영화를 완수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경영권 매각방안을 꺼내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은행을 살 수 있는 자금, 능력, 자격을 갖춘 곳이 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채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만 초점을 맞춰 무리하게 매각을 시도했다는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매각의 세가지 원칙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빠른 민영화 △금융산업 발전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외한 지분 분할매각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희망수량 경쟁입찰이나 블록딜 세일 등을 통해 조기 공적자금 회

수에 나설 것이라 설명이다.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수지분 매각이 흥행한 것도 추측의 배경이 되고 있다. 실제 경영권 예비입찰과 같은날 마감된 소수지분 분할매각에는 풀옵션 행사를 제외하고 총 23.76% 물량(매각대상 지분의 132%)이 접수됐다. 물론 지분을 쪼개 팔 경우 지배구조가 불안정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주인없는 은행’으로 남는다는 얘기도 있다. 전형적인 ‘후진국형 은행’이다. A은행 관계자는 “매각 실패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 민영화 종료와 지배구조 안정을 두고 신위원장의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천 기자 sunhyun@

# SC은행, 영국 본사로 1조 빼가려 로비 계획

금융원, 송금 관련 내부문서 확보  
고위층 접근-정부 회유책까지 당겨

1조원이 넘는 거액의 배당금을 몰래 본사로 송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실제로 배당금을 빼가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SC은행이 거액의 배당금을 영국본사에 송금하려는 계획이 담긴 내부 문서를 확보했다. 내부 보고서에는 SC그룹이 내년 3월 주주총회까지 1조1620억원(약 11억 달러)에 이르는 돈을 2차례에 나누거나 한꺼번에 본사로 송금한다는 계획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SC그룹은 이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 올 4월부터 우리 정부 최고위층과 금융당국 기관장들을 누가, 언제, 어떻게 접근할지와 한국 정부에 제시할 회유 수단까지 주도면밀한 실행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7월 첫째 주엔 피터 샌즈 SC그룹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다는

계획이 포함됐는데, 실제로 피터 샌즈 회장은 7월 2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만나 SC그룹의 한국사업 철수설을 부인하고 한국에 동북아 지역 본부를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SC그룹은 이 같은 거액의 배당 계획이 드러나자, 배당 규모를 축소하려는 쪽으로 계획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적자 상태의 금융사가 거액의 배당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을 두고 조사 중에 있다. 한국 SC은행은 제일은행을 인수한 뒤 2006년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모두 3010억 원을 본사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SC은행은 그동안 쌓아온 수익금이 3조5000억 원 규모지만, 올해에는 실적을 낙관하기 힘들다. 세부적으로 보면 올 3분기까지 13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는데 그쳤고, 올 상반기 22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금융권에서는 경영실적이 악화되면서 주주들의 불만이 커지자 영국 SC그룹이 한국에서 번 돈을 배당금 명목으로 본사로 송금하려고 한다는 분석이 잇따랐다. 김우림 기자 hura@

## 캠코, 부산시대 개막

오늘부터 BIFC로 본사 이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2월 1일부터 본사를 옮겨 부산시대를 연다. 캠코는 1일부터 공기업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부산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입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부산시대를 개막한다고 이날 밝혔다. 캠코는 주택금융공사, 예탁결제원 등 부산 이전 기관 중 최대 규모로 종합기획부를 비롯한 26개 부점, 700여명이 BIFC에 입주한다. 캠코는 앞으로 부산이전 공공기관과 협업 등으로 시너지 창출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이전 자체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일인 만큼 지역사회와 상생협력,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캠코는 안정적 업무 정착을 위해 조직개편도 실시했다. 본사 이전에 따른 수도권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지역본부를 신설했다. 공공기관 보유 부동산 매각과 개발 등 공적 자산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공공사업본부와 공공자산관리부도 신설했다. 홍영만 캠코 사장은 “부산시민이 신뢰하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지역사회와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철우 기자 acw@



홍기택 회장(오른쪽 넷번째)과 정즈제 중국개발은행(CDB) 행정차(다섯번째) 등이 개발금융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통일 준비” 산업은행, 개발금융 기반 다진다

중국개발은행과 MOU  
KDB산업은행이 통일금융 정책금융기관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1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홍기택 회장은 지난 28일(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 소재 CDB 본사에서 정즈제 행정차와 개발금융 관련 업무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했다. 지난 1994년 설립된 중국개발은행은 중국의 대표 개발금융기관으로 중국 및 해외 인프라 건설, 자원 개발 등의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 기업들의 장·단기 투자 자금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국책은행이

다. 2013년 자산규모 기준으로는 세계 25위이며 중국 5위 은행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금융지원 인프라, 자원, 전력, 에너지, 환경 분야 등의 개발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무역금융, 차관 단 대출, 건설, 외환-파생, 채권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협력키로 합의했다. 홍 회장은 이날 “CDB가 동북아 지역에서 SOC 개발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는 통일시대를 대비해 통일금융을 준비하고 있는 KDB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일금융 활성화를 위한 독일재건은행(KfW)과의 공동 워크숍 개최에 이은

금융외교 행보의 연장선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 10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KfW 본점에서 ‘통일금융과 개발금융기관의 도전’을 주제로 공동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에서 두 기관은 통일금융과 창업기업 지원, 민간은행에 위탁하는 간접대출, 신중국 개발금융 등과 관련해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사업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은행은 지난 4월 창립 60주년을 맞아 ‘통일시대 준비’를 5대 중장기 발전전략의 하나로 정하고 7월에는 정책금융공사와 함께 ‘통일금융협의체’를 발족시켰다. 안철우 기자 acw@

## ‘하나카드’ 오늘 출범...중위권 점프



시장점유율 6위·회원 600만명  
출범식 후 정해봉 사장 선임  
하나카드와 외환카드가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나카드’로 1일 공식 출범했다. 기존 2대 주주인 SK텔레콤은 지분율이 49%에서 25.42%로 감소해 전략적 파트너로 남게 됐다. 이번 통합으로 단숨에 시장점유율 6위, 회원수 600만명 규모의 중견 카드로 거듭나게 됐다. 하나카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다동 하나카드 본사에서 통합법인 출범식을 개최한 뒤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 사장에 정해봉(58) 하나카드 사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권혁승 외환카드 대표는 물러나는 김성봉 SK텔레콤 부사장의 후임으로 통합 법인의 부사장을 맡는다. 지난해 말 기준 자본금 5900억원, 자산

3조2000억원이었던 하나카드가 외환카드(자본금 6400억원·자산 2조6000억원)와 합쳐지면 시장점유율이 7.8%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 올해 상반기 카드결제 기준으로 보면 롯데카드(5.9%)를 넘어 우리카드(8.4%)를 위협하는 수준이다. 하나카드는 7개 본부 42개 팀으로 구성된다. 경영지원본부, 리스크관리본부, CVM(고객기체관리)본부, 영업본부, 마케팅본부, 전략기획본부, 제휴영업본부 등이 있다. 직원은 하나카드 480명과 외환카드 400명을 합쳐 총 880명 가량이다. 하나SK와 외환카드 고객들은 당분간 기존 서비스와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다만, 두 카드를 동시에 쓰고 있는 고객은 앞으로 사용하든나 현금서비스 한도 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나카드는 내년 7월까지 하나카드(약 350만명)와 외환카드(약 250만명) 고객 서비스를 별도로 운용하기로 했다. 하나카드와 외환카드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고객은 내년 7월 전산통합 이후 이용 가능할 한도가 축소될 수 있다. 박윤희 기자 ellee@

## 기업 문서 유출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YES.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의 기업 정보화를 선도해온 더존이, 시대를 앞선 기술로 기업의 각종 IT 고민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더존의 클라우드 플랫폼은 문서 중앙화로 문서의 보안을 강화 함으로써, 소중한 고객의 개인 정보와 기업의 문서 및 데이터의 유실·유출을 방지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장 안전한 문서 관리 방법, 더존과 상의하세요

www.duzon.co.kr

#혁신적 기업환경 IT솔루션

더존 기업클라우드

클라우드를 통한 문서중앙화

클라우드를 통해 사내 문서를 집중 관리할 수 있고 문서 별 권한이 지정되어 문서보안 또한 강화됩니다.

- 생성된 모든 문서 및 데이터를 기업 전용 클라우드 센터에 저장, 기업의 지적 자산 축적 및 활용
- 기업의 중요 문서, 고객 개인 정보까지 사용자 별 권한에 따라 접근 제한

문서의 Life Cycle 관리

문서의 생성부터 유통의 흐름까지 한 곳에서 통제되어 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합니다.

- 파일의 생성부터 수정·복사·이동·삭제 등 Life Cycle 감시
- 이동형 저장 장치 및 온라인 프린터 사용까지 모두 통제 관리

문서 자산의 효과적인 축적 및 이용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통해 기업의 지식 및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통합 축적합니다.

- 사내에 분산된 데이터를 집중화하여 업무 속도와 생산성 향상
- 문서중앙화 관리나 스마트워크를 위한 추가 솔루션 구축 없이도 동일한 효과

1688-5000

Your Business Infra  
**더존 DUZON**



# 이재용 첫 인사 ‘변화보다는 안정’

## 삼성 오늘 사장단 인사

이건희 회장 외병·핵심 계열사 부진에 인사 폭 최소화

한때 ‘통합설’ 돌았던 삼성전자 3대 부문 그대로 유지

권오현·윤부근·신중균 사장 유임...권 부회장 역할 커져

이재용 부회장의 사실상 첫 인사가 1일 단행됐다. 이번 인사는 인사원칙인 성과주의를 지키면서도 사장 승진과 이동 폭을 최소화하는 등 ‘변화보다는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이는 이진희 삼성전자 회장이 6개월 넘게 임원 중이고, 삼성전자 등 핵심 계열사의 실적이 부진한 위기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인사에서 오너가 승진은 없었다. 일각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승진 가능성을 꾸준히 점쳐왔지만, 이진희 회장이 외병 중인 상황에서 자녀들이 승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보류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너가 삼남매는 지난 2010년 모두 한 차례 승진

한 뒤, 2012년 이재용 부회장 승진, 지난해 이서현 제일모직 패션부문 사장 승진 등 지난 4년간 2011년을 제외하고 매해 승진이 있었다. 작년에 이어 이번 인사에서도 부회장 승진자는 없었다. 삼성그룹은 2009년부터 매년 2명의 부회장 승진자를 배출했다. 2012년 이 부회장과 함께 승진한 박근혜 당시 삼성생명 부회장(현 삼성사회봉사단장)이 마지막이다. 당초 사업부 통합설로 관심을 끌었던 삼성전자 3대 부문은 그대로 유지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DS(부품·소재), CE(소비자·가전), IM(IT·모바일) 3대 부문으로 사업구조를 개편, 권오현 부회장, 윤부근 사장, 신중균 사장이 각각 맡도록 했다. 이번

### 최근 5년간 삼성그룹 사장단 인사

해당 년도 (인사폭)	상세 내용	발표일
2011년 (18명)	부회장 승진 2명 사장 승진 9명 이동·위촉업무 변경 7명	2010년 12월9일
2012년 (17명)	부회장 승진 2명 사장 승진 6명 이동·위촉업무 변경 9명	2011년 12월7일
2013년 (17명)	부회장 승진 2명 사장 승진 7명 이동·위촉업무 변경 8명	2012년 12월5일
2014년 (16명)	사장 승진 8명 이동·위촉업무 변경 8명	2013년 12월2일
2015년 (11명)	사장 승진 3명 부사장 승진 1명 이동·위촉업무 변경 7명	2014년 12월1일

인사에 앞서 일부 주요 외신들은 무선사업부 실적 부진으로 신 사장의 거취를 불투명하게 전망하고, 윤 사장이 통합된 CE와 IT 부문을 이룰 것으로 관측했으나 빛나간 추측에 불과했다. 이번 인사에서 삼성전자 최고경영자(CEO) 3인방은 자리를 유지하되 권 부회장은 삼성그룹 전체 부품 계열사를 지휘하는 등 역할이 더 커졌다. 그룹 수뇌부인 미래전략실 실장과 실차장, 각 팀장들도 변동 없이 현 체제를 유지한다.

이번 사장단 인사는 최근 5년래 가장 이른 시점에 진행됐다. 2010년도 인사와 비교할 때 2주 이상 빠른 인사다. 발표 시점이 점점 빨라지는 것은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기업은 대외변수가 많을 때 내린 준비를 서두르는 차원에서 연말 인사를 앞당기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준 삼성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장(전무)은 “경영실적에 따른 철저한 성과주의 인사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경영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재도약을 주도할 인물로 경영진 쇄신에도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은 이날 오전 9시 서초사옥 다목적홀에서 사장 승진 3명, 대표이사 부사장 승진 1명, 이동·위촉업무 변경 7명 등 총 11명 규모의 2015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다. 삼성전자 김현석 부사장, 전영현 부사장, 삼성디스플레이 이윤태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했으며, 이 부사장은 삼성전자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삼성물산 상영조 부사장이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승진해 삼성BP화학을 이끈다.

정효진 기자 js62@

# 제주항공, 내년 코스피 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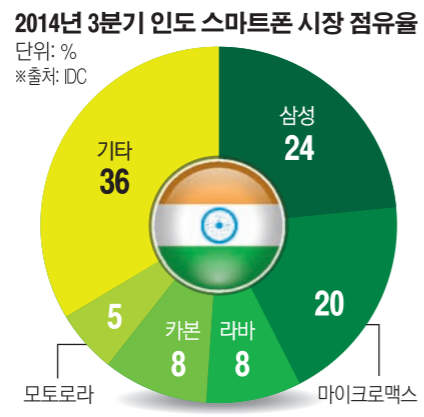
내년 3월께 상장... 상장차익 2000억 M&A 등 활용

제주항공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중 처음으로 내년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추진한다. 업계는 제주항공이 상장 차익으로 마련하는 2000억원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준비하는 데 사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1월 항공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애경그룹은 제주항공 상장 주관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투자증권을 선정해 상장 작업에 나섰다. 상장은 신주를 20% 발행하고 최대주주 등이 가진 구주 일부를 매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업계는 이르면 내년 3월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제주항공 기업가치가 5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그룹은 제주항공 상장을 통해 2000억원 이상의 현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내년 상장으로 유입되는 현금을 투자나 인수·합병(M&A)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주항공은 2005년 애경그룹 지주사인 AK홀딩스의 자회사로 설립됐다. 올 3분기 말 현재 AK홀딩스가 69.61%, 애경유지공업이 16.62% 등 애경그룹이 86.23%의 지분을 갖고 있다. 제주항공은 2005년 설

립 이후 2010년까지 적자에 허덕였다. 이에 애경그룹이 무모한 도전에 나서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많았다. 그럼에도 애경그룹은 같은 기간 제주항공이 자본잠식 상태에 이를 때마다 수차례의 유상증자를 통해 1100억원의 자금을 쏟아부었다. 제주항공이 변화하기 시작한 건 2010년 하반기부터다. 제주항공은 이듬해인 2011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각각 168억원, 53억원, 194억원, 169억원 등 4년 연속 순이익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7개 국적 항공사 중에서 제주항공은 3분기 말 기준 국내선과 국제선 시장 점유율이 각각 15%, 6%로 국내 항공업계 '빅3'로 성장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외형이나 디자인보다 본질에 충실한 저가 소비 성향을 적극적으로 공략한 효과다. 애경그룹은 제주항공을 그룹 성장동력으로 삼아 2018년 매출 1조원을 목표로 삼았다. 한편, 항공업계에서는 제주항공의 상장을 계기로 내년에 LCC의 증시 입성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장 2호로는 에어부산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진에어도 상장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조남호 기자 sprdn@

# 삼성 스마트폰 “인도 1위 지켜라”

3분기 점유율 24%로 1위 차지  
마이크로맥스·샤오미 맹추격  
독자 OS ‘타이젠폰’ 출시 반격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올해 3분기 인도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저가 타이젠폰을 인도로 출시하며 또 다른 승부수를 띄웠다. 1월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분기 인도 시장 스마트폰 점유율 24%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또 시장조사기관 GfK는 3분기 삼성전자 스마트폰 점유율 33%로, 2위 마이크로맥스와 격차가 확대됐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인도 시장에서 2011년 이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후발업체의 추격이 거세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도의 휴대전화 업체 마이크로맥스는 올해 3분기 시장점유율 20%로 삼성의 뒤를 바짝 뒤쫓고 있다. IDC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 내 삼성 스마트폰 출고량 시장점유율은 전년 42.5%에서 감소한 34.3%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마이크로맥스의 점유율은 7.7%에서 17.7%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여기에 중국업체 샤오미가 12월부터 인도에 새 모델을 선보이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샤오미는 인도 통신사 바티에 어필과 손잡고 5.5인치 레드미 노트를 3G LTE 모델 약 145달러(약 16만 원), 4G LTE 모델 161달러(약 17만8000원)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는 이달 10일 자체 운영체제(OS)인 타이젠에 기반한 100달러 미만의 저가 스마트폰 ‘제트윈(Z1)’을 인도에서 최초로 공개한다. 제트윈은 삼성전자의 첫 타이젠 스마트폰으로, 4인치 디스플레이에 320만화소 카메라, 듀얼 심(SIM) 등의 사양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권태성 기자 tskwon@

## LG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러시아 공략



LG전자는 지난달 29~30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프리미엄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출시 행사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코드제로’ 청소기를 해외시장에 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내년에는 유럽 출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코드제로’ 무선 핸디형 청소기는 핸디형과 스틱형 청소기를 결합한 ‘투인원(2 in 1)’ 방식으로, 교체할 수 있는 ‘듀얼 리튬 배터리 팩’을 제공해 한 번 충전으로 최대 70분간 사용할 수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 “오르기 전 사자”... 불붙은 ‘담배대란’

회사원 안철민(38·가명)씨는 아침 출근 길에 평소 피웠던 담배 ‘레종블루’를 사려고 근처 편의점에 들렀지만 허탕을 쳤다. 대신 그는 레종과 비슷한 류의 ‘더원’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안씨는 “편의점 주인이 담배값 인상으로 일부 인기 제품이 동이 났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남들처럼 평

하달해줬다. 지난달 28일 여가 담뭍값을 현재보다 80% 가량 인상된 2000원으로 올리는데에 합의했다. 인상폭이 확정되자 지난 9일 이후 주춤했던 담배 사재기가 이번 주말 다시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할인점들은 28~30일 평소보다 20~30% 가량 담배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자체 집계했다. 1인당 1~2 보루로 구매를 제한하고 있는 편의점들도 평소 한 두갑씩 사던 흡연자들이 제한폭을 넘어서 구입하려는 소비자들과 말싸움을 벌이느라 진땀을 흘렸다. 편의점 본사는 사재기 국면에 들어선 12월 동안 적극적으로 판매량을 조절할 방침이다. A사 관계자는 “사재기로 인해 매출 비중이 높은 담배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철규 기자 yoonck@

## 아모레퍼시픽 ‘AP’ 국내면세점 6곳 철수

아모레퍼시픽이 최고가 브랜드 ‘아모레퍼시픽(AP)’의 체널 전략 재검토에 나섰다. AP는 일본에서 매장을 철수한 데 이어 국내 면세점에서도 매장을 대폭 줄였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이달 동화면세점에서 AP 제품 판매를 중단하는 등 최근 롯데면세점 잠실점·코엑스점, 신라면세점 제주점, 신세계와 위귀하면세점 등 6곳에서 퇴장했다. 아모레퍼시픽은 국내 면세점에서도 자사 다른 브랜드와 함께 운영했던 AP의 소규모 통합매장을 모두 정리할 계획이다. 앞으로 남은 단독 매장은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점 등 4곳뿐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화장품 시장이 면세점

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AP가 면세점 업계의 ‘큰 손’인 중국인 관광객의 눈길을 끌지 못하는 것이 체널 전략을 재검토하게 된 이유라고 분석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3분기 국내 화장품 매출액 가운데 면세점 매출액은 약 1960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100.3% 급증했다. 이 기간 국내 화장품 매출에서 면세점이 차지하는 비중도 15.1%에서 19.5%로 늘었다. 그러나 면세점 매출 증가세는 AP가 아니라 ‘설화수’와 ‘헤라’ 등이 이끌고 있다. 회사는 “AP는 소수의 단독 매장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쓸 계획”이라며 “앞으로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고 럭셔리 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여겠다”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isa@

# 위기의 이통사, 올 인사 키워드는

단통법 시행 수익률 급감... 알뜰폰도 위협  
영업통 전진 배치 등 ‘안정 속 성장’에 중점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올해 이동통신 3사의 인사가 시작됐다. 1월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12월 중순부터 인사와 조직개편이 줄줄이 단행될 전망이다. 통신업계는 최근 단말기유통구조개편 시행으로 가입자 수 급감, 수익률 저하를 겪으며 성장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에는 조직안정과 성장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알뜰폰의 급성장으로 큰 위협이다. 특히 지난 2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장려금을 지급한 책임자와 법인을 동시에 형사고발하고 대규모 과징금까지 부과하기로 의결해 조직안정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임원급 승진인사를 지난해의 절반인 5명으로 줄이면서, 법률전문가와 영업전문인력을 전격 승진시켰다. 이번엔 전무로 승진된 LG유플러스 이은재 BS본부 엔터프라이즈2 부문장은 내부에서 ‘영업의 신’이라 불린다. 포화상태에 이른 B2C 시장보다 기업 영업에 전념해 전 부서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는 평가다. LG유플러스는 또 법률전문가인 이재용 법무실장을 전무로 앉혔다. 법적 대응력을 높여 단통법, 요금인가

제 등 법률적인 대외소극을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전무는 방통위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불법보조금을 주도적으로 지급한 사업자로 LG유플러스를 선정한 것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행정심판을 제기, LG유플러스 영업정지 기간과 과징금 규모를 극소화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조만간 임원인사를 단행할 KT 역시 안정과 성장이라는 큰 목표를 세웠다. 다만 세부적으로 ‘현장중심’을 핵심 키워드로 잡았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고객과의 접점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내부위기 침체를 극복하고 돌로 쪼개져 대립하고 있는 노조를 안정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현장 인사들을 대거 승진시킬 예정이다. SK텔레콤은 SK그룹의 인사 키워드와 궤를 같이 할 전망이다. SK그룹의 인사 키워드는 안정속의 성장이다. 일단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의 장기부재에 따라 인사 전반에 큰 폭의 변화를 주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KT와 LG유플러스가 가인터넷과 IPTV 등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 특히 마케팅과 요금 측면에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만큼 갑작스러운 인사 단행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성재 기자 ps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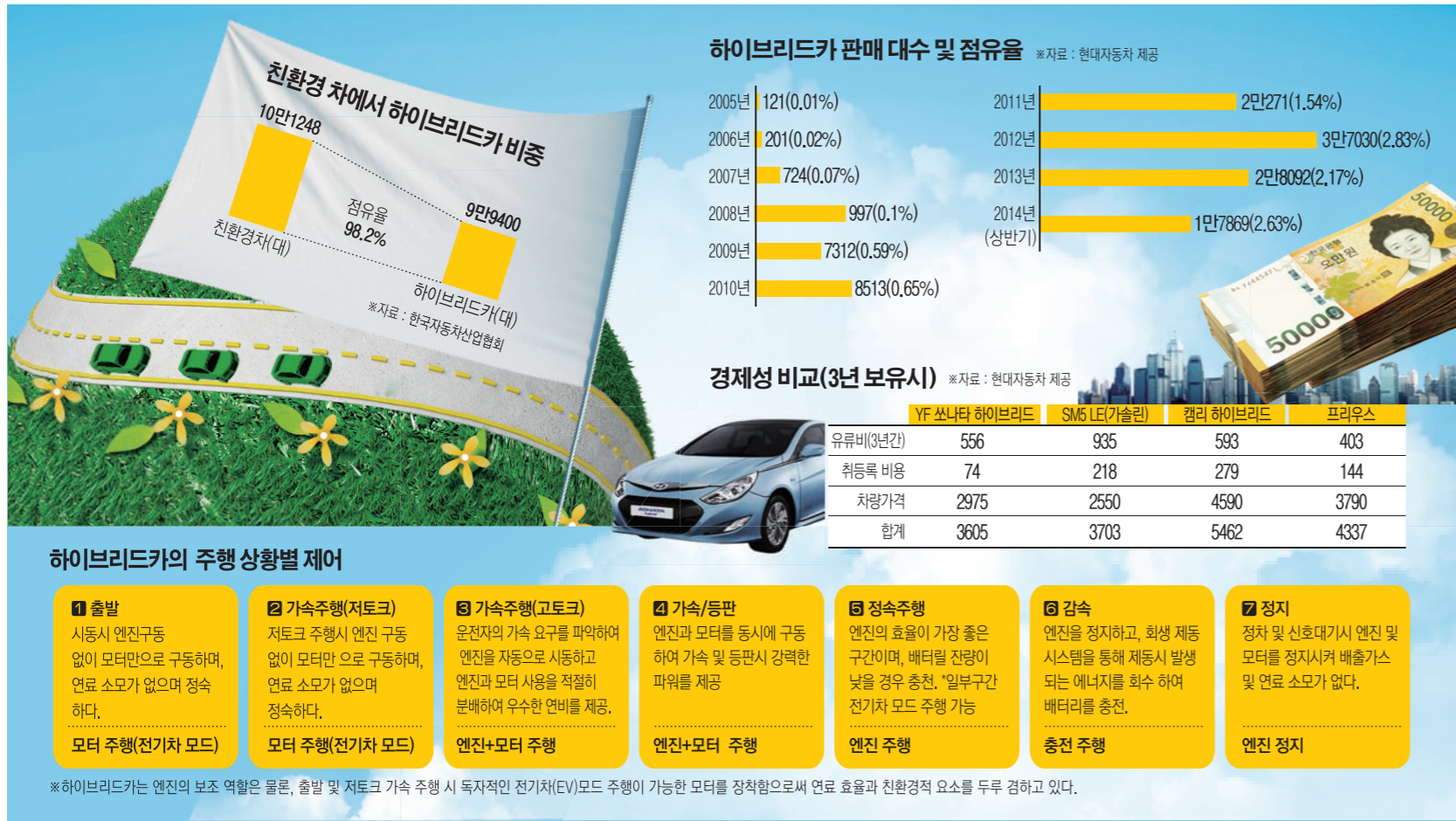
## LGU+도 ‘기가 인터넷’ 상용화

와이파이도 10배 빨라져  
LG유플러스는 100Mbps의 초고속인터넷 보다 최대 10배 빠른 1Gbps의 속도를 제공하는 ‘U+광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본격 상용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풀HD급 영화를 10여초 만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속도다. LG유플러스는 또 기존 속도 보다 10배 빠른 무선 와이파이 서비스인 ‘홈가이와이파이’도 이날부터 서비스한다. 홈가이와이파이는 기존 100Mbps 인터넷보다도 기존 무선 와이파이 속도 대비 약 3배 빠른 80~90Mbps 속도로 이용이 가능하고, 인터넷 망이 1Gbps로 향상되면 기존 무선 와이파이 속도 대비

10배 수준으로 무선 와이파이 속도가 빨라진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U+광기가 인터넷 서비스는 1Gbps의 속도를 제공하는 ‘U+광기가’와 500Mbps의 속도를 제공하는 ‘광기가Slim’으로 구성됐다. 이용요금은 3년 약정을 기준으로 각각 월 3만5000원, 월 3만원이다. 부가세는 별도다. U+tv G 또는 070인터넷전화와 함께 이용할 경우 5000원 할인된다. LG유플러스는 U+광기가 인터넷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가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내년 5월 말까지 광기가 인터넷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이 모바일 2회선(80요금제와 62요금제 이상)을 이용하면 기존에 받던 할인금액에서 추가로 6000원을 할인해준다. 박성재 기자 psj@

# 친환경 대세...“2030년 점유율 50%”

〈美 에너지부 전망〉



친환경 '하이브리드카'가 자동차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 비해 완성도가 높은 인프라와 기술력은 하이브리드카의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

1월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완성차 5개사의 하이브리드카 누적 판매량은 9만9400대로 전체 친환경차(10만1248대)의 98.2%를 차지했다. 이는 하이브리드카가 친환경차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되는 대목이다.

앞으로 하이브리드카의 영향력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5년 부처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내년부터 하이브리드차 점유율은 매년 0.5%씩 증가하며, 2020년엔 연간

는 차량의 운동에너지가 배터리에 저장되고, 신호대기 등으로 정차하면 엔진이 정지돼 연료를 절감한다.

하이브리드카를 대표하는 자동차 업체는 토요타다. 1997년 하이브리드 기술이 적용된 '프리우스'를 세계 최초로 양산한 뒤 지금까지 글로벌 하이브리드카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9월 말까지 전 세계 하이브리드카 누적 판매 700만대를 달성했다. 지난해 12월 말 누적 판매 600만대 돌파 후 약 9개월 만이다. 현재 토요타는 하이브리드 승용차 27개 모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1개 모델을 약 90개 국가 및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다.

현대차는 2009년에서 첫 하이브리드 모델인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출시했다. 출시 시점만 놓고 보면 10년 이상 뒤쳐져 있다. 하지만 과감한 연구개발(R&D)

국내 5개사 누적판매 10만대 육박  
새 차 중 비중 4년새 0.65%→2.63%  
“2020년 연간 판매차량 6.2% 차지”

‘프리우스’ 글로벌 시장 700만대 판매  
내달 출시 ‘LF쏘나타’ 연비 18.2km  
내년부터 추가 보조금 100만원 지급

판매량 9만대(누적 56만대)를 기록, 신차 판매 시장의 6.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중형차를 중심으로 하이브리드카 판매가 빠르게 늘고 있다. 국내 신규 판매 차량 대비 하이브리드카 비중은 2010년 0.65%에서 올 상반기 2.63%까지 치솟았다. 2011년부터 현대기아차가 주력 차종인 쏘나타, K5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해 수요 상승을 견인했다. 올해 K7 등 중형급 신규 차종의 출시를 계기로 하이브리드카 판매량도 크게 늘었다.

하이브리드카는 ‘가솔린-전기모터’, ‘디젤-전기모터’ 등 두 가지 이상의 구동장치를 동시에 탑재한 차량을 말한다. 원래는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모터로 시동을 건 뒤 일정 속도(40km 이하)가 붙을 때까지 전기모터가 엔진에 보조동력을 전달해 움직인다. 감속 시에

투자를 통해 토요타의 원천기술을 빠른 속도로 따라잡았다.

정부는 하이브리드카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존 전기차에만 적용하던 보조금을 하이브리드차까지 확대 시행기로 한 것. 정부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하이브리드카 구매보조금 지원 신규 예산 403억9200만원을 편성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내년부터 하이브리드카를 구매하면 최고 310만원인 기존 세제 감면 혜택과 함께 1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미국 에너지부는 2015년 하이브리드카가 전세계 자동차 시장의 35%를 점유하고, 2030년에 50%에 육박해 가솔린, 디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자동차 시대가 끝날 것으로 예측했다. 김범근 기자 nova@

## 육아로 인한 골반·허리 통증 이제 그만

골반 보호 아끼띠·기능성 베개 등 눈길

출산 후 체형 변화를 겪는 엄마들은 척추와 골반에 고통을 수반하는 육아병으로 고생한다. 이에 엄마의 골반을 보호해주는 아끼띠 힌트나 모유수유 시 안장감을 느끼게 해주는 제품 등 육아병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육아용품들이 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1월 육아용품 브랜드 토드비에 따르면 보통 아이를 안을 때 체중의 10-15배의 충격이 허리에 가중되고, 몸의 중심이 앞으로 쏠려 허리에 통증을 유발한다. 여기에 엄마들은 출산 후 체형이 변화돼 척추와 골반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많은 육아용품 업체들은 엄마의 고통을 해소해줄 수 있는 제품들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특히 힌트 아끼띠를 오래 착용하면 엄마들의 아랫배와 골반에 부담을 주게 된다. 이에 토드비는 이 같은 엄마들의 골반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에어모션 힌트 아끼띠를 출시했다.

상부 보형물과 에어가 장착된 하부 보형물이 핵심이다. 엄마와 아이의 크기에 맞게 에어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또한 힌트와 아끼띠의 연결 부분에 지퍼 오토락 기능을 장착, 자동 잠금이 가능하다. 모유 수유 시 엄마들의 체형 불균형을 방지해주는 제품도 나왔다. 엔젤안담의 행잉체어 브라질은 캠핑용 침대 해먹을 접목시킨 제품으로, 모유 수유 시 엄마의 허리와 골반을 받쳐준다. 아이들의 척추발달과 고관절 발달에도 영향을 준다.

기능성 베개도 눈길을 끈다. 가누디의 골반베개는 고밀도 향균 메모리폼으로 골반과 허리를 지지해준다. 척추액 흐름을 안정시켜주는 두개골 보호 요법이 적용돼 체액순환을 도와준다.

척추관절 전문병원 비료병원 이진준 원장은 “아이 안을 때 아이가 처지지 않게 아끼띠를 자주 조정해 주고, 인체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정유 기자 thec98@

## 빌려쓰는 사무공간 ‘비즈니스센터’ 커진다

리저스, 아마존·알리페이 등 고객  
르호봇 전국 31곳 2300개사 입주



국내 비즈니스센터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한국에 진출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 최근 비싼 임대료에 압박을 받는 소규모 기업들의 인식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서다.

전우진 리저스코리아 대표는 최근 을지로 센터원 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글로벌 리저스 본사에서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양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톱 5’ 지역으로 꼽고, 내년부터 네트워크를 확장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현재도 리저스코리아 비즈니스센터는 아마존, 알리페이, 엑스피디아 등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저스코리아가 제공하는 비즈니스센터는 사무공간을 빌려쓰는 개념의 오피스 솔루션이다. 주요 비즈니스 지역에 위치해 외국인이나 이동이 많은 개인·기업 고객 등을 대상으로 업무 성격에 따라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고객들은 매달 일정 비용만 지불하면, 업무와 관련된 모든 물품, 장치들을 이용할 수 있다.

전 대표는 “리저스코리아는 8년 전에 일부 비즈니스센터를 인수하면서 한국에 진출, 현재 서울 내에 12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고객 비중으로 보면 외국계 대기업이 60% 이상”이라고 말했다. 리저스코리아에 따르면 실제 을지로 센터원 비즈니스센터에도 중국의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페이가 입주해 있고, 무역센터점에도 아마존 인력 약 50명이 근무하고 있다.

리저스코리아는 한국에서 증거가 모델까지 넓혀나갈 계획이다. 이에 지난해부터 중소 기업들을 타깃으로 하는 저가형 비즈니스센터도 시범 운영 중이다.

리저스와 같은 글로벌 업체와 맞서 국내 비즈니스센터 프랜차이즈 업체도 최근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국내 1위 업체인 르호봇은 이달 초 국내 유명 투자사로부터 총 40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르호봇은 소호사무실 임대사업으로 시작해 현재 전국 31개 비즈니스센터에 약 2300개가 넘는 입주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투자 유치로 앞으로 르호봇의 국내 비즈니스센터 시장 공략도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유 기자 thec98@

# 무려 8억 원까지 연 4% 수익률

(세전, 2014.11.17기준, 3개월물, 개인고객)

**대신증권 특판 RP**

장은 목혀야 제 맛이지만  
돈은 굴려야 살 맛 납니다.

당신의 자산,  
낮은 수익률에 목하지 말고, 옮기세요.  
대신이니깐 크게 드립니다.

**조건별 우대수익률 및 한도**

구분	자산일고 고객	신규 고객
우대수익률	연 4.0%(세전)	연 3.7%(세전)
개인한도	최대 8억원	최대 5억원
조건	리서 ELS, 연금저축, 펀드, 채권 일고 시	체크카드 발급 및 10만원 이상 지출이체 등록 (1년이상)
비고	자산일고 고객을 우선하여 일고로액 만큼 우대한도 부여 (단, 펀드 단독은 불인정)	당시 신규고객의 계약개수와 우대조건 모두 충족되어야 함
중도해지	중도해지시 가입시점의 수시RP 이용 적용	

**고객 감동센터 1588 - 4488** \*특별판매조건등 세부사항은 영업점 및 고객센터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당사는 위험성, 수익성, 수수료, 해지방법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그러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이 손실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RP수익률은 일일금리 회사가 고시하는 액당수익률이 적용되며, 당해 수익률은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RP의 만기일 이전 중도해지할 경우 당초 약정수익률보다 낮은 중도해지수익률로 지급됩니다. \*RP는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가치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한국금융협회심사필제14-07914호(2014.11.20-2015.11.19)

**대신증권**  
Daishin Securities

주목! 이곳 호반건설 | 광명역 호반 베르디움

# 광명역세권 '막차'... 뒤통수까지 등장

2000가구 대단지 관심 '쑥'  
이케아·코스트코 도보 10분  
김치냉장고장 설계 돈보여  
3.3㎡당 1210만원 '합리적'



'광명 호반 베르디움' 견본주택 입장을 위해 방문객들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제공 호반건설

지난달 27일 오전 9시, 이날 오전 11시 문을 여는 경기도 광명역 일직동 호반 베르디움 견본주택.  
최근 인기가 치솟은 광명역세권 분양시장에 대변하듯, 개관 2시간 전부터 견본주택을 찾은 관람객들로 붐볐다.  
"여기 들어오려고 난리죠." 호반 베르디움 견본주택을 보러 온 한 시민의 말이 끝나게 무섭게 한쪽에서는 "연락처 적어 줘요. 물량 나오면 연락 주세요"라며 명함을 한 움큼 쥐어주는 뺑다방도 등장했다.  
올해 광명역세권 마지막 분양물량인 '광명역 호반 베르디움'의 인기를 실감했다.  
이곳은 일찍부터 광명역세권을 낀 사업 지어져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인근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2000여 세대의 대규모 단지라는 점과 광명역을 끼고

있다는 장점을 모두 갖췄다.  
지리적으로 광명역과 3분 이내에 자리 잡고 있으며 편의시설인 이케아 및 코스트코도 10분 정도면 걸어서 갈 수 있다.  
우선 사통팔달 교통도 꼽을 수 있다.  
2016년 서울 금천구에서 강남으로 이어지는 강남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될 예정이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서부간선도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남부순환로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정도에서 30분 이내로 단축될 수 있다.  
수원과 광명을 잇는 광명고속도로 역시 계획 예정 단계이며, 지하철 상황도 좋아

저 서울 여의도까지 20분이면 달을 수 있다.  
또한 호반 베르디움만의 섬세함도 돋보였다. 그중 가장 높은 호응 얻은 김치냉장고장이다. 김치냉장고장은 업계 내 최초로 선보인 설계다. 말 그대로 김치냉장고가 벽으로 숨었다.  
업계 측은 "김치냉장고가 외부에 돌출되면서 동선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김치냉장고를 벽과 일체형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또한 팬트리, 드레스룸 등 주방들의 공

간 활용성을 돕기 위해 주방 등 실내 곳곳에 빌트인 가구를 설계해 수납공간을 마련했다.  
단지 내 상가에 스트리트몰 형식의 '아비뉴프랑'이 2만3000㎡ 면적으로 조성되는 호반 베르디움의 평당가격은 1210만원이다.  
청약은 12월 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일 1·2순위 청약, 3일 3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9일, 계약은 16-18일이다. 입주는 2018년 3월 예정이다.  
인천=정경진 기자 jungkj@

## 매매·전세값 상승세 둔화

11월 전달보다 0.07%·0.03%↓

전국의 주택 매매와 전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상승폭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주택 매매가격은 전달에 비해 0.17% 상승했다. 이는 10월(0.24%)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수도권은 지난달 대비 0.15% 올랐고 지방은 0.19% 상승했다. 지역별로 대구(0.60%), 충북(0.33%), 경북(0.24%), 울산(0.22%), 경남(0.20%) 경기(0.20%), 충남(0.19%) 등은 상승한 반면 전북(-0.02%), 세종(-0.02%)는 하락했다. 서울은 0.10%, 경기도는 0.20% 각각 올랐다.  
전세 가격은 신규 입주물량 감소와 월세 전환 등으로 전세물건 부족이 이어지며 전국적으로 0.30% 올랐다. 그러나 오히려 지난달(0.33%)에 비해 0.03%포인트 줄었다.  
박태진 기자 tipippo@

## 수도권 택지지구 분양 아파트 '놓치면 후회'

택지법 폐지... 마지막 물량  
한화 위례·대우 김포한강 등  
올해안 20곳 1만6590가구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를 골자로 한 9.1 부동산대책에 따라 신도시 및 택지지구가 사실상 마지막이란 평에 따라 희소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택지지구 신규 분양 아파트들의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있다.  
지난 10월 위례신도시 '위례자이'가 평균 139대 1로 판공신도시 이후 6년 만에 최고 경쟁률을 경신한 데 이어 '세곡 2지구 4·6단지' 공공분양도 평균 86대 1의 경쟁률을 순위 내 마감했다.  
특히 내년에는 청약제도 개편으로 1순위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져 택지지구

의 분양 아파트 경쟁률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1순위 통장을 가진 예비청약자들은 올해 마지막 택지지구 분양을 적극적으로 노려볼 필요가 있다.  
올해 연말까지 시흥 목감지구를 비롯해 광명역세권, 위례신도시와 동탄2신도시 등의 수도권 대규모 택지지구에서 총 20곳에서 1만659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한신공영은 경기도 시흥시 목감지구 B8블록에서 '시흥목감 한신휴플러스' 아파트를 28일에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5층, 7개 동, 총 693 규모로 전용 63~84㎡로 구성된다.  
한화건설은 내달 위례신도시에 '위례 오벨리스크'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오피스텔 3개 동 지하 5층 지상 16층 전용

23~84㎡ 321실과 상가(지하 1층·지상 2층 약 1만6000㎡)로 구성됐다.  
대우건설은 위례 주상복합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와 '위례 아트리버 푸르지오'가 오는 5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위례신도시 C2-2,3블록 '위례 아트리버 푸르지오'는 전용면적 97·101·104·133㎡ 등 총 214가구 규모다. 대우건설이 김포시 한강신도시 Aa-03블록 '한강신도시 3차 푸르지오' 견본주택을 지난달 28일 열고 분양을 시작한다. 지하 2층, 지상 29층의 아파트 15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59㎡의 단일평면 1510가구로 구성됐다. 김포도시철도 구래역(가칭, 2018년 개통예정) 500m 거리의 역세권에 들어선다. 단지 길 건너편에는 한강신도시 중심상업지구 조성되고 있으며 대형마트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구성원 기자 carlove@

## 건설업 체감경기 8개월만에 최저

정부 경기부양책 약발 다해...11월 CBSI 4.5P 하락

건설업체가 느끼는 체감 경기가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설연)은 1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지난달 대비 4.5포인트 하락한 70.4를 기록해 올해 3월(67.9)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2개월 연속 하락세로 지난 3월(67.9) 이후 8개월 만에 또다시 최저점을 찍었다.  
CBSI는 건설산업 건설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매달 발표하는 지수로 지난달보다 경기가 나아졌다는 응답과 나빠졌다는 응답이 같으면 기준점인 100을 기록한다. 나빠졌다는 응답이 많을 경우 100미만, 100이상이면 좋아졌다는 응답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이홍일 건설연 연구위원은 "건설업 체감 경기가 본격적인 시장 회복세가 시작되

기 전년 3월 수준으로 돌아갈 만큼 악화됐다"며 "정부의 경기 부양 및 부동산 대책 효과가 사라지고 추가적인 긍정적 요인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업체 규모별로는 대형업체가 지난달과 같은 92.3을 기록한 반면 중견업체는 70.0, 중소기업체는 45.1로 10월 대비 각각 8.8포인트, 4.9포인트 하락했다. 중견업체는 지난해 12월 이후 11개월 만에 지수 하락 폭이 가장 컸고 중소기업체도 지난해 수준으로 돌아갔다. 다만 대형사는 92.3으로 지수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위원은 "중견·중소업체들이 지수 하락을 주도하는 등 밑바닥 경기가 악화한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하지 않도록 정부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구성원 기자 carlove@

## 금주의 분양 캘린더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연락처	
12/1 (월)	접수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아이파크(민간임대) (~12/2)	02)2672-3000	
				김포시	장기동	e편한세상캐널시티 3순위	1899-9549
	계약	전북	완주군	이서면	혁신도시예코르3단지(B15) 1순위	063)223-2682	
				동구	봉곡동	금호강서한디움볼로 (~12/3)	053)753-7500
12/2 (화)	접수	경기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호반베르디움 1,2순위	1688-6442	
				강원	홍천군	홍천오드카운티 1,2순위	033)433-5308
	계약	경기	평택시	이서면	혁신도시예코르3단지(B15) 3순위	063)223-2682	
				소사동	평택소사별중흥S-클래스 (~12/4)	031)655-3700	
12/3 (수)	접수	경기	평택시	용이동	평택비전푸르지오 (~12/4)	1670-7087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호반베르디움 3순위	1688-6442
	계약	경기	김포시	양촌읍	한강신도시3차푸르지오2회(Aa-03) 1,2순위	1577-8942	
				양촌읍	한강신도시3차푸르지오2회(Aa-03) 1,2순위	1577-8942	
	접수	경기	수원시	하동	힐스테이트광교(O3) 1,2순위	1670-1221	
				용인시	마북동	용인구성역호성해링턴플레이스 1,2순위	1544-9914
	계약	세종	세종시	보령동	세종3차E-Gitel(L1) 1,2순위	033)433-5308	
				남양주시	별내동	남양주별내A8-1(국민임대) (~12/5)	1661-0077
	12/4 (목)	접수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7가	당산역롯데캐슬프레스티지 1,2순위	1899-4222
					김포시	양촌읍	한강신도시3차푸르지오2회(Aa-03) 3순위
발표		서울	종로구	교남동	경희궁자이(2BL)	1800-8577	
				교남동	경희궁자이(3BL)	1800-8577	
12/5 (금)	접수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7가	당산역롯데캐슬프레스티지 3순위	1899-4222	
				영등포구	신길동	레미안에스타움(신길7구역) 1,2순위	02)848-2600
발표	경기	김포시	신도림동	신도림아이파크(민간임대)	02)2672-3000		
			장기동	e편한세상캐널시티	1899-9549		

\* (주) : ○=오피스텔 \*자료+부동산114 (주)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굵은 글씨로 표시  
'겨울 분양 비수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전국에서 아파트 공급이 활발하고 청약시장의 열기도 뜨겁다.  
12월 첫째 주에는 전국 1만6171가구가 공급된다.  
택지지구 개발 중단과 1순위 청약제도 완화를 골자로 한 9.1대책의 영향으로 상승된 분위기를 몰아 건설사들이 연내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주 '광명역호반베르디움'과 '힐스테이트광교', '레미안에스타움' 등 대단지 공급을 시작으로 택지지구 및 신도시의 물량 공세가 이어진다. '혁신도시예코르3단지'와 '홍천오드카운티' 등 공공물량도 눈여겨볼 만하다.  
구성원 기자 carlove@

스마트폰에서 (QR코드)로 확인하세요.

### 최악의 불경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부동산 투자법

《경매의 신》, 《월세의 신》 저자의 부동산 투자 완결편

## 부동산의 신

이성용 지음 | 220쪽 | 13,000원

**언제, 어디에, 얼마를 가지고 투자해야 하는가?**  
위반건축물, 재개발, 상가·숙박시설·농지·산지·대지투자에 관한 모든 것

한 권으로 끝내는 수익형 부동산

## 월세의 신

이성용 지음 | 248쪽 | 13,000원

**종자돈 500만 원에서 10억까지 리얼 가이드라인!**  
입을 때만 이해되고 적용 못하는 책 말고, 해결방안은 내 문제로 남는 책 말고,  
**실전 노하우로 진짜 부자가 되는 책!**

이제 막 왕초보 딱지를 뗀 이들을 위한 경매의 신이 가르쳐주는 절대 한 수!

## 경매의 신

이성용 지음 | 248쪽 | 13,000원

**투자에 절대 실패하지 않는 현실성 100% 활용도 200% 경매기술**

매번 끝난 잔치에 발걸음을 하고, 소문이 없으면 투자할 수 있는 안목이 없어  
**목마른 사슴처럼 더 이상 헤매기 싫다면 이 책을 읽어라!**

www.muhan-book.co.kr / muhanbook7@naver.com / Tel. 02-322-6144 / Fax. 02-325-6143

# ‘逆오일쇼크’에 美연준 긴축정책 미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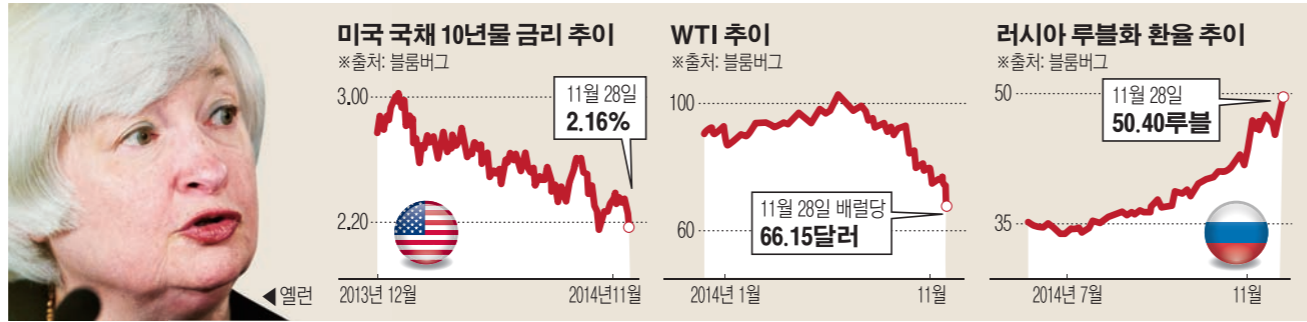
글로벌 ‘오일전쟁’의 후폭풍이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유가 급락으로 상품과 외환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유가 약세에 따른 디스플레이 압박이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통화정책에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합의 불발로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오는 2015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10% 폭락하며, 배럴당 66달러대로 떨어졌다. 이는 2009년 9월 이후 최저치다.

런던 ICE 선물시장에서 1월분 북해산 브렌트유도 배럴당 70달러 초반까지 하락하며, 2010년 5월 이후 최저치로 밀렸다. 브렌트유는 지난주에만 13% 하락했다.

주요 산유국이 몰린 걸프지역 증시는 폭락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증시는 30일 5.12% 하락하며, 11개월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증시는 5% 가까이 빠졌다. 앞서 러시아 증시 RTS지수는 3.2% 하락하며, 2009년 7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루블화 가치는 지난 주말 뉴욕외환시장에서 달러당 50.4085루블까지 떨어졌다. 이는 사상 최저치다. 브라질 헤알을 비롯해 호주 달러, 노르웨이 크로네 등 주요 산



## OPEC 감산불발로 배럴당 66달러대...5년만에 최저 달러강세·세일타격·증시부담...“금리인상 늦춰질수도”

유가 통화 역사 약세를 면치 못하면서 달러 대비 5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다.

자금은 미국 달러로 몰리고 있다. 주요 10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한 블룸버그달러스팟인덱스는 지난 주말 0.6% 상승한 1106.90을 나타냈다. 이는 2009년 3월 이후 최고치다.

전문가들은 유가가 급락세를 지속할 경우 달러는 물론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가 약세로 디스플레이 섹터가 빠지고 이는 연준의 긴축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세일업계가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되는 배럴당 40달러까지 유가가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연준의 금리인상이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미국의 실제금리는 지난 주말 큰 폭으로 내렸다. 뉴욕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2.20%가 무너지기도 했다.

국제와 동일 만기 물가연동채권의 스프레드로, 시장의 인플레이션 기대를 가늠할 수 있는 BER(break-even rate)은 10년물 기준 1.79%포인트로 낮아졌다. 이는 지난 2011년 10월 이후 최저치다.

미국 세일업계의 주가도 휘청거리고 있다. 뉴욕증시에서 브라이트필드에너지가 15% 급락했고, 굿리치페트롤레움은 32% 폭락했다. S&P500 에너지업종지수는 6% 급락했다. 이는 지난 2011년 8월 S&P500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한 이후 최대 낙폭이다.

피터 북바 리제이그룹 수석 애널리스트는 경제전문방송 CNBC에 출연해 “추가적인 유가 약세는 업계는 물론 증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싱크탱크 맨해튼인스티튜트에 따르면, 미국 원유·천연가스업계는 연 3000억~400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에너지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000만명에 달한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 中예금보험 내년부터 시행 “최대 9000만원까지 보장”

시진핑 추진 ‘금융개혁’ 속도 현재 예금규모 112조 위안 자금유지 특별한 제한 없어 은행간 금리인상 경쟁 치열



중국 예금자유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금융개혁 시동을 다시 걸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은행 1곳당 최대 50만 위안(약 9000만원)까지 지급을 보장하는 예금보험 초안을 공개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국무원과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다음 달 30일까지 은행과 일반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무원 성명은 예금보험이 언제 시행될지 밝히지 않았으나 소식통들은 이른바 내년 1월부터 이 제도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예금보험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 정권을 잡은 이후 가장 중요한 경제 개혁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WSJ는 강조했다. 시진핑 지도부는 시장에 더 많은 역할을 맡기고 고속 성장보다는 지속 가능한 성장에 방점을 둘 것이라고 공언했다. 예금보험 도입으로 중국 정부는 개혁에 다시 속도를 내게 된 셈이다.

예금보험제도는 은행들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뱅크런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국가가 실시하는 제도다. 그러나 중국은 모든 은행상품이 정부의 조건 없는 보호를 받는 지금의 금융시스템에 일부 리스크를 도입하려 한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 그 목적이 다소 다르다고 WSJ는 전했다.

예금보험 한도를 정해 은행과 대출자 7244명, 사망자 4181명이 발생해 3개국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빠른 속도로 예블라가 퍼지고 있는 시에라리온에서는 감염자 6802명, 사망자 1461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기니에서는 2123명이 감염됐으며 1284명이 숨졌다.

이외 말리, 미국 등의 감염·사망자 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WHO의 집계치는 불과 이틀 전인 지난 26일 발표한 사망자 수 5674명보다 약 1200명이 늘어난 것이다. WHO는 사망자 수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미보고 사례가 통계에 새로 반영된 것으로 추측했다.

스위스, 이민제한 국민투표서 부결 스위스로 유입되는 이민자 수를 현재의 매년 약 8만명에서 1만6000명 선으로 대폭 줄이자는 국민제안이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고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영국 BBC가 보도했다.

스위스 국영방송 SBC의 출구조사 결과 해마다 이민자 수를 전체 인구의 0.2% 이내로 제한해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자는 스위스 인구협회의 제안에 대해 74%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제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민자 수를 제한하는 것이 주택과 교통 등에 대한 신규 수요를 줄여 환경을 보전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스위스 주요 정당들을 포함한 반대파들은 경제인력의 25%가 외국인인 상황에서 이민을 제한하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스위스에 거주하는 외국인 대부분은 유럽연합(EU) 회원국 국민이며 이탈리아와 독일 순으로 이민자 수가 많다고 BBC는 전했다.

스위스 국영방송 SBC의 출구조사 결과 해마다 이민자 수를 전체 인구의 0.2% 이내로 제한해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자는 스위스 인구협회의 제안에 대해 74%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제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민자 수를 제한하는 것이 주택과 교통 등에 대한 신규 수요를 줄여 환경을 보전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스위스 주요 정당들을 포함한 반대파들은 경제인력의 25%가 외국인인 상황에서 이민을 제한하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스위스에 거주하는 외국인 대부분은 유럽연합(EU) 회원국 국민이며 이탈리아와 독일 순으로 이민자 수가 많다고 BBC는 전했다.

스위스 국영방송 SBC의 출구조사 결과 해마다 이민자 수를 전체 인구의 0.2% 이내로 제한해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자는 스위스 인구협회의 제안에 대해 74%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제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민자 수를 제한하는 것이 주택과 교통 등에 대한 신규 수요를 줄여 환경을 보전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스위스 주요 정당들을 포함한 반대파들은 경제인력의 25%가 외국인인 상황에서 이민을 제한하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스위스에 거주하는 외국인 대부분은 유럽연합(EU) 회원국 국민이며 이탈리아와 독일 순으로 이민자 수가 많다고 BBC는 전했다.

스위스 국영방송 SBC의 출구조사 결과 해마다 이민자 수를 전체 인구의 0.2% 이내로 제한해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자는 스위스 인구협회의 제안에 대해 74%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제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민자 수를 제한하는 것이 주택과 교통 등에 대한 신규 수요를 줄여 환경을 보전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스위스 주요 정당들을 포함한 반대파들은 경제인력의 25%가 외국인인 상황에서 이민을 제한하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스위스에 거주하는 외국인 대부분은 유럽연합(EU) 회원국 국민이며 이탈리아와 독일 순으로 이민자 수가 많다고 BBC는 전했다.



# 美교육시장서 구글 ‘크롬북’ 아이패드 추월

3분기 71만대 공급...1만대 앞서

구글이 미국 내 학교시장(school market)에서 애플을 추월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교육당국이 대량구매하는 전자기기 부문에서 구글의 크롬 운영체제(OS)를 탑재한 노트북 크롬북(사진)이 애플의 아이패드를 처음으로 제쳤다고 보도했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구글은 크롬OS가 탑재한 약 71만5500대의 크롬북을 미국 학교에 공급했다. 이는 애플 아이패드의 70만2000대보다 1만대 이상 많은 수치다.

FT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학교시장 전자기기 제조업체들에는 경쟁터와 다른 없는 곳이라고 전했다. ‘윈도OS 세대’가 아닌 ‘새로운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IDC의 라자니 싱 선임 연구원은 “크롬북의 성장세는 애플 아이패드의 가장 큰 고관”이라면서 “삼성 갤럭시에서 크롬북을 만들고 있으며 구글은 학교에 공급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IDC는 아이패드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시장에서도 주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이패드 사용자의 신제품 교체 시기가 예상보다 느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FT는 지난 3분기 애플의 아이패드 부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서희희 기자 jhsseo@

# 美 블랙프라이데이 특수 ‘별로네’

미국 소비자들은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에 509억 달러(약 56조4000억원)를 썼다고 미국소매협회(NRF)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NRF는 프로스퍼인사이트애널리틱스의 조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올해 수치는 전년에 비해 11% 감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미국의 추수감사절 연휴 소매매출은 2년 연속 감소한 셈이 됐다.

지난달 27일부터 나흘간 소비자들의 평균 지출액 역시 380.95달러로 전년에 비해 6.4% 줄었다. 주요 유통업체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같은 할인율을 제공했지만, 온라인 판매에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추수감사절 연휴에 온라인 매출 비중은 42%에 머물렀다. 이는 전년에 비해 2%포인트

추수감사절 연휴 56조원 지출 작년보다 11%↓ 2년 연속 감소 주춤할실시로 판매분산 탓 “연말 쇼핑시즌 낙관론은 여전”

트 낮은 것이다. 미국 소비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평균 159.55달러를 썼다.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 온라인 지출은 177.65달러였다.

추수감사절 다음날로 연중 최대 쇼핑일인 블랙프라이데이 오프라인 매출 역시 줄었다. 앞서 시장조사기관 쇼퍼트랙에 따르면 블랙프라이데이 당일 유통매장의 매출은 9% 감소한 91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소비자들은 블랙프라이데이까지 이틀간 매장에서 122억9000만 달러를 썼다. 이는 0.5% 감소한 것이다.

추수감사절 연휴 매출이 예상보다 부진한 것은, 전반적인 쇼핑 기간 확대 때문이라는 평가다. 주요 유통업체가 연휴를 앞두고 주춤했던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판매가 분산됐다는 것이다.

블랙프라이데이 매출 부진에도 전문가들은 고용시장 안정과 휘발유 가격 하락으로 소비심리가 견고하다면서 연말 유행몰이 시즌에 대한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다.

빌 마틴 쇼퍼트랙 창업자는 “블랙프라이데이 주간이 올해 남은 기간의 지표가 될 수는 없다”며 “소비자들은 여전히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 우산을 방패삼은 홍콩시위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홍콩 애드미럴티 정부청사 앞에서 홍콩 민주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고 있다. 이날 시위대는 최근 까우룽반도 몽콕의 시위캠프 철거 등에 대한 항의 표시로 정부청사 출입로 봉쇄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이에 약 3000명의 경찰관이 애드미럴티에 배치됐다. 홍콩/로이터연합뉴스

# 핀코, 그로스 떠나자 111조원 빠졌다

세계 최대 채권운용회사인 핀코가 ‘채권왕’ 빌 그로스의 부재와 함께 올해 막대한 자금 이탈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가 핵심 경영진 이탈 등 내분을 겪는 사이 경

쟁사들이 투자금 유출에 열을 올린 탓이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펀드조사업체 모닝스타에 따르면 10월 기준으로 올 들어 지금까지 미국에서 가장 자금이 많이

올들어 최대규모 자금이탈 경쟁사 뱅가드·폴드만 이동

빠져나간 펀드 10개 중 5개가 핀코가 운용하는 펀드였다. 이들 5개 펀드에서 빠져나간 투자금은 1000억 달러(약 110조85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최대

규모 자금 이탈이다. 전문가들은 핀코의 수익성 악화가 창업자인 그로스가 사임한 9월 전부터 시작됐고 그의 사임으로 정점을 찍었다고 보고 있다.

핀코를 빠져나간 투자금이 경쟁업체인 뱅가드와 메트웨스트(MetWest), 폴드만 삭스 등으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 ‘서아 3개국 에블라 사망자 7000명’

에블라 바이러스의 아프리카 주요 발병국에서 이 병으로 목숨을 잃은 인구 수가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기준 서아프리카 3개국(시에라리온, 기니, 라이베리아)에서 에블라에 감염된 사람은 1만6169명, 이 가운데 사망자는 6928명이라고 밝혔다.

‘편의 전쟁’ LPGA... 누가 얼마나 벌었나

리디아 고 보너스 포함 ‘300만 달러’ 잭팟  
박인비 대회당 1억원... 루이스보다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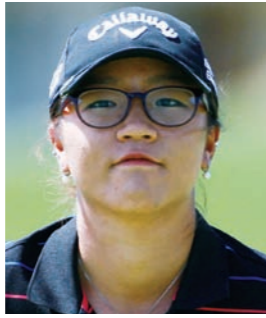
필드 위 ‘편의 전쟁’이 모두 막을 내렸다. 32개 대회 5632만 달러(618억1120만원) 규모로 치러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는 스테이시 루이스(29-미국)의 상금왕 등극으로 막을 내렸다.

루이스는 올해 28개 대회에 출전해 세 차례 우승을 차지하며 253만9039달러(27억8659만원)를 벌었다. 222만6641달러(24억4373만원)를 획득한 박인비(26-KB금융그룹)보다 31만 달러(3억4000만원) 정도 많다.

박인비가 지난해 5차례 우승컵을 거머쥐며 벌어들인 상금 총액 245만6619달러(26억9613만원)보다 8만 달러(8780만원)가 많은 금액이다.

그러나 올해 LPGA투어의 가장 큰 수혜자는 리디아 고(17-뉴질랜드)였다. 리디아고는 26개 대회에 출전해 208만9033달러(22억9271만원)를 벌어들여 상금순위 3위에 올랐다. 하지만 시즌 마지막 대회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 우승으로 올해 처음 도입된 CME 그룹 포인트 1위를 차지하며 100만 달러(10억9750만원)의 보너스를 별도로 받았다. 사실상 올해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인 선수다.

10승을 합작한 한국 선수들의 활약도 돋보였다. 상금순위 ‘톱10’ 중에는 박인비(2위)를 비롯해 유소연(24-하나금융그룹·5위·146만8804달러), 최은정(23-블랙·10위·104만8932달러)이 포진했다. 미국



리디아 고

은 2명, 뉴질랜드와 중국, 스웨덴, 호주, 스페인은 각각 1명씩 이름을 올렸다.

26개 대회 155억 원 규모로 치러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는 김효주(19-롯데) 전 하로 끝을 맺었다. 김효주는 올해 23개 대회에서 12억897만 원을 벌여 생애 첫 상금왕에 올랐다. 지난해 상금왕 장하나(22-비씨카드·6억8954달러)보다 무려 6억 원이나 많은 돈을 쓸어들었다. 그러나 LPGA투어 상금왕 루이스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대회당 획득 상금에서는 9만6810달러(1억624만원)를 챙긴 박인비가 9만679달러(9952만원)의 루이스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루이스보다 5개 대회나 적게 출전했기 때문이다. 상금순위 5위(192만4796달러·21억1246만원)를 차지한 미셸 위(25-미국)도 9만1656달러(1억59만 원)로 루이스보다 많았다. 김효주는 대회당 5256만 원을 벌었다.

13명의 선수에게 555억6000만 원이 쏟아졌다. 한국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의 거래 금액 이야기다. 총 19명의 FA가 탄생한 올 시즌 한국 프로야구에 몸값 거품 논란이 거세다. 소속구단과의 협상 마감일이던 지난달 29일 밤까지 거래된 계약금액만 무려 395억5000만 원에 달했다.

오상민 기자 golf5@



13명 555억... 프로야구 FA 狂風

(11월 30일 기준)

최정 ‘역대 최고’ 86억 SK 잔류

소속팀 롯데 88억 뿌리친 장원준

두산과 ‘4년 84억’ 계약서 사인

FA 총액, 벌써 역대 최대 넘어서

“임장료 인상 등 야구팬들에 피해

FA 돈잔치, 공멸로 이어질 수도”

첫 단추는 LG 프랜차이즈 스타 박용택(35)이 끼웠다. 박용택은 4년간 50억 원에 LG 잔류를 선택, 시작부터 예상치 못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러나 박용택은 지난 2011년 첫 FA 계약 당시 보장금액 15억5000만원(계약금 5억원+연봉 3억5000만원), 최대 34억원이라는 다소 막대한 조건에 계약한 만큼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금액이었다.

FA 거품 논란의 중심엔 SK와 삼성이 있었다. SK는 내야수 최정(27)과 4년간 86억 원에 계약, 지난해 강민호(4년 75억 원)의 역대 최고액 기록을 갈아치웠다. 최정은 한때 100억원 돌파설까지 나올 만큼 FA 시장 최대어 손꼽혔다. SK는 또 외야수 김강민·조동화(이상 33)와 4년간 각각 56억 원, 22억 원에 도장을 찍는 등 총 164억 원을 쏟아냈다.

삼성엔 윤성환(33)에게 투수 역대 최고 금액을 안겼다. 삼성과 윤성환은 4년간 80억 원에 협상을 타결해 지난해 장원준(31)이 기록한 투수 최고액(60억 원)을 경신했다. 삼성은 또 볼펜 투수인 안지민(31)과도 4년 65억 원

카드를 꺼내들어 불붙은 FA 시장에 기름을 끼얹었다. 내야수 조동환(31)과는 4년간 28억 원에 계약했다. 그러나 배영수(33)와는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별했다.

논란의 정점은 롯데 좌완 투수 장원준(29)이었다. 장원준은 롯데의 88억 원(4년) 제의를 뿌리치고 두산과 4년 84억 원 계약서에 사인했다. 장원준은 좌완인 데다 FA 선발 투수 중 최연소라는 이점을 지니 일찌감치 FA 최대어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FA의 몸값을 바라보는 야구팬들의 시선이 급저만은 않았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몸값은 결국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88억 원이라는 사상 최고액으로도 장원준의 마음을 잡지 못한 롯데는 김사율(34·13억), 박기혁(33·10억 원)에게도 적지 않은 금액을 제시했지만 FA 결심을 막지 못했다. 김사율(14억5000만원)과 박기혁(11억4000만원·이상 3+1년)은 각각 KT 위즈 유니폼을 입는다.

이로써 FA 19명 중 13명이 계약을 마쳤다. 그러나 이미 역대 최대 규모 FA 거래 총액(623억5000만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아직 FA 선수 6명은 팀을 찾지 못해 이들이 모두 새 구단과 계약이 이뤄진다면 FA 거래 총액은 600억 원을 넘길 전망이다.

이처럼 FA 시장의 거품 경쟁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프로야구 인기 상승과 치열한 순위 싸움, 그리고 NC, KT 등 신생 구단이 합류하면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류현진(27·LA 다저스) 등 스타 선수들의 잇따른 해외 진출로 남은 선수들의 희소 가치가 높아진 것도 원인이다.

문제는 FA에 대한 각 구단의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시설 관리 등 팬서비스에 투자해야 할 비용을 FA에 쏟아낼 경우 결국 피해는 팬들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임장료 및 상품 가격 인상 등도 현실화될 수 있는 만큼 공멸에 처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오상민 기자 golf5@



비타민하우스



1588-8529

하루하루 건강하고 활력있는 내 삶!

# 백년 백세효모

1. 천연원료 100% 비타민B1과 맥주효모를 부원료로 담았습니다.
2. 활력을 원하는 중장년층, 현대인에게 영양보충을 해줍니다.
3.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4. 노약자나 성장기 어린이까지 드실 수 있는 효모입니다.



나이들어서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자 할 때 백세효모와 함께 하세요.

전국 비타민하우스 가맹약국 건강기능식품코너에서 만나보세요.

인터뷰 공익근무·결혼... 야구인생 전환점 선 신정락

## 야구 못한다니 밤잠 안 와 8년 만난 여친 이젠 아내로



“야구에 대한 간절함을 새롭게 느끼고 싶어 군입대를 기다렸지만, 막상 야구를 못한다고 생각하니 혼란스럽다.”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위해 16년 동안 쥐었던 야구공을 잠시 놓는 신정락(27-LG)이 밝힌 심경이다. 신정락은 인생의 전환점에서 있다. 지난달 27일 입대에 이어 내년 1월 8년간 교제해 온 여자친구와 결혼한다.

△야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고 시작했다. 실제 야구를 해 보니 군기가 세서 많이 힘들었다. 그렇지만 워낙 야구가 재밌어 크게 개의치 않았다.”  
△대학교 때까지 주구종이던 슬라이더를 커브로 바꿨다.  
“어떻게 보면 야구에 대한 포기였다. 2012년 부진에 빠졌을 때 컨트롤이라도 잡아 보자는 생각으로 정확하게 던지면서 슬라이더의 스피드는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됐다.”  
△플레이오프 2차전서 호투했지만 팀은 한국 시리즈 진출에 실패했다.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대단한 시즌이었다. 풀퍼에서 올라간 4강이라 가장 기억에 남을 거 같다.”  
△군 입대를 앞둔 심경은.  
“포스트시즌 중에는 가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다. 지금 내가 야구에 대한 간절함이 부족해 군입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간사하다고 해야 할까. 포스트시즌이 끝난 다

음날 자려고 누웠는데 2년간 야구를 못한다는 생각을 하니 갑자기 공을 던지고 싶고 잠이 안 오더라. 지금도 뭔가 혼란스럽다.”  
△복무 중 야구 외에 하고 싶은 일은.  
“영어공부를 하고 싶다. 2년 동안 야구 외에 다른 사회경험을 한다는 마음으로 지내고 싶다.”  
△한 달 뒤 결혼한다는데 예비 신부의 어떤 매력에 반했다.  
“대학교 1학년 때 미팅으로 만났고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교제했다. 처음 봤을 때 딱 내 이상형이었다. 내가 귀엽고 마음씨 착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데 팬층은 거 같아서 만났다. 탁월한 선택이었다.”  
△군 복무 중 결혼을 결심했다는데.  
“연애를 8년 동안 했는데 여자친구가 계속 나를 기다려야 했다. 대학교 때부터 내 스케줄에 맞춰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보고 지냈다. 그러다보니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지더라. 야구 안 할 때 같이 살고, 오랜 시간 같이 지내 보자는 생각에 결혼을 결심했다.”

최성근 기자 sgchoi@

# “의사생활 접고 55세 창업... 행복합니다”

### 인도네시아서 제2의 인생, 이동균 ‘돌석’ 대표 “두 아들 해외로 떠나면서 인생 소중함 깨달아 한국 건축자재 수입·유통... 조금씩 성장 만족”

25년간의 의사생활을 접고 사업에 뛰어들어 경영인이 되었다. 주인공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거주하고 있는 이동균(57·사진)씨. 한국에서 25년 동안 정형외과 의사로 일했던 그는 지금은 먼 이국 땅까지 날아와 건축 자재를 팔고 있다. “지금도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다”고 늘 주변에 이야기하는 그는 세계적인 인무역협회(월드옥타) 본부 상임이사 겸 자카르타지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인도네시아 한인 비즈니스클럽’ 회원이기도 하다. 또 한인회 산하 문인협회 회원으로 수필과 시를 쓰는 작가로도 이름을 알리고 있다. 그가 설립한 회사는 ‘DULSEOK’(돌

석)이다. 이는 두 아들 건석(28), 기석(27)을 뒀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회사를 셋째 아들로 생각해 돌탑자를 써서 그렇게 지명했다. 충북 청주 출신인 그는 청주고와 충남대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서울 중구 저동대 백병원과 군 병원에서 각각 정형외과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밟았고 한국대 병원에서 조교수를 하다가 1992년 청주에 ‘이동균 정형외과의원’을 개업했다. 그는 두 아들을 각각 영국과 일본으로 유학 보냈다. 건석씨는 요크대를 졸업하고 귀국해 군 복무를 마친 뒤 현재 청주시 오창산업단지에서 있는 벤처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기석씨는 메이지(明治)



대를 졸업하고 도쿄에 있는 인터넷 광고 회사에 취직했다.

두 아들이 해외로 공부하러 떠나면서 그는 여유를 찾았고 자신과 아내의 인생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나이 50세가 되던 해인 2006년 12월 의사 생활을 마감하고 접었다. 그리고 휴식을 위해 아내와 함께 무작정 필리핀 마닐라로

날아갔다. 4년 동안 취미 생활과 운동을 즐기면서 그간의 세월을 보냈다.

그러나 그는 가슴 한쪽에 묻어뒀던 사업을 향한 꿈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2010년 12월 자카르타로 건너왔다. 1년 6개월 동안 사업 구상을 하며 시장조사에 나섰다. 그래서 찾아낸 사업이 지붕 마감재로 많이 쓰이는 아스팔트 시공을 한국에서 수입해 인도네시아 시장에 유통하는 것이었다. 2012년 10월 늦깎이 나이인 55세에 창업한 그는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조금씩 성장하고 있으니 이만하면 제2의 인생도 잘나가고 있는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의사가 밖에 나가 사업하면 99% 망한다며 주변에서 만류했다. 그러나 도전하고 싶었다. 병원은 내가 없으면 절대 안 돌아갔지만 사업은 내가 없어도 돌아갔다. 경영인(CEO)은 회사에서 주인공이 아니라 조언자라는 사업 모토가 직원들에게도 전달된 것 같다”고 밝혔다. 박태진 기자 tipippo@

## 노벨상 메달 경매로 내놓은 美 과학자 제임스 왓슨

### “인종 차별 발언 후회... 재기하고 싶다”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밝혀 1962년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던 미국 과학자 제임스 왓슨(86)이 최근 노벨상 메달을 경매에 내놓아 그 배정에 관심이 쏠렸다. 왓슨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2007년(인종 차별적인) IQ 발언 이후 사회적으로 매장됐다”면서 “아무도 나란 사람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이사로 참여한 기업들에서 쫓겨나고 대중 강연도 들어오지 않아 학교에서 받는 돈 외에 수입이 없다”며 노벨상 경매를 계기로 공적생활을 재개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 이어 “흑인의 지적능력에 대한 발언의 과문을 예상하지 못한 것이 어리석었다”며 “그런 말은 하는 게 아니었다”며 사과했다.



제임스 왓슨. 신화뉴스

2007년 당시 왓슨은 “흑인이 백인과 동등한 지능을 갖겠다는 전제 하에 이뤄지는 서구의 아프리카 정책은 잘못됐다”고 말했다가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그는 메달이 팔리면 자신을 돌보았던 모교 시카고대와 영국 케임브리지대에 기부할 예정이다. 박태진 기자 tipippo@

금을 내고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림도 사고 싶다고 덧붙였다. 노벨상 수상자가 사망 전에 메달을 경매에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왓슨과 노벨상을 공동수상한 프랜시스 크릭의 메달은 사망 9년 뒤인 2013년 경매에 나와 230만 달러(25억원)에 팔렸다. 메달은 오는 4일 뉴욕에서 경매에 부쳐진다. 경매사 크리스티는 250만~350만 달러 정도에 팔릴 것으로 보고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 ‘제13회 한미참의료인상에 성영자·네오플러스봉사단

한미약품과 서울시 의사회가 공동 제정한 제13회 ‘한미참의료인상’ 수상자에 성영자(사진)씨와 네오플러스봉사단이 각각 선정됐다. 한미약품과 서울시의사회는 1일 오후 7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시상식을 하고 상금 3000만원과 상패를 양측에 전달한다. 산업의학 및 예방의학 전문의인 성영자씨는 20년간 서울시 약무직 공무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내외 의료봉사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네오플러스봉사단은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교직원으로 구성된 의료봉사 단체로 의학·한의학·치의학 등을 결합한 통합 의료봉사 활동을 국내에서 펼치고 있다. 김인호 기자 kangih@



## 무박7일 ‘특전사 천리행군’ 첫 완주한 여전사 5인

### “위기마다 동기애... 목표는 최고 특전 여군”

남자도 힘든 무박 7일의 특전사 천리행군을 완주한 여군 하사 5명이 있다. 여군 1공수여단의 신예슬·민주원 하사, 3공수여단의 김시은·김홍지 하사, 9공수여단의 고다은 하사 5명 전원은 천리행군을 완주해 정예 특전요원 자격을 따냈다. 여군이 특전사 천리행군에 공식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전사 소속 여군 하사들이 지난달 13일부터 무박 7일 동안 진행된 특전사 천리행군을 마친 뒤 주먹을 쥐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특전사 천리행군은 올해부터 무박 7일의 주·야 연속 행군으로 바뀌었다. 하루 60~70km씩 총 400km를 행군 간 별도의 정비시간과 숙영지 편성 없이 완주하는 ‘지옥훈련’으로 바뀐 것이다. 이 ‘지옥훈련’은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7일간 산지와 들만 등을 걷는다. 4~5일차에 접어들면 가수면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걸음을 내디디고 6일차 이후에는 정신을 놓게 된다

고 한다. 신예슬 하사는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각오 하나로 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천리행군 완주 소감을 밝혔다. 민주원 하사는 “앞으로 군 복무하면서 더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이겨내 최고의 특전요원으로 거듭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특전사령관인 전인범 육군 중장은 “특전사 여군이 천리행군을 완주할 정도의 의지와 체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경진 기자 jungkj@

## 카리브해 섬나라 경제특사 된 로버트 드니로

미국 할리우드의 명배우 로버트 드니로(사진)가 카리브해 섬나라 ‘앤티가바바다’의 경제특사가 됐다. 개스턴 브라운 앤티가바바다 총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드니로는 제임스 패커리의 호주의 한 사업가와 함께 앤티가바바다의 호텔·리조트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2억5000만 달러(약 2700억원)를 투자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최근 체결했다. 이들은 7년 전 문을 닫은 별 다섯 개짜리의 ‘K-클럽’이라는 호텔을 리모델링할



앤티가바바다 정부는 설명했다. 브라운 총리는 “드니로가 경제특사로 미국 유명인사들로부터 투자를 더욱 끌어올릴 것”이라며 “또 고용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측은 이르면 내달 계약서에 최종 서명하고 1년 이내 착공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 ‘두산연강학술상’ 외과학 부문에 김형호 교수

두산연강재단은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14 두산연강학술상’ 외과학 부문 시상식을 열고 김형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와 박치민 삼성서울병원 교수에게 상금과 상패를 수여했다. 김형호 교수는 ‘복강경 위암 수술의 장기 추적 결과’ 논문으로 복강경 수술이 종양학적으로 안전함을 밝힌 점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돼 상금 2000만원을 받았다. 박치민 교수는 논문을 통해 중환자 전담의 근무가 중환자 사망률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 교수에게는 상금 1000만원이 주어졌다. 한편 두산연강학술상 외과학 부문은



박치민 두산연강재단 이사장(왼쪽)이 ‘2014 두산연강학술상 외과학 부문’ 김형호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에게 상패를 수여하고 있다.

한국 외과학 발전과 연구원들의 연구 의욕 고취를 위해 지난 2007년 제정됐다. 김인호 기자 kangih@

## 인사

-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승진 ○예산총괄과장 임기근 △정책조정총괄과장 윤성욱 △재정관리총괄과장 우병렬 △협력총괄과장 나주범
- ◆보건복지부 △간강보합정책과 보합정책과장 이창준
-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전보) △농업정책과 농림경제지원팀장 김충범
-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점장급 전보 △홍보실장 김재환 △성과관리실장 윤운국 △서민금융총괄부장 김동현 △국민행복지원부장 김태수 △중소기업지원부장 강남석 △자산인수기획부장 신덕호 △재권인수부장 김구영 △금융자산관리부장 백서룡 △공공자산관리부장 문영기 △공공자산개발부장 문도열 △조세정리부장 문종철 △국유재산관리부장 진효립 △국유증권실장 오용환 △서울국유재산부장 최오현 △서울지역본부 설립사무과장 권남주 △경기지역본부장 권연태 △대구경북지역본부장 황준환 △전북지역본부장 남정현 △경남지역본부장 김동연 △강원지역본부장 천성민 △충북지역본부장 류재명 △인제개발원관리실 김원대 △제남수실장 최경숙
- ◆인천항만공사 ○차장 승진 △기획조정실 신재관 △경영지원팀 박정서 △항만시설팀 남금심 ○과장 승진 △공사팀 하이레 △기획조정실 박현진 △경영지원팀 김운상 △마케팅팀 박치영 △감리팀 최병준
- ◆교통안전공단 ○본부장 등 전보 △기획본부장 김재영 △철도항공교통안전본부장 이용찬 △도로교통안전본부장 오인택 △서울지역본부장 정병현 △경인지역본부장 황병훈 △충북지역본부장 이희운 △호남지역본부장 이성진 △전략기획실장 권기동 △경영지원실장 서중석 △비서실장 김임기 △기획예산처장 최기호 △조정실장 신처장 김경준 △인천지사장 조운규
-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처 연구기획실장 황

- 준성 △기획처 성과평가실장 강성국 △교육정책연구본부장 겸 교육정책네트워크연구실장 이재분 △교육현장지원본부 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센터 소장 양희인 △대학평가본부 본부장 최상근 △대학평가본부 대학평가연구기획실장 이정미 △대학평가본부 대학평가운영실장 김기수
- ◆신세계그룹 (신세계그룹 전략실) ○승진 △부사장 CSR사무과장 김준선 △부사장보 커뮤니케이션팀장 박찬영 △S.com총괄 최우정 △상무보 S.com총괄 SCM총괄 김연섭 △커뮤니케이션팀 사병선 (신세계백화점) ○승진 △부사장보 식품생활본부장 조정현 △상무 영도표 △점장 박용일 △패션사업부 손문국 △재무담당 오용진 △신규개발담당 최민도 △상무보 하남점 △부사장 지원본부장 겸 신규사업본부장 박주형 △부사장보 패션본부장 손영식 △상무 센터 시티점장 권경희 △본점장 김정식 △식품담당 임훈 △상무보 생활담당 김진진 △충청점장 윤태중 (이마트) ○승진 △부사장 식품본부장 최성재 △부사장보 해외소싱담당 Christopher Callahan △상무 중국담당 김석범 △트레이더스담당 노재와 △신선식품담당 민영선 △상무보 CSR담당 김달식 △가공식품담당 남규혁 △해외사업담당 천병기 △물류담당 최태원 △업무혁신팀 △상무 신규사업총괄 김성영 △재무담당 이주희 △생활용품담당 김기곤 △해외소싱담당 내외소싱총괄 이연주 (신세계인터내셔널) ○승진 △부사장 글로벌패션2본부장 조병하 △상무 지원담당 서원식 △상무보 5사업부장 겸 비디비치사업부장 김모순 △PL사업부장 양호진 △3사업부장 장성은 △업무혁신팀 △부사장 글로벌패션1본부장 문성숙 △상무 2사업부장 송재은 (신세계푸드) ○승진 △부사장 식품본부장 겸 식품유통사업부장 안상도 △상무보 R&D담당 공병현 △F&E담당 박준균 △지원담당 류윤선 △업무혁신팀 △상무보 배

- 이커리사업부장 정재찬 (신세계건설) ○승진 △상무 기술담당 배진도 △상무보 하남복합센터 현장소장 김문경 △업무혁신팀 △부사장보 영업총괄 겸 영업1담당 박근용 △상무 지원담당 조 경우 (신세계이앤씨) ○대표이사 내정 △김장욱 신세계이앤씨 대표이사 ○승진 △상무 IT서비스사업부장 전창우 ○신규영업 △상무 S-LAB장 최병엽 (신세계조선호텔) ○승진 △부사장 면세사업부장 정준호 △상무 부산호텔총지배인 노상덕 (에브리데이리테일) ○대표이사 내정 △이태경 에브리데이리테일 대표이사 ○승진 △상무보 신사업담당 강영준 △판매담당 반성용 △업무혁신팀 △상무 매입담당 성영기 (센트럴티) ○승진 △상무보 관리담당 김형렬 (위드미에프에스) ○대표이사 내정 △윤명규 위드미에프에스 대표이사 ○승진 △상무 지원담당 조두원 △상무보 영업담당 이종용
- ◆코오롱그룹 ○승진 (코오롱) △상무 김민태 △상무 박민희 △상무보 양윤철 (코오롱인더스트리) △부사장 신재호 △부사장 박한용 △전무 이진용 △전무 김철수 △상무 한인식 △상무 장희연 △상무 류득수 △상무 이상목 △상무보 변재명 △상무보 노경환 △상무보 한창우 △상무 이장희 △상무보 박준성 △상무보 김경림 (코오롱글로벌) △상무 전철원 △상무 한영호 △상무보 김문수 △상무보 정공환 △상무보 강승철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이상우 (코오롱플라스틱) △상무 방민수 (코오롱비티) △상무보 김형민 △상무보 이종찬 (스위트랩) △상무 이철수 △전무 최영무 △상무 김용섭 (코오롱로텍) △상무 오용석
- ◆LG하우시스 ○부사장 승진 △자동차소재 부총사업부장 민경집 ○전무 승진 △신유통·마케팅부문장 김병수 ○상무 선임 △최고인사책임자(CHO) 김장성 △경영혁신담당 박진영 △구매담당 배인철 △안전환경·품질담당 권용규
- ◆지투알·HS에드·엘베스트 (엘베스트) ○전무 승진 △공고사업부장 정성수 (HS에드) ○상

- 무 신규법인 △공고사업부장 박애리 △뉴욕법인장 한정호 (지투알) ○상무 영업 △최고재무책임자(CFO) 윤경선
- ◆SBS ○아시아대우 △경영지원본부 이사대우 기술본부부장 겸 CTO 박성우 ○부국장 △편성본부 이사대우서팀 부국장 김태욱 △제작본부 부국장 겸 예능ICP 남승용 △드라마본부 부국장 고희식 △보도본부 기획취재부 부국장 박흥로 △부장 △윤리경영팀 부장 김우형 △기획본부 제작리소스팀 부장 신승준 △기획본부 스마트미디어사업팀 부장 이주상 △편성본부 부장급 아나운서팀장 신용철 △편성본부 아나운서팀 부장 유영미 △편성본부 부장급 편성팀장 최태환 △편성본부 PR팀 부장 김형욱 △제작본부 부장 김용재 △제작본부 부장 배성우 △제작본부 부장 황승환 △라디오센터 부장급 라디오운영팀장 최에라 △드라마본부 부장 강인호 △드라마본부 부장 김경민 △드라마본부 부장 손정현 △보도본부 정치부 부장 신동욱 △보도본부 정치부 부장 주영진 △보도본부 부장급 정책사회부장 최원석 △보도본부 정책사회부 부장 송성준 △보도본부 부장급 스포츠부장 손근영 △보도본부 스포츠부 부장 권종호 △보도본부 보도운영팀 부장 김경현 △영상본부 영상취재팀 부장 노인식 △경영지원본부 부장급 기획팀장 조석현 △경영지원본부 라디오기술팀 부장 채수현 △경영지원본부 인프라관리팀 부장 남석우
- ◆SBS A&T ○부국장 △기술지원본부 제작기술팀 부장 차동진 △기술지원본부 보도기술팀 부장 박임근 △기술지원본부 중계기술팀 부장 이원우 △미술팀부 아트2팀 부장 이승남 △미술팀부 CG팀 부장 양형모 △영상본부 영상편집팀 부장 김근중 △영상본부 영상제작1팀 부장 윤창호 △영상본부 영상제작2팀 부장 정기현 △영상본부 영상취재팀 부장 노인식
- ◆아시아투데이 ○승진/전보 △편성국 사회부장(부국장대우) 김병희 △편성국 경제부장 이규성 ○전보 △편성국 산업부장 권현탁

## 美 인형극 아버지 밥 베이커 별세

‘미국 인형극의 아버지’로 불리는 밥 베이커가 28일(현지시간) 향년 90세의 나이로 로스앤젤레스(LA) 자택에서 별세했다. 베이커가 알톤 우드와 함께 1963년 설립한 ‘밥 베이커 마리오네트 극장’은 직접 제작한 3000여개의 인형으로 가족극을 선보인 곳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어린이 극장 중 하나다. 2009년에는 LA 역사·



문화 기념물로 지정됐다. 베이커는 8살의 나이에 머빈 트로이 감독이 제작한 영화에 참여했고, 고등학교 시절엔 마리오네트 인형을 미국과 유럽에서 판매할 만큼 일찌감치 소질을 보였다. 2차 세계대전 잠전 이후에는 윌트 디즈니 등에서 애니메이션 고문으로 일했으며, ‘GI 블루스(1960) 등 250편 이상의 영화에서 마리오네트 작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서지희 기자 jhnsseo@

## 부음

- ▲장대현(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동련(홍익대 시카고디자인과 교수)·윤자·윤임씨 부친상, 부기택(미국 거주)·버터 마틴(전 스페인 교황약단 약장)씨 장인상 = 29일 오후 6시,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12월 2일 오전 9시, 02-2227-7659
- ▲마광수(파크뷰트비즈니스 대표)씨 모친상 = 30일 오전 2시 30분, 성남시 분당계생병원 장례식장, 발인 12월 2일 오전 9시, 031-781-7628
- ▲조용광(CJB정주방송 기자)씨 부친상 = 29일 오후 4시 21분, 충남 서천장례식장 2호실, 발인 12월 2일 오전 9시, 041-952-4490

기업과 스타 2012년 롯데 모자 쓴 김효주

첫해 한·일서 우승컵, 내년엔 LPGA 출전권

첫! 이 건 은밀한 이야기다. 기업과 스타가 만난 자리엔 늘 은밀한 거래가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이 오간다. 바로 스포츠 마케팅이다.

올 한해 기업들의 스포츠 마케팅을 결산해 보면 롯데만큼 우여곡절이 많은 기업도 없다. 롯데는 야구와 골프, 농구, 동계 스포츠 등을 통해 스포츠 마케팅을 전개했다.

무엇보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가 수난을 겪었다. 58승 69패 1무(승률 0.457)로 7위에 머물며 부진. 김시진 감독의 자진 사임 뒤 후임 임명 과정에서 선수단과 구단이 적잖은 마찰을 빚었다. CCTV 사찰 논란은 한국 프로 스포츠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고, 자유계약(FA) 선수 3명(장원준·김사육·박기혁)은 전부 롯데를 등지고 떠났다.

하지만 이 모든 골육을 한방에 날려준 선수가 있었다. 10대 골프천재 김효주(19). 롯데와 김효주는 참으로 묘한 인연을 타고났다. 2012년 4월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시즌 개막전 롯데마트 여자오픈에 아마추어 조장선수 자격으로 출전한 김효주는 프로 선수들을 모조리 따돌리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바로 그것이 김효주가 롯데 모자를 쓰게 된 계기다.

당시 김효주의 플레이를 현장에서 지켜본 노병용 롯데마트 사장은 가능성을 직감. 신동빈 회장에게 적극 추천하면서 롯데그룹과 계약이 이뤄졌다.



롯데의 골프 마케팅은 2000년대 후반부터 이뤄졌다. 2009년부터 KLPGA MBC투어 롯데마트 여자오픈을 개최했고, 2011년에는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이 시작됐다. 그리고 2012년부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롯데 챔피언십이 개최되고 있다.

하지만 김효주만큼 짝꿍 재미는 없었다. 계열사인 롯데마트와 하이마트는 올 시즌 단 1승의 주인공도 탄생시키지 못했다. 특히 권지람(20), 김소이(20), 김현수(22), 박유나(27), 장수연(20), 홍진희(23) 등으로 구성된 롯데마트는 장수연이 상금순위 12위(3억3118만원)에 오르는 데 만족했다.

김효주는 2012년 롯데마트 여자오픈 우승 이후 그해 6월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투어 산토리 여자오픈에서도 정상에 올라 한국과 일본 프로무대에서 우승한 첫 아마추어 선수가 됐다. 한국과 일본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롯데로서는 김효주 만한 선수가 없었다.

지난해에는 단 한 차례의 우승컵도 들어올리지 못했지만 평균타수(71.24)와 토폰퍼니시율(66.67%) 1위, 상금순위 4위(4억6468만원)를 차지하며 신인왕을 거머쥐었다.

그리고 올해는 다승왕(5승)과 상금왕(12억897만원), 대상(610포인트), 최저타수상(70.26타)을 휩쓸며 4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김효주는 LPGA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예비 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올라 내년 LPGA투어 출전권을 따냈다.

이제 관심의 초점은 김효주의 몸값 재평가에 쏠리고 있다. 2012년 10월 연 계약금 5억원에 롯데와 2년 계약한 김효주는 올해 계약 기간이 만료된다. 따라서 롯데와 김효주의 재계약 성사 여부와 금액이 관심사다.

그러나 김효주를 놓을 이유가 없는 롯데가 연 계약금 12억원에 사실상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효주는 LPGA투어와 국내 무대를 병행할 예정이어서 해외 진출로 인한 홍보 효과 반감 우려도 없었었다. 롯데의 스포츠 마케팅 사상 가장 성공한 사례로 손꼽히는 김효주가 이번에는 얼마짜리 카드를 꺼내들지 그 은밀했던 협상이 곧 공개된다. 오상민 기자 golf5@

특별기고

내년 반도체 설비투자 대폭 늘어난다

"반도체 설비 투자를 둘러싼 상황이 변한 것 같다. 지금까지의 예상으로 2015년 반도체 설비 투자 규모는 2014년의 533억 달러(약66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앞서 2015년 반도체 설비 투자는 536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의외로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많다.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고 IHS글로벌 일본 조사부 책임자인 미나미가와 아키라 애널리스트는 말한다.

그를 비롯한 IHS글로벌의 애널리스트들이 2015년을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리스크다. 외국 공장 진출에 의한 설비 투자가 멈추면서 고용 불안, 미국과 같은 머니게임이 병행하고 있는 점 등을 우려한 것이다.

중국 정부도 2015년은 성장률 7% 안정지향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지만 실물 경제는 그만큼 성장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시진핑 체제의 부진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 세계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BRICS 국가들도 결코 앞날은 밝지 않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상당한 마이너스 성장 전망이 나왔다. 셰일가스 혁명 등의 영향으로 석유와 천연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거품이 무너지고 있다. 브라질도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인도 또한 성장률이 떨어졌다. 지난 10년간은 BRICS가 세계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최근 들어 상황은 완전히 변했다. 주요 20국(G20)은 2018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이 2.1% 성장할 것으로 밝혔지만 달성할 수 있는지 의심하는 애널리스트가 많다.

이를 반영해 세계 반도체 시장은 2014년의 8% 성장률을 기



이즈미야 와타루

일본 산교타임즈 대표이사 사장

록한 데 이어 2015년에는 6% 성장에 그칠 것으로 IHS글로벌은 예측했다. 이 영향으로 반도체 설비 투자도 약간의 감액은 어쩔 수 없다는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대만의 TSMC는 설비 투자를 2014년의 100억 달러에서 2015년에는 30%나 늘린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굳히기 시작했다. 아이폰6가 호조를 보이는 한편 내년 하반기 시장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글폰의 영향이 크다. 이 2개의 스마트폰은 모두 퀄컴의 CPU를 채용하고 TSMC가 대부분 그 파운드리를 수주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구글폰은 최저가격이 5000엔(약 4만7000원)이라는 경이로운 스마트폰으로, 이는 어떻게 보더라도 중국의 저가 스마트폰을 겨냥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스마트폰은 그러나 기능을 부가해 가는 타임이며, 비싼 것은 1만 엔이나 한다.

참고로 구글폰의 로직 IC는 도시바가 전량 수주에 성공했으며 이를 생산하는 일본 오이타 공장은 모처럼 활기가 돋고 있다고 한다.

삼성전자도 투자를 늘린다. 경기도의 새 공장에 1조6000억 엔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필시 반도체 역사상 세계 최대의 공장이다. 아마도 M2M, 요컨대 사물인터넷(IoT) 사회가 도래함으로써 대량의 반도체 수요가 나올 것으로 예상해 의료, 로봇 등의 칩 증산에 일찌감치 대비한다는 의도로 봐도 무방하다. 삼성 자체의 실적은 별로 좋지 않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삼성전법을 다시 쓰려는 것이다.

삼성의 2014년 반도체 설비 투자는 약 120억 달러로 보이지만 2015년은 20~3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텔의 2014년 반도체 설비 투자는 110억 달러이지만 컴퓨터 성장이 둔화해 2015년은 거의 보합 수준으로 보인다. 단,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용한 PC 태블릿이 나오므로써 인텔에는 손흥이 불기 때문에 의외로 투자를 늘릴 수도 있다. 글로벌 파운드리나 도시바도 결코 2015년의 투자에는 나서지 않을 것이다. 도시바는 일본 미에현 오카자키의 새 공장에 5000억 엔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미나미가와 애널리스트는 "중국 스마트폰 호조를 보이고 사오미 등은 세계적 플레이어 성장했다. 스마트폰의 본격적인 전쟁이 2016년 시작될 것으로 보고 반도체 업체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메이커인 삼성의 차세대 기종 '갤럭시S6'의 시장과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와글와글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금 쏟아붓는다고 다 될까

○...놀림거리가 된 전통 시장 현대화. 정부가 3조원 이상의 지원금을 쏟아부어 지은 일부 전통시장의 상가 건물이 장소가 비좁아 시장 상인들마저 외면한다는 소식이다. 온라인상에는 "전통시장 살린다고 돈 수백억원 퍼부었는데 그거 다 필요 없는 일이지", "이미 죽어간 시장에 돈 써서 뭐 합니까. 편의성 높인 게 대형마트입니다. 무조건 옛것을 지키자는 건 정말 아니지. 살아남 시장만 살려서 세금 아껴라", "전통시장도 경쟁력 갖춰야 된다. 지원만 해주다 보니 자생력이 떨어졌다", "시장 왜 시장인데! 생각이 없는 거냐? 저런 식으로 건물 지으면 그게 백화점이지!", "현실과 동떨어져 책상에 앉아서 이상적인 계획만 남발한 결과가 이런 거다. 피 같은 세금 낭비나 하고 있으니 이렇게 된 거다" 등 냉소적 의견이 많았다.



○...유통기한이 지난 과자를 회수해 날짜만 바꿔 판매한 과자업체가 적발됐다. 네티즌은 "이유 없이 설사했는데 혹시 이 과자 먹어서 그런 거 아냐? 개념 없는 것들. 하니버터칩 만드는 거나 도와라", "업체명 밝히고 과징금 회사 자산 만큼 때리고 당장 영업정지 시켜라. 이 나라는 법이 불

러서 매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다", "딴 건 몰라도 먹는 것 갖고 장난치는 000들은 중국처럼 사형해야 돼. 자기 자식 먹는 것도 저런 식으로 만들까", "외국산 과자 문제 있다고 드립 치면서 국산 과자는 도대체 뭐가 좋은 거야? 질이 좋아? 맛이 좋아? 가격이 저렴해? 양도 질도 가격도 안 좋은데 국민들 호구로밖에 더 보냐", "무슨 과자인지 밝혀지지만 해 봐. 다시는 그 업체 제품 사나 보자" 등 지적이 많았다. 송형근 기자 x12xsado@

오늘의 Hot Click 베스트

- 1 제사 지내고 돌아오다 교통사고... 일가족 5명 사망
- 2 담배 사재기 기준과 벌금... 소비자 최대 몇 갑 살 수 있나
- 3 독일 푸드 셰어링 확산... 음식 공유의 유래
- 4 중국 축구 필수과목 지정... 실효성은 의문
- 5 경차 기준 완화 검토... 일부 수입경차 포함 여부에 관심

오늘의 연예뉴스

www.baekn.com

KBS가 단막극을 죽이는 까닭



배극남닷컴은 1일 다양한 기자칼럼을 통해 대중문화계, 스포츠계를 비판했다. '김민정의 시스루'는 '인기 없는 예능 살리고 재미있는 단막극 죽인다'를 통해 KBS의 단막극 폐지 움직임에 대해 비판했다. KBS는 다양성과 공공성이 중요한 단막극 특성을 인정하고 독립적인 예산과 편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두선의 나비효과'는 '막방은 어떻게 방송가 대세가 됐나'를 게재했다. 이제는 단순히 음식을 소개하고,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막방(먹방)의 트렌드화가 진행됐

다. 리얼 버라이어티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막방이 그 동질감 형성에 화룡점정을 찍는다. '오예인의 어퍼컷'은 'SNL 코리아5 마지막 회가 아쉬웠던 이유'를 분석했다. 유승운 전 파문을 일으킨 유세운, 김상혁 등의 출연으로 'SNL 코리아'가 점점 범죄 연예인의 복귀를 위한 방송이 되고 있다는 비판적 견해다. 엄연한 범죄를 희화화시켜 가볍게 다뤘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 '이꽃들의 36.5°C'는 '열정페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를 논했다. 유명 패션디자이너 디자인실 검수 급여 폭로, 아이돌 가수과 소속사 간 불합리한 전속계약 등 문화계의 불공정 처우와 노동착취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한편 '최성근의 인사이트'는 '2014 FA 시장, 이 건 아니잖아'를 괴뢰했다. 1999년 처음 도입된 FA는 선수 권리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현재 프로야구의 FA 몸값은 과도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막대한 FA 몸값은 팬들에게 부담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상민의 현장'은 '패자부활전 실종 사회'를 강조했다. 고양 원더스 해체와 FA 거품 논란을 비교해 한국 프로야구 내 승자독식 풍조를 지적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lee@

(주)지앤에스지

골프용품 전문생산 전문업체

받는분께 강한 만족감을 드리는 꼭필요한 선물!! G&SG에서 선물하세요~

기업홍보용품 / 선물용품 / 골프장개장기념품

골프필드용품 제조전문

02-744-7444/765-7404 www.gnsg.co.kr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208 (주)지앤에스지

VIP GOLF GIFT SET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G&SG의 골프필드용품



\*광고에 게재된 로고나 상호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NAVER 지앤에스지

데스크 칼럼

‘부동산 3법’ 이 뭐길래

“과거의 낮은 규제 주력시장을 엮어 놓으면 경기는 경기대로 죽고 서민들의 주거 수준도 높일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3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면서 한 말이다.

다음 날인 26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근현 사무총장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3법’의 빠른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는 주장을 폈다.

박 대통령과 여당의 발언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고 하는데 ‘부동산 3법’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말로 요약된다. 부동산 3법은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재개발조합원 1인 1가구 공급 폐지 등이다.

정부와 여당은 관련 규제가 현재 시장 여건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현재는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부동산 3법은 지키면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장해왔다.

참에하게 맞서던 여야는 타협점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지역을 민간택지로 한정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5년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재건축 때 보유 주택수만큼 새 주택을 주려던 것도 3가구까지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 대신 세입자에게 1년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자는 선으로 물러섰다. 그런데 부동산 3법을 들여다보면 정부와 여당의 주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몇 년간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분양가 상한제의 필요성이 의심받고는 있다. 하지만 이는 선분양제를 택한 현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바로 가계부채와



정재석 부동산시장부장

직결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9월 말 가계신용 잔액 통계를 보면 가계신용 잔액은 3개월 전보다 22조원 늘어난 1060조300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66조7000억원 증가했고, 2004년 494조원에 비하면 2배 이상 상승했다.

10월 말 은행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잔액은 547조4000억원으로 2008년 1월 가계대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규모이다.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월 말 현재 350조2000억원으로 6월 말에 비해 11조9000억원 증가했다. 비은행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도 같은 기간 1조3000억원 늘었다.

금리인하와 DTI·LTV 완화 등 정부의 부동산 거품 피우기가 가계부채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인위적인 건설경기 부양과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면 가계부채의 추가적인 증가는 불 보듯 뻤다.

지금도 위례, 동탄, 강남 재건축 등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소비자들에게 분양가 거품이 전가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도 과거에서 보듯 강남과 신도시발 재건축 거품 유도로 주변 아파트의 연쇄적인 거품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 추정할 결과를 보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통해 수혜가 예상되는 전국의 재건축 단지는 총 442개, 이 중 서울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63곳을 포함해 204곳에 달한다. 면세단도인 3000만원 이상의 재건축이득이 가능한 지역은 강남과 1기 신도시 등 특정 지역에 불과하다.

또한 재건축을 통한 개발이득은 용적률 상향, 층수 상향 등 지역 주민을 포함한 공공재를 이용하는 것이다.

때문에 재건축을 통한 불로소득은 애초 공공이 회수해 최소화할 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막대한 개발이득을 노리고 재건축 사업이 무분별하게 진행될 것으로 우려된다. 곧 2000년대 중반처럼 주택가격 상승 연쇄반응을 통해 부동산 거품을 유발시킬 수 있다.

결국 부동산 3법은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지 전반적인 전세난 등 잠재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에는 제한적이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 부동산 정책에 대해 우려했다. 공급과잉도 박 대통령이 부동산 3법의 국회 통과를 요청하던 지난 25일 OECD는 “한국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주의 깊게 추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일본은 주로 상업용 부동산이 거품의 핵심이었지만, 우리는 일반가계 중심이다. 정부는 부동산 거품이 꺼질 경우 가계부채의 타격이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fugoo@

오상민의 현장

패자부활전이 사라진 사회

11월은 잔인했다. 최소한 한국 야구팬에선 그랬다. 누군가는 재기의 발판마저 빼앗겨 눈물을 삼켰고, 다른 누군가는 100억원에 육박하는 몸값으로 유니폼을 갈아입었다.



국내 유일의 독립야구단이던 고양 원더스가 마지막 훈련을 마치고 해체된 지난달 25일을 똑똑히 기억한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뜨거운 열정을 담은 그릇은 없었다. 멍든 가슴을 움켜쥔 선수들은 하나 둘 경기장을 떠났다.

그리고 다음날 멍든 가슴을 다시 한번 강타 당했다. 프로야구 자유계약(FA) 선수 19명과 원 소속구단의 협상 마감일이던 지난달 26일 밤까지 무려 400억원에 육박하는 거래 금액이 쏟아졌다. 고양 원더스 해체와 FA 거품 논란은 불과 이들 사이 일어난 일이다. 패자부활전 없는 승자독식의 메마른 사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이름이었다.

고양 원더스 야구단은 지난 2011년 9월 창단, 김성근 감독을 영입한 후 그해 12월 국내 최초 독립구단으로 출범했다. 허먼 구단주는 포박 3년간 아무런 조건 없이 매년 30억원 이상의 투자를 이어가며 23명의 선수를 프로구단에 보냈다. 3년간 남긴 성적은 96승 25무 61패.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땀과 눈물의 결정체다.

하지만 고양 원더스 해체로 길바닥에 나앉은 선수들은 또 다시 부활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빼앗겼다. 프로구단들의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받지 못했거나 구단이 방출한 선수들이 될 수 있는 공간은 고양 원더스가 유일했다. 그래서 더 많은 아쉬움과 미련이 남는다. 고양 원더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자까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기존 9구단이 좀 더 포용력을 발휘할 수는 없었던 걸까라는 섭섭함도 감출 수 없다. 더구나 고양 원더스 해체를 무색하게 하는 수십억원의 FA 선수 계약금을 보면 허탈감이 밀려온다.

물론 10년 가까운 기간 한 구단에서

꾸준히 출전하며 고된 성적을 올리기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동안 쌓아온 내공과 신뢰를 감안하면 FA 선수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단 하루 사이 400억원이 쏟아진 FA 시장과 단 한 푼의 지원도 허락되지 않는 고양 원더스 선수들을 단순히 시장논리로만 이해하기엔 무리가 있다.

단 한 번의 패배로 영원히 인생의 쓴맛만을 느껴야 하는 사회가 진정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FA시장에 쏟아진 엄청난 금액을 보며 다시 한 번 아픈 가슴을 쓸어내려야 하는 승자독식 사회가 진정 살맛나는 세상이라 할 수 있을까. 또 그런 사회 속에서 미래는 꿈틀대고 있는 걸까.

‘원조 연습생 신화’ 장종훈, 한국 최고의 원소타자 김현수(두산), 홈런왕 박병호, 그리고 올 시즌 최고의 히어로 서건창(이상 넥센)까지 이들은 모두 연습생이라는 패자부활전을 거쳐 기적의 드라마를 완성했다. 그들은 우리 사회에 패자부활전이 필요한 이유를 가장 멋있게 설명했다.

한국 프로야구는 지금 패자부활전 실종시대다. 열정으로 가득해야 할 그릇엔 FA 거품으로 채워지고 있다. 그 거품 속에서 승자독식이 부풀어 오르고 있다. 점점 메말라가는 한국사회에선 멍든 가슴을 억누르고 살아가는 패자들의 한숨이 깊어만 가고 있다.

문화부 차장 겸 스포츠팀장 gois@

객석

‘분양 광풍’ 언론보도, 괜찮나요



이태영 광주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현상의 여파로 분양권에 4000~5000만원의 웃돈이 붙으면서 기대 심리에 매물이 실종된 상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광주지역의 과열된 부동산시장에 대한 비판적 견해의 언론보도를 찾기 힘들다. 광고성 짙은 기사들로 오히려 언론이 투기를 부추기는 느낌마저 든다.

이동식 불법 중개업소인 이른바 ‘뺨다방’의 등장을 두고도 투기 과열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단 오히려 분양 열기가 뜨겁다는 등 무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언론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 냉철하게 판단하고 반영해야 하는 제 역할이 있다.

광고형 부동산 기사를 양산하게 될 경우에는 부동산 정보에 대한 해당 언론사의 신뢰 추락은 물론 독자의 입장에서 언론사 보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다른 매체를 찾게 될 수밖에 없다.

하루 하루 치솟는 아파트 가격은 광주 지역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란 이유로, 언론이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자신의 결혼 소식을 듣게 되면 축하한다는 말보다 “집은 어떻게 했어?”란 말이 먼저 나오는 요즘이다. 광주지역에도 아파트의 가파른 가격 상승으로 일부 신규 아파트 분양지역엔 투기 과열 현상이 나타나 결혼을 준비하는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최근 광주의 한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평균 57.96 대 1의 경쟁률로 광주 청약 최고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광주가 청약 광풍에 휩싸인 듯해 걱정이 앞선다. 자신들은 벌써부터 아파트 분양권의 시세차익이 수천만원 이상 붙을 거라며 청약 당첨이 곧 로또라며 뜬 분위기다. 아직도 집을 거주공간이 아닌 투자 대상으로

기자수첩

여론더보기 정책 남발하는 정부



전민정 정치경제부/puri21@

정부의 여론 때보기식 정책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여론에 민감한 사안에 ‘아니면 말고’ 식이다. 신중해야 할 정부 정책이 정치권에서의 여론몰이와도 똑 닮아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기자들과 만나 “정규직은 과보호되다 보니 기업이 겁나서 정규직을 못 뽑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상황”이라고 발언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기존의 고용제도를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노동계와 국민에게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비정규직 문제를 정규직의 밭그릇을 풀어 해결하겠다는 뜻으로만 들렸

다. 반발이 거세지자 기재부는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공무원연금 개혁 역시 이해 당사자 간의 충분한 협의보다는 사안의 시급성을 강조해 국민의 불안과 불신만 키웠다. 특히 ‘조안’이나 ‘정부 검토 의견’ 등의 표현을 내걸면서 공무원 사회와 야당으로부터 정부가 지나치게 여론 때보기식 행보에 매달린다는 비판 세례를 받았다.

지난 9월 말 발표·경제수장이 한목소리로 ‘기업인 사면론에 불을 지핀 것도 경제살리기를 명목으로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시나리오라는 설이 흘러나왔다. 지난달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실금세 발언 논란 역시 “농담이 와전됐다”는 복지부의 해명에도 여론 때보기음 아나라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론 때보기식 정책 추진으로 부처와 이해당사자 간의 협업은 물 건너갈 공산이 커진다. 자칫하다간 국민의 신뢰마저 잃을 수 있다는 점도 정책 당국자들은 유념해야 한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departments: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이종재, 논설실장 김경철, 편집국장 강혁, 논설실, 정치경제부, 산업부, 문화부, 광고실수, 광고문의, and others with phone numbers.

Large advertisement for the book '영영이별 영이별' by Kim Byul. Features a woman's portrait, the book cover, and promotional text: “이 은밀하고 간절한 속삭임에 귀 기울여주실 전가요?” and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지로 쫓겨 간 단종과 비운의 왕비 정순왕후, 65년의 처절한 사랑이 김별아의 소설로 다시 태어나다!”



눈, 비, 바람으로부터  
발을 지켜주는  
100% 천연양털 신발

골프화겸 일상화로 착용!



# 잔디로 에스키 양털 레저화 출시! 보온, 방수, 미끌림에 강하다.

양털 레저화!



소비자가격: ₩210,000원

JM2483-02 / 색상: 짐밤색, 검정색 / 판매가격: ₩168,000원



소비자가격: ₩225,000원

JM2481-01 / 색상: 검정색, 진밤색 / 판매가격: ₩180,000원

누제 신사화!



소비자가격: ₩176,000원

JM2303(검정색) / 판매가격: ₩123,000원



소비자가격: ₩176,000원

JM2302(검정색) / 판매가격: ₩123,000원



소비자가격: ₩176,000원

JM2301(검정색) / 판매가격: ₩123,000원

제품문의: 02)6909-8834 서울역점: 02)6959-4900 목동점: 02)2608-7400  
www.jandiro.com 인덕원점: 031)422-8688 광주점: 062)351-9000 전주점: 063)276-5000

**OPEN** 서울역점  
사/은/품/증/정



올해 베스트셀링카 키워드 '실속' | 20면



환경교육 현장 가보니... | 21면

Cover Story  
통신 '속도전쟁' 재점화

스피드에 쫓겼다  
'초고속' 9년 만에 1초마다 데이터 10억 비트 전송  
광랜보다 10배 빠른 서비스... '상상 속 세계' 현실로  
속도 두배 증가 땀 GDP 0.3% 성장... 삶의 질 향상  
인터넷 종량제 추진·트래픽 과부하 문제 속제 남아

'초고속' 9년 만에 1초마다 데이터 10억 비트 전송  
광랜보다 10배 빠른 서비스... '상상 속 세계' 현실로  
속도 두배 증가 땀 GDP 0.3% 성장... 삶의 질 향상  
인터넷 종량제 추진·트래픽 과부하 문제 속제 남아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인 2005년만 해도 100Mbps의 광랜이 최고의 속도를 자랑하는 서비스라 불렸다. 1986년 국내 최초 유선데이터 통신인 56Kbps 속도의 전화 모뎀으로 시작한 점을 감안하면 '100메가바이트'는 놀라운 진화였다. 하지만 진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인터넷 속도도 그만큼 빨라졌다. 국내 광통신이 도입된 지 9년째인 지금, 당시에는 최고였던 100Mbps보다 무려 10배나 빠른, 1초마다 데이터 10억 비트를 전송하는 기가인터넷이 탄생했다.

이처럼 이동통신사들은 '스피드'를 외치며 꾸준히 인터넷 속도를 진화시켜왔다. 우리나라가 정보통신기술(CT) 강국이라 불리며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도 세계 최고 속도를 자랑하는 초고속 인터넷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초고속 인터넷 속도가 두 배 빨라지면 국내총생산은 0.3% 성장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게다가 100Mbps보다 10배 빠른 기가인터넷을 통해 과거에는 상상만으로 끝났던 현상들이 현실에서 가능해지면서 우리 삶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가 100분에 걸쳐 봐야 하는 영화 한편을 1Gbps는 몇 십초 만에 다운로드 받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용량

인지 쉽게 이해된다.

지난 10월 부산에서 열린 2014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CT) 인프라와 놀라운 인터넷 속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등으로 큰 호평을 받기도 했다. 실제 회의 참가자들은 각 세션마다 유무선으로 스위스 제네바의 ITU 본부 서버에 접속해 회의 자료를 내려 받았으며, 최대 2500대의 단말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 접속했으나 단 한 건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 국내 유선네트워크장비 공급사인 유비쿼스는 10Gbps 백본스위치를 구축해 기가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 모든 성과는 기가인터넷 덕분이다.

물론 속도가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그에 따른 트래픽 문제 등 간과할 수 없는 부작용들도 있다. 어떤 산업이든 발전과 함께 변화가 동반될 경우 논란거리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특히 기가인터넷이 본격 상용화됨에 따라 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다. 무한정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주파수 용량이 부족한 문제 등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망 중립성 논란도 인터넷이 발달하고 사용자가 늘면서 제기된 이슈 중 하나다. 해외에서는 1970년대부터 망 중립성 문제가 거론됐으나 국내에서는 카카오톡이 트래픽 과부하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올해는 대한민국 인터넷 역사가 시작된 지 20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엄청난 나열 발전했던 인터넷 속도의 진화 과정과 그에 따른 문제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방안 등을 살펴본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커버스토리 18·19면

# 풀HD 영화 12초면 다운... 케이블TV도 4배 더 선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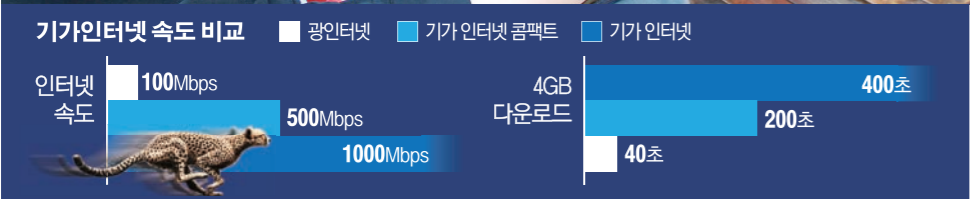


## '기가시대 개막' 분주해진 이동통신사

정부, 23개 도시 '기가시티' 선정... 2017년 85곳에 보급 예정  
CJ헬로비전, 'HON' 기술 공개 공동주택에 빠른 공급 가능  
KT, '기가토피아'로 경쟁사 앞질러 연말까지 4500곳에 제공  
SKT, 무선 초점 'B기가인터넷' 출시...LG U+ 무료 체험서비스

통신업계가 일제히 기가인터넷을 선보이며 본격 경쟁에 들어갔다. 이에 클라우드, UHD 방송을 포함한 고용량 콘텐츠, 사물인터넷 등과 같이 높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산업들이 기가인터넷의 활성화에 힘입어 폭발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통신업계가 일제히 기가인터넷을 선보이며 본격 경쟁에 들어갔다. 이에 클라우드, UHD 방송을 포함한 고용량 콘텐츠, 사물인터넷 등과 같이 높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산업들이 기가인터넷의 활성화에 힘입어 폭발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 피부만 좋아져도 남자는 확 달라 보여요

투명하고 활력 넘치는 피부를 만드는 컨디셔닝 효과  
스트레스, 먼지, 음주 등 많은 외부 자극들로 남자의 피부 컨디션은 계속 떨어집니다. 칙칙하고 거칠어진 피부를 바꾸고 싶다면, 맨 바이오 에센스를 만나보세요. 매일 변화하는 피부 컨디션을 빠르게 끌어 올려 투명하고 활력 넘치는 피부로 만들어 줍니다. 기억하세요, 피부만 좋아져도, 남자는 확 달라 보입니다.

**3일 후 느껴지고, 14일 후 완성되는 투명하고 활력 넘치는 남자 피부**

- 3일 후, 피부 보습력이 증가되는 것을 느꼈다 90.91%
- 3일 후, 피부가 매끄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81.82%
- 7일 후, 피부가 탱글해짐을 느꼈다 86.36%
- 7일 후, 피부가 환하고 깨끗해지는 것을 느꼈다 95.45%
- 14일 후, 피부가 전체적으로 좋아짐을 느꼈다 100%

이오페 맨 바이오 에센스 인체적용시험자 대상 3~14일 후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2012.11.6 ~ 2012.11.20 선인남성 23명 대상 / 조사기관 경희대 피부성명공학회 (7점 척도 중 상위 3점을 긍정 응답으로 계산)



전국 마트와 대형 마트에서 이오페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 080-023-5454 | www.iope.co.kr

진화판이라 평가되는 사물인터넷(IoT)을 상용화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기술이기도 하다.

정부는 2014년 5월 기가인터넷을 보급하고 확산하기 위해 경기·강원·충남·경북·경남·전북·전남 등지에 위치한 23개 도시를 '기가시티'로 선정하고 2017년까지 전국 85개 도시에 기가인터넷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년 만의 유선인터넷 속도 전쟁 =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10년 만에 유선인터넷의 속도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가장 먼저 총포를 쏘아 올린 곳은 케이블 업체인 CJ헬로비전이다.

이 회사는 지난 2009년부터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원(NIA)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가인터넷 활성화 시범사업에 참여해 2010년 7월엔 국내 첫 200Mbps급 초고속 인터넷을 선보였다. 이후 2011년 9월에는 기가인터넷 상용 서비스를 통신사 가운데 가장 먼저 출시했다.

CJ헬로비전은 기술적으로도 이동통신 3사에 뒤지지 않는다. 이 회사는 지난달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 특별행사로 열린 '월드 IT쇼'에서 '하이브리드 오버레이 노드(HON)'라는 새로운 기가인터넷 기술을 공개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HON은 기가인터넷 인프라를 더욱 촘촘히 구축할 수 있게 하는 기술로, 공동주택이나 신규 단독·다세대 주택에 기가인터넷을 더욱 효율적으로 보급할 수 있다.

이동통신 3사 역시 기가인터넷 상용화를 위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유선인터넷 분야의 전통적인 강자인 KT가 가장 앞선다는 평가다.

KT는 지난달 말 업계 최초로 전국을 대상으로 기

가인터넷을 구축하는 '기가토피아' 구상을 내놓으며 경쟁사들을 단번에 앞질렀다. KT는 올해 안에 UHD 기가TV를 상용화하고, 연말까지 커피숍을 비롯한 전국 4500여곳에서 기가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3년 동안 4조5000억원을 투입해 유무선 통합 기가인터넷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통신 본연으로 돌아가겠다는 황창규 KT 회장의 의지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SK브로드밴드는 10월 30일 'B 기가인터넷'을 출시하며 출시표를 던졌다. SK브로드밴드는 KT와는 달리 무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SK텔레콤 이동전화 서비스와 연동한 유무선 기가인터넷 서비스 개발에 나선 것이 그 근거다.

LG유플러스는 기존 고객을 유지한다는 전략 아래 UHD IPTV와 홈 CCTV 고객에게 기가인터넷 체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조만간 전국으로 기가인터넷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 트래픽의 76%가 클라우드 트래픽 = 기가인터넷의 발달은 더욱 많은 트래픽을 유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클라우드가 가장 많은 트래픽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시스코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5년 동안 전세계 데이터센터 트래픽이 3배 증가하고 이 가운데 76%가 클라우드 트래픽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스코는 지난해 3.1 제타바이트(ZB·1조 기가바이트)였던 세계 데이터센터 트래픽이 연평균 23% 증가해 2018년 8.6 제타바이트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8.6 제타바이트는 초고화질(UHD)로 제작된 모든 영화(약 50만편)와 TV 프로그램(300만편)을 25만 번 스트리밍하는 것과 맞먹는 용량이다. 지난해 데이터센터 트래픽의 54%를 차지했던 클라우드 비중은 2018년 76%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기가인터넷, IoT의 기초 = 기가인터넷은 사물인터넷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사물인터넷은 소단위의 주파수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많아질수록 트래픽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기가인터넷 수준의 속도가 보장되지 않으면 기술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기가인터넷이 전국망으로 깔리게 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사물인터넷 제품의 테스트 베드로 급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제 기자 psj@

## 인터넷 종량제 논란

### "찬성하지만... 제한 용량 늘려야"

기가인터넷 기본 데이터 100GB  
광랜 속도로 2시간 12분이면 소진  
소비자 "정말 필요할때 못 쓸수도"  
통신사 "트래픽 부담 커" 도입 검토

비판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데이터 종량제를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속도제한 범위에 대한 논란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갈수록 대용량화되는 인터넷 콘텐츠 환경을 고려하면 100GB 용량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1Gbps(=125MB/s) 속도로 100GB(10만MB) 용량을 쓰는 데 걸리는 시간은 800초, 즉 13분에 불과하다. 현재 광랜의 속도인 100Mbps(=12.5MB/s)로 2시간 12분을 쓰면 100GB 용량을 다 쓰게 되는 수준이다.

바꿔 말하면, 1Gbps 속도로 100GB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100GB까지면 1Gbps의 속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빠른 속도가 필요없는 작업을 할 때도 기가인터넷 속도를 써야만 한다는 점에서, 때에 따라 정말 필요할 때 기가인터넷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에 기가인터넷 제한 용량을 더 늘려야 한다는 소비자와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기가인터넷에 대한 종량제가 모든 데이터에 대한 종량제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앞서 통신사들은 무선 데이터뿐만 아니라 유선 데이터에도 종량제를 시행하러다 소비자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실제로 최근 통신사들은 늘어나는 트래픽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면적인 인터넷 종량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통신사들은 추가적인 주파수 확보를 통해 늘어나는 트래픽을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다"면서 "전면적인 인터넷 종량제 시행은 통신사들이 추가적인 수익을 얻기 위한 핏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성제 기자 psj@

기가인터넷이 본격 상용화됨에 따라 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논의도 급진전되고 있다. 통신사들은 게임, UHD 콘텐츠, 실시간 스트리밍, 클라우드 서비스 등 고용량 데이터 소비가 가팔라지는 추세여서, 기가인터넷을 무한정 제공할 경우 비용과 트래픽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들 역시 스마트폰을 통해 데이터 종량제를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큰 반발없이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다만, 속도제한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종량제 시행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통신사들은 기가인터넷에 한정해 이미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100GB만 기가인터넷을 서비스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기존 광랜 속도인 초당 100메가비트(Mbps)로 제공하고 있다.

망 사업자들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면서 초고용량 콘텐츠 소비가 자연스럽게 늘고 있고, 기가인터넷이 초고용량 서비스 소비를 더욱 부추기고 있어 기가인터넷을 정책적으로 무제한 제공하기에는 통신사 비용 부담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또 트래픽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당장 이를 감당할 수도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일단 통신사들의 이 같은 입장을 큰

# “트래픽 과부화” vs “소비자 권리 보장” 의견 팽팽

## 끊이지 않는 '망 중립성' 논란

몇 년 전 KT가 삼성전자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면서 망 중립성 논란이 다시 제기된 적이 있다. 당시 KT 측은 “스마트TV가 인터넷망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다”며 “다수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접속을 제한키로 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자 망 중립성과 이용자 보호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KT는 LG전자가 “트래픽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인다”는 이유로 삼성전자에만 이 같은 통보를 해 형평성 논란도 함께 불거졌다.

이에 대해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이 같은 결정은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며 삼성과 LG전자를 차별대우한 점도 공정성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망 중립성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인터넷 망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트위터나 메신저 등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났다고 해서 인터넷 서비스업체가 망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돈을 지불할 필요는 없으며, 이동통신사는 돈을 더 많이 지불한 대상에게 더 빠른 통신망을 제공하는 것 역시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공정성·형평성' 개념이 결국 망 중립성 논란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해외에서는 1970년대부터 망 중립성 논란이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인터넷이 발달하고, 특히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수면위로 급부상했다. 카카오톡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수년 전 카카오톡이 트래픽 과부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이동통신사들은 “카카오톡이 아무런 대가 없이 망을 사용한다”며 불만을 제기했고 이는 결국 망 중립성 논쟁에 불을 지폈다.

카카오톡을 통해 문자를 주고받는 이들이 급증할 경우 이동통신사의 수입원 중 하나인 문자메시지 수요가 줄면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카카오톡의 모바일 인터넷 전화 서비스(mVoIP)·보이스톡의 국내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도 이동통신사들은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했다. 보이스톡 역시 상당한 트래픽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

결국 이동사들은 불만 제기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차단, 통신요금 인상 등을 거론했고 소비자들의 거센 비판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동통신사들은 당시 상황과 관련해 “만약 카카오톡이 망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용량에 비례한 인터넷 사용료를 지불했다면 지금처럼

“이동통신망은 통신사의 소유물 카카오톡 등 망 사용 비용 내라” 인터넷사업자 “콘텐츠 개발 저해”

방통위 가이드라인 제정했지만 망설비 투자비 통신사들 떠안아 공정성·형평성 논란 여전히 지속

발전된 모습은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카카오톡을 비롯한 콘텐츠 공급업체의 입장은 다르다. 그들은 “모든 콘텐츠는 사용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유로운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데 망 사용에 대한 비용 지불은 콘텐츠 개발의 저해를 가져온다”고 입장을 밝히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망 중립성 문제와 관련,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2011년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시행했으며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또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망 설비에 대한 투자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인터넷 생태계를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공정경쟁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무엇인지, 정부의 개입 정도는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결론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요컨대 통신사가 주장하는 “이동통신망은 통신사의 소유물”이라는 논리와 인터넷 사업자들이 바라는 “망에 가입된 사용자들은 자유롭게 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 사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이들 논리는 끊임없이 격돌할 것이다. 그만큼 망 중립성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을 문제인 셈이다.

업계 전문가는 “통신망이 국가 기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그 관리는 일반 사기업에서 하고 있어 망 중립성을 놓고 기업 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어느 한 쪽으로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 해외서도 논란 가열

### 美 법원·행정부 엇갈린 주장 기싸움 佛·스페인 “망 이용비·구글세 징수”

해외에서도 업체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망 중립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망 중립의 원칙을 철저히 내세워 왔던 미국은 최근 들어 이에 반하는 법원 판결로 그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 1월 워싱턴DC 관할 연방 항소법원은 미국 1위 이동사인 버라이즌이 2011년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광대역 인터넷에 망 중립성 원칙을 적용한 FCC 규제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버라이즌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유튜브 등과 같은 콘텐츠 업체에 추가 요금을 매길 수 있는 근거와 관련해 탄력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판결과 변화의 조짐에도 불구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여전히 망 중립성 보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달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FCC에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의 망 중립성 보장을 촉구하며 권한도 늘리도록 했다. 또 일부 웹사이트를 우대하거나 소비자 접근을 막는 행위, 인터넷 트래픽 속도를 늦추는 광대역 업체 역시 추려낼 것으로 지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광대역 서비스 업체가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받아들이 수 없다”며 “이는 인터넷의 속성에도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럽은 미국과 전혀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아주 오래전부터 콘텐츠 사업자에게 망

사용 대가를 내도록 하자는 주장이 망 중립성 주장에 대한 의지보다 강했다.

특히 프랑스·스페인 등에서는 자국 내 콘텐츠를 활용해 글로벌 인터넷 업체가 수익을 얻으면 이용료를 부과하는 ‘구글세를 제안했으며 결국 스페인은 최근 들어 구글세로 불리는 뉴스 저작권 사용료 징수 법안을 통과시켰다. 구글세는 구글 뉴스나 야후 뉴스와 같은 포털사이트에 기사의 링크나 내용 일부가 게시될 경우, 언론사가 포털에 사용 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이다.

프랑스 역시 자국 통신사가 구글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받아 낸 사례도 있다. 프랑스 국영 통신사인 프랑스테레콤은 지난해 1월 “자사 네트워크 트래픽의 50%를 차지하는 구글로부터 망 이용 대가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프랑스테레콤을 비롯해 텔레포니카, 보다폰 등 유럽 통신사들은 이 같은 결정으로 2011년부터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다며 트래픽에 비례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공감해 온 결과다.

한편 유럽 국가 중에는 이들 국가와 달리 망 중립성을 강조하는 나라도 있다. 네덜란드는 수년 전 통신사업자들의 서비스 차단 및 지연을 금지하고 네트워크 사용자들에게 추가 요금을 물리지 못하도록 하는 망 중립성법을 통과시켰다.

하유미 기자 jscs508@



## 내 아이의 꿈에 희망을 더합니다

세상 모든 아이는 부모의 희망이기에 LIG손해보험이 아이를 평생 지켜주고 싶은 당신의 마음을 자녀보험에 담았습니다. 아이의 내일이 희망으로 가득해지고 그 희망들이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도록 LIG손해보험이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아이를 튼튼하게, 희망을 든든하게 **LIG NEW 희망플러스 자녀(태아)보험**

출생에서 일생까지! 희망파트너 LIG 손해보험



•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3-2857호(2013.12.30) •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LIG타워 www.LIG.co.kr • 고객센터: 1544-0114  
 •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 거절 및 보험료 인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보장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되며,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장 대상 금융자산의 합인 한도인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해지급금을 합하여 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2014년 수입차 누적 판매 대수**

- 1위 티구안(폭스바겐) ..... 6371대
- 2위 E220(메르세데스-벤츠) ..... 52861대
- 3위 520d(BMW) ..... 52791대
- 4위 폴크(폭스바겐) ..... 42671대
- 5위 E250(메르세데스-벤츠) ..... 36011대

연비·가격 '착한차' 열풍...올해 베스트셀링카 키워드는 '실속'

# 국산차 쏘나타·수입차 티구안 '독주'

2014년 국내 자동차 시장을 뜨겁게 달군 '베스트셀링카'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올해 자동차 시장의 키워드가 '실속'인 만큼 합리적 가격의 고연비 차량으로 대변되는 '착한 차'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산차 중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쏘나타'가 2년 만에 베스트셀링카 타이틀을 거머쥔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차 분야에선 폭스바겐의 '티구안'이 유력하다. 이들의 공통점은 3000만원 이하의 가격에 연비가 좋은 이른바 '실속 있는 차'라는 것이다.

쏘나타는 올해 1~10월까지 국내 시장에서 총 8만8485대가 팔렸다. 쏘나타의 월 평균 판매대수가 8800여대인 점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10만대 돌파가 무난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쏘나타는 2012년 이후 2년 만에 다시 '베스트셀링카'의 왕좌에 앉게 된다. 현재 쏘나타는 기존 모델인 YF를 비롯해 신형 LF, 하이브리드 등 세 가지 모델이 판매되고 있다. 올해 출시된 신형(LF) 쏘나타는 전작보다 신차 효과가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3000만원대 이하(2255만~2990만원)에 형성된 판매가는 확실한 경쟁력이다.

신형 쏘나타와 사양이 비슷한 닛산 알티마(3350만~3750만원), 혼다 어코드(3250만~4150만원), 포드 퓨전(3695만~3995만원)보다 저렴하다. 가장 최근 출시된 캠리는 2.5 가솔린 모델(3390만원)과는 최대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연비 부문에서도 신형 쏘나타는 이들 경쟁 차량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우수하다.

현대차 관계자는 "고유가와 불경기가 이어지면서 실용적인 선택을 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경쟁 차종에 비해 연비가 뒤쳐지지 않고, 디

현대 '쏘나타' 올 10만대 판매 무난

2년 만에 '베스트셀링카' 등극 눈앞

경쟁차보다 연비·디자인·가격 월등

폭스바겐 '티구안' 올 수입차 판매 1위

값싸고 연비 좋아 누적 2만대 돌파

주행성능·실내공간도 인기 한몫

자인과 가격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쏘나타의 판매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달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될 경우 쏘나타 판매량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LF쏘나타 하이브리드 복합 연비는 리터당 18.2km로 경쟁 모델인 토요타 '뉴 캠리 하이브리드'(16.4km/ℓ)보다 우수하다.

수입차 중에서는 폭스바겐의 티구안이 올해 돌풍을 일으켰다.

티구안은 SUV 열풍을 타고 올 10월까지 6371대가 판매되며 수입차 판매량 1위를 달리고 있다. 티구안은 2008년 7월 국내에 첫 출시된 이후 10월 기준 누적 판매대수 1만9573대로 집계됐다. 11월 말 기준 누적 판매 2만대를 돌파가 유력하다. 수입차 가운데 단일 모델 기준으로 판매대수가 2만대를 넘는 차량은 'BMW520d', 'BMW 528', '메르세데스-벤츠 E300' 등 3종밖에 없다. 티구안은 올해 자동

차 시장의 '착한 차' 훈풍을 타고 수입차 중 네 번째이자 국내 누적 판매 2만대를 달성한 최초의 폭스바겐 모델이 됐다.

티구안은 3000만원 후반대의 저렴한 가격과 높은 연비(13.8km/ℓ)로 합리적 소비자들을 공략했다. 수입차도 3000만원대로 살 수 있다는 이른바 '수입차 신드롬'을 일으키며 판매가 급상승했다.

특히 2011년 4륜구동 디젤 모델인 2.0 TDI 블루모션이 나온 후에는 판매 속도가 빨라졌다. 3468대 팔린 2012년에는 수입차 베스트셀러 5위, 5500대 팔린 지난해에는 BMW 520d(8346대)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티구안의 인기 비결은 연비 외에도 우수한 주행성능과 여유로운 실내공간 등이 꼽힌다. 티구안에 탑재된 2.0 TDI엔진은 세계에서 디젤 엔진을 가장 많이 만드는 메이커의 대표 제품인 만큼 성능이 검증됐다. TDI(Turbo Direct Injection)는 터보차저를 장착한 직분사 엔진이다. TDI 엔진을 이용할 경우 높은 압력으로 압축한 연료를 연소실에 직접 분사하기 때문에 연소효율은 높고 주행 성능은 올라간다.

김병근 기자 nova@ 가격 3695만~3995만원 연비: 10~10.3km/ℓ

쏘나타 경쟁 차종 (가솔린 모델 기준)



LF 쏘나타(현대차)  
가격 2255만~4150만원  
연비: 11.5~12.1km/ℓ



캠리(토요타)  
가격 3390만원  
연비: 10.4~11.5km/ℓ



어코드(혼다)  
가격 3250만~4150만원  
연비: 10.5~12.5km/ℓ



알티마(닛산)  
가격 3350만~3750만원  
연비: 10.5~13.3km/ℓ



퓨전(포드)  
가격 3695만~3995만원  
연비: 10~10.3km/ℓ

## 타보니

## 벤츠 '뉴 C클래스'



메르세데스-벤츠의 뉴 C클래스가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오른쪽 위 작은 사진은 내부 모습. 사진제공 벤츠코리아

### '힘·정속성·승차감' 삼박자 갖춘 세단 스포츠 모드 주행 뎀 가속력 '짜릿'

메르세데스-벤츠의 '뉴 C클래스'는 2007년 이후 7년 만에 내외부가 완전 변경된 5세대 모델이다.

이 차의 외관은 큰형남적인 'S클래스'를 빼닮았다. 전면부의 라디에이터 그릴은 멀리서 보면 S클래스로 착각할 정도로 여섯 개의 구멍이 큼직하게 디자인된 것이 인상적이다. 차량 측면의 뒷부분인 C필러는 리어램프까지 날렵하게 이어져 감성을 자극한다. 최근 서울 일대에서 시승해 본 '뉴 C클래스 C220 블루텍 아방가르드'는 힘과 정속성, 승차감까지 삼박자를 갖춘 차량이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불과 7.4초밖에 걸리지 않는 이 차량은 오른쪽에서 시원하게 달려왔다. 또 주행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면 한 단계 더 높은 가속력을 선사하며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뉴 C클래스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플러스 등 4가지 주행모드를 지원하는 '어질러터 컨트롤'

기능이 새롭게 적용됐다. 에코나 컴포트 모드에서는 편안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다. 반면 스포츠 모드도 전환하면 짜릿한 가속력을 체험할 수 있는 스포츠 세단으로 변신했다.

C220 블루텍 아방가르드 2143cc 직렬 4기통 터보 디젤 엔진을 장착했다. 최고 출력 170마력(3000~4200rpm), 최대 토크 40.8kg·m(1400rpm)의 주행성능을 갖췄다. 디젤 엔진이지만 가솔린 엔진 못지 않은 정속함이 특징이다. 정차 시에도 스티어링 휠이나 차체 바닥을 통해 떨림이 전혀 전해지지 않았다.

뒷자리가 넓어진 것도 장점이다. 이 차량의 축거(앞바퀴 차축 중심에서 뒷바퀴 차축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2840mm로 동급 차종 중 가장 길다. 어린 자녀를 둔 4인 가족에게도 뉴 C클래스는 제격일 수 있다는 얘기다. 주행 성능과 승차감에서는 단점을 찾아보기 힘든 이 차량도 내비게이션만은 수입차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 지도는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고 목적지 안내의 신속성도 국산차에 장착된 순정 모델에 비해 떨어졌다.

작은 아쉬움은 있지만, 뉴 C클래스는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C220 블루텍은 지난 10월 397대가 팔리며 수입차 베스트셀링카 9위에 올랐다. 이 모델은 지난 6월 출시 이후 매달 10위권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수입차의 새 강자로 등극하고 있다. 뉴 C클래스 C220 블루텍의 올해 누적 판매 대수는 1655대다. 뉴 C클래스의 가격은 △C200 4860만원 △C200 아방가르드 5420만원 △C220 블루텍 아방가르드 5650만원 △C220 블루텍 익스클루시브 5800만원이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 PC의 데이터는 어떻게 영구삭제 하실 건가요?

유출되면 안되는 귀중한 데이터! 휴지통 비우기, 포맷, Fdisk 등의 단순 삭제만으로는 영구삭제 될 수 없습니다. ViRobot DataEraser 2.0은 미 국방성 표준안에 따른 삭제 알고리즘으로 데이터를 복원할 수 없도록 완벽히 영구삭제해 드립니다.

## 가장 믿을 수 있는 영구삭제 솔루션 HAURI 바이로봇 데이터레이저 2.0

### 제품 주요기능

- ▶ 지워진 파일까지 영구삭제 (복원 불가능)
- ▶ 파일 검색기능으로 원하는 파일만 영구삭제
- ▶ 논리 드라이브 단위 및 물리 드라이브 단위로 영구삭제
- ▶ 디스크 단위의 빈 영역 영구삭제
- ▶ 보안 등급별 삭제 강도 조절 및 편리한 예약 삭제 기능
- ▶ FAT 16/32, NTFS 파일 시스템 지원
- ▶ 빠르고 안전한 영구삭제

☎ 제품문의: 02) 3676-1100



www.hauri.co.kr

보안 전문 기업 - 하우리 HAURI SECURE YOUR NETWORK WITH HAURI

“물이 왜 부족할까요?... 물을 아끼려면 어떻게 할까요?”

# 참여형 질문에 여기저기 손 번쩍

## 4 삼성전자 수원봉사단 ‘찾아가는 환경교실’

“선생님, 결핵했어요?” “선생님, 키는 몇이예요?” 경기도 수원효정초등학교 4학년 1반이 시골벽적이다. 담임선생님이 아닌, 검은색 안경을 쓰고 키가 큰 ‘아저씨’를 바라보는 24명 학생들의 눈빛이 초롱초롱하다.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본 이는 수원효정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환경교육 봉사활동에 참여한 삼성전자 프린팅솔루션 사업부 박세진 선임. 삼성전자 수원봉사단은 올해 6월부터 수원시내 9개 초등학교 82개 학급(약 2340명)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 중이다. 임직원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재능을 활용해 학생들을 직접 지도해주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기자는 박 선임이 수업을 실시한 수원효정초등학교 4학년 1반 수업의 보조 선생님이로 함께 참여했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수원효정초등학교에서 실시된 ‘삼성 디지털시티 찾아가는 환경교실’에서 본지 서지희 기자(맨 오른쪽)가 삼성전자 프린팅솔루션 사업부 박세진 선임(맨 왼쪽)과 함께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눈높이에 맞춘 교육으로 흥미 이끌어내야 = 환경수업은 각각 이론(40분)과 실험(40분)으로 진행했다. 이론은 물의 중요성과 물을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실험은 ‘간이 정수기’를 만들어 보는 시간으로 각각 구성했다.

1교시 이론 시간에서는 박 선임이 교단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설명을 해주고, 기자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넘기는 역할을 맡았다. 4명씩 총 6개 분단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학생들의 표정엔 궁금한 기색이 넘쳤다.

이론 수업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시간 안배를 잘하는 노련함이 필요했다. 박 선임의 “한국에선 왜 물이 부족하다고 할까요?”라는 질문에 학생들이 여기 저기서 손을 든다. 박 선임이 한 학생을 지적하자 “물이 원래는 부족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물을 낭비해서요”라는 명쾌한 대답이 돌아온다. 또 다른 학생은 “정수된 물이 없어서요”라면서 나름 수준 높은 답변을 해준다.

‘세계 평균 연 강수량은 973mm. 한국 평균은 1274mm. 한국은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다소 지루할 수 있는 문구들이 뜨자 박 선임의 팔 동작이 커지고 책상 사이를 왔다 갔다하는 횟수가 늘어났다. 수업을 시작한 지 15분이 지나자 하품을 하면서 눈을 깜빡거리는 아이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박 선임이 제스처를

### 프레젠테이션 통해 이론수업... 큰 제스처로 집중력 높여 아이들이 직접 자갈·모래·숯 이용 ‘간이정수기’ 만들게 해 오염된 물이 깨끗하게 정화되자 교실 곳곳서 감탄사 연발

크게 하면서 아이들의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 나선 것이다. 아무래도 저학년의 경우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짧기 마련이다.

이윽고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사막 한가운데에서 물통을 끌고 있는 아프리카 소년의 사진이 뜨자 아이들이 시선을 집중했다. “어떤 그림일까요?”라고 박 선임이 묻자, 남학생이 “물통을 끌고가고 있어요”라고 대답했다.

박 선임은 사진 속 아프리카 소년이 1반 학생들과 같은 또래지만 물이 부족해 학교도 못 가고 물통을 끌고 집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물이 부족해 힘들었던 경험을 학생들에게 물었다.

물 부족을 경험해보지 못한 학생들에게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박 선임은 “제 어릴 때에는 추운 겨울날이면 수도꼭지가 얼어서 물을 쓸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에서 변을 본 후에도 물을 내릴 수 없

다 보니 향긋(?)한 냄새가 나더러구요”라고 능숙하게 자신의 경험담을 말했다. 아이들이 박 선임의 얘기에 여기 저기서 웃음을 터뜨렸다.

◇“너무 많이 도와주면 안되지요” 스스로 하는 것 중요해 = 환경교육 2교시. 플라스틱 컵, 자갈, 모래, 활성탄(숯) 등을 활용해 간이 정수기를 만드는 시간이다.

실험 1단계는 구멍이 뚫린 작은 투명컵에 탈지면을 작게 말아 구멍을 꼭 막는 것이다.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탈지면을 둥그렇게 말아서 투명컵의 구멍으로 밀어 넣었다.

실험 도우미로 참여한 기자는 1단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을 도워주려고 나섰다. 그러나 담임 선생님은 “계속 도와주면 학생들이 스스로 안 하려고 해요”라고 웃으며 만류했다.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아주 기본적인 방법조차 몰랐던 것 같아 일순 얼굴이 화끈했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기자는 숯가루 등을 나눠주기 위해 박 선임과 분단을 분주하게 돌아다녔다. 검은색 숯을 본 아이들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숯가루를 플라스틱 숟가락을 이용해 컵에 담은 단순한 과정이었지만, 아이들의 손끝에는 긴장감이 가득해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시간이 얼마 지나자 각 실험조마다 ‘자갈→모래→숯가루’로 물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구성된 간이 필터가 완성됐다.

파란색 메탈렌블루를 떨어뜨린 물을 플라스틱 컵에 붓는 과정에서 일이 터졌다. 한 남학생이 컵을 옆질러 자갈이랑 모래가 바닥으로 온통 쏟아진 것. 담임 선생님은 부주의한 학생을 나무라면서도, 실험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재빨리 원상복구시켰다. 이윽고 간이 정수기에 부은 파란색 물이 맑은 물로 변해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하자, 교실 여기저기서 ‘와!’하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수업에 참여한 유성군은 “물을 아끼는 방법을 알려줘서 좋았고,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규리양은 “물이 부족해 물통을 끄는 아프리카지역 소년의 사진을 보니 물 절약에 대해 계속 생각해야만 할 것 같다”고 의미를 전했다.

이날 수업을 주도한 박 선임의 얼굴은 더욱 밝았다. 그는 “처음엔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교육봉사)하면 할수록,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 삼성사회봉사단 ‘희망사다리’

### 어린이집·공부방·장학금... 영유아~고등학생 ‘생애주기별’ 교육

삼성그룹은 1994년 국내 기업 최초로 사회공헌 전담 조직인 ‘삼성사회봉사단’을 설립한 이후 봉사와 상생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특히 삼성은 교육 양극화 해소가 사회 양극화 해소의 첫걸음이라는 인식 아래 저소득 가정 학생들을 지원하는 ‘희망의 사다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희망의 사다리는 가난 때문에 꿈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영유아부터 대학생까지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지원한다.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다. 삼성이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31개 도시, 총 64곳에 달한다. 초·중·고등학생에게는 공부방을 지원한다. 지난해 삼성 임직원 총 1만2300명은 전국 공부방 359곳에서 특기와 전문지식을 활용한 학습지도 및 문화체험 활동을 펼쳤다.

중학생을 대상으로는 ‘드림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 드림클래스는 공부방 의지가 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방과 후 2주 영어와 수학을 집중 지도한다. 2012년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서울과 6개 광역시의 인근지역,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시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중·주말 수업이 어려운 읍·면·도서 지역의 중학생을 위해 여름과 겨울에는 방학캠프를 실시한다.

삼성그룹은 드림클래스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이 더욱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열린장학금’도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열린 장학금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학교 성적뿐 아니라 학업에 대한 열정과 계획을 평가해 지원 학생을 선발한다. 삼성은 지난 2004년부터 매년 3000여명의 고등학생을 선발해 지원을 이어왔다. 지난해에는 150명의 드림클래스 졸업생이 열린 장학금을 받았다. 권태성 기자 tskwon@



경기도 양평 양수중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이 ‘2014 삼성 드림클래스 여름캠프’에 참가하는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사회봉사단



제대로 된 현관문도 없는 컨테이너 박스 안... 문 대신 막아놓은 모기장 안으로 비가 들이치고 한겨울이면 거실에 얼음이 어는 이곳에서 진우(5세, 가명)와 할머니는 두 번째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 죽고 나면 저거 우에 살런가...”

무심코 하는 이야기에도 금세 그렇그렇한 눈빛이 되어 할머니 품으로 파고드는 아이...

이번 겨울은 또 얼마나 많은 밤을 추위에 떨며 서로를 꼭 껴안고 잠들어야 할까요?

할머니 품의 온기만으로 긴 겨울 밤을 견뎌야 하는 진우에게 당신의 체온을 전해주세요

정기후원 신청 (매월 3만원)

**1599-0300**

정기후원금은 굿네이버스 54개 지부, 97개 사업장을 통해 진우와 같은 처지에 놓인 수많은 빈곤가정 아동을 보호하고 돕기 위한 국내 아동권리보호사업에 사용됩니다

**굿네이버스**  
Good Neighbors

굿네이버스는 1991년 한국인이 설립하여 국내 및 해외 33개국에서 전문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 YG품에 안긴 '휘닉스홀딩스' 차익매물에 급락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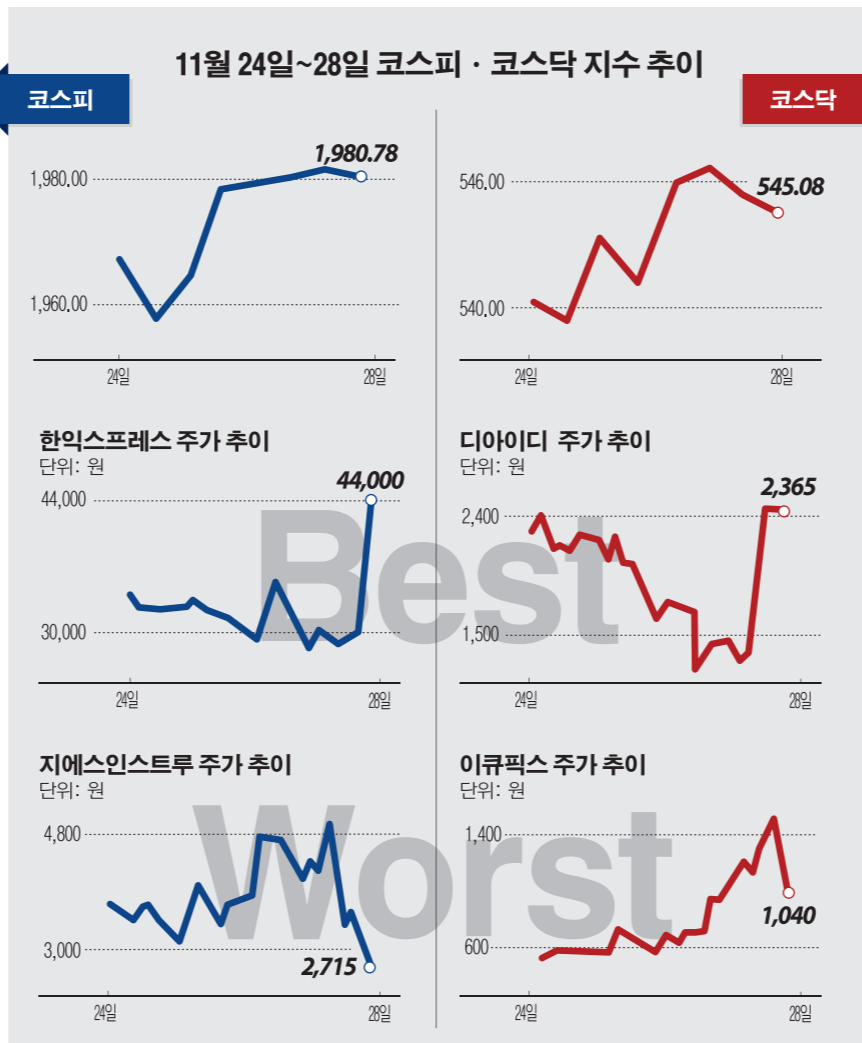
**베스트&워스트**  
11월 24~28일

11월 셋째주(24~28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0.81% 오른 1980.78로 장을 마감했다. 외국인 은 한 주 동안 8465억원을 순매수했다. 2주 전 1조원 이상을 순매수했던 여세를 이어가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기관은 81억9862만원 순매수에 그쳤고, 개인은 8477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주보다 0.2% 오른 545.08로 장을 마감했다. 주 초반 0.38% 하락했지만 이후 반등세가 이어지며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다. 이 기간 외국인인 1434억원을 순매수했다. 기관과 개인은 각각 832억원, 431억원을 팔아치웠다.

◇한익스프레스, 삼성·한화 빅딜에 39.46% ↑ = 1일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에서 지난주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종목은 한익스프레스다. 2만9400원이었던 주가가 4만1000원까지 올라가며 39.46%의 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삼성그룹과 한화그룹 간 방산·화학 빅딜 속에 물류회사로서 새로운 입장이 생기자 않겠느냐는 기대감 덕분이다. 한화그룹의 삼성그룹 내 삼성테크윈 등 4개 계열사 인수가 발표된 26일과 27일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강세를 보였다. 한익스프레스는 김승연 회장의 누나인 김영혜씨가 최대주주로 있다. 일반도로를 이용한 화물운송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특히 화공품, 독극물, 유류 등 분야에 특화된 업체다. 지난해 매출은 3216억원으로 국내 최대 물류회사인 현대글로벌비

치며 12.81% 상승했다. 지난달 28일 SH에너지화학은 3분기 영업이익이 60억4187만원으로 전년 동기 14억9720만원보다 303.5% 늘어났다고 밝혔다. 당기순이익은 50억7707만원으로 전년 동기 2억1300만원보다 2283.5% 급증했다. <지에스인스트루, 28.40% 급락> 하락률 1위 = 11월 넷째주 주가증권시장에서는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 지에스인스트루가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달 21일 3480원이었던 주가가 28일 2715원까지 떨어지며 28.40% 하락률을 기록했다. 특히 2주 연속 하락세가 가파르다. 11월 셋째주에도 28.40%나 떨어지며 주가하락률 2위라는 불명예를 쓴 바 있다. 지에스인스트루의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지자 한국거래소 유가시장분부는 지난



'한익스프레스' 한화·삼성 빅딜 수혜전망 39% 급등  
'IHQ' 드라마 '피노키오' 역대최고가 중수출 20%↑  
하락 1위 '지에스인스트루'... "주가급락 사유없다"

(12조8613억원)의 2.5%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삼성테크윈과 삼성중합화학, 삼성탈레스, 삼성토탈 등 4개 계열사가 한화에 넘어오게 되면서 물류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IHQ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드라마 '피노키오'를 역대 최고가로 중국에 수출했다는 소식에 20.07%나 상승한 것. IHQ는 지난달 25일 피노키오를 중국 최대 동영상 포털 사이트를 보유한 '유쿠 투도우(Youku Tudou)' 그룹에 회당 28만 달러로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상 최고가로 직전 최고가는 비, 크리스탈 주연의 '내전'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가 기록한 회당 20만 달러다. 한국공항공은 한진해운 지분 처분 소식을 알린 이후 연일 급등세를 기록하며 이번 주 18.09% 상승,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SH에너지화학은 미국이 셰일가스 발굴로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생산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소식과 3분기 호실적이 겹

달 19일 이 회사에 현저한 시황 변동과 관련해 조희공시를 요구했다. 그러나 지에스인스트루 측은 "현저한 시황 변동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으로 현재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공시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가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YG엔터테인먼트로 인수됐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11월 셋째주에 79.09%라는 경이적인 주가 상승률을 기록한 휘닉스홀딩스는 지난주 하락세로 전환했다. 주가가 19.93% 빠지며 하락률 2위에 오른 것. 이러한 하락세는 차익 실현을 위한 매물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삼성테크윈은 한화로 매각된다는 소식이 지난달 21일 3만4350원이던 주가가 28일 2만8150원으로 하락했다. 하락률은 18.05%. 삼성테크윈은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성장이 예상되나 삼성 프리미엄의 기반이 사라질 것을 우려한 매도세가 몰리며 급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영록 기자 syr@

**코스피 상승 10종목**

종목명	28일 시가총액	증가(원)	증가(%)	
한익스프레스	49	29,400	41,000	39.46
IHQ	141	2,740	3,290	20.07
한국공항공	143	38,150	45,050	18.09
한국유리	272	23,800	27,000	13.45
사조산업	204	35,900	40,700	13.37
SH에너지화학	127	1,015	1,145	12.81
씨나전자	64	2,135	2,405	12.65
사조씨푸드	119	6,140	6,900	12.38
코스맥스비티아이	468	43,500	48,750	12.07
사조해피	109	13,800	15,200	10.14

**코스피 하락 10종목**

종목명	28일 시가총액	증가(원)	증가(%)	
교보증권	347	10,900	9,650	-11.47
크라운제과	368	283,000	249,500	-11.84
이필름	48	1,485	1,300	-12.46
와이바로드	32	2,380	2,070	-13.03
삼성테크네스	26,850	400,000	347,000	-13.25
진원생명과학	152	2,265	1,955	-13.69
한창	38	1,295	1,100	-15.06
삼성테크윈	1,496	34,350	28,150	-18.05
휘닉스홀딩스	86	9,080	7,270	-19.93
지에스인스트루	32	3,480	2,715	-21.98

**코스닥 상승 10종목**

종목명	28일 시가총액	증가(원)	증가(%)	
디아이디	45	1,555	2,365	52.09
웹젠	715	13,650	20,250	48.35
라운스큐어	40	1,010	1,255	24.26
엘티에스	42	4,650	5,700	22.58
SM C&C	258	3,140	3,840	22.29
제이씨현시스템	77	3,310	4,030	21.75
오픈베이스	54	1,420	1,725	21.48
엑사이엔씨	45	1,280	1,540	20.31
메디아나	73	8,420	10,100	19.95
KJ프리티	49	2,120	2,530	19.34

**코스닥 하락 10종목**

종목명	28일 시가총액	증가(원)	증가(%)	
우전엔한단	79	3,200	2,740	-14.38
차이나그레이트	249	2,910	2,485	-14.60
테크사이언스	118	37,500	32,000	-14.67
한솔신텍	59	2,600	2,205	-15.19
차이나하오안	123	2,750	2,285	-16.91
제이비어뮤즈	130	6,570	5,290	-19.48
바른손이앤에이	83	1,740	1,395	-19.83
삼보산업	27	24,200	19,150	-20.87
스틸플라워	80	7,300	5,490	-24.79
아큐픽스	28	1,480	1,040	-29.73

◇디아이다, 최대주주 변경에 52.09% ↑ = 1일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에서 지난주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종목은 디아이디다. 디아이디 주가는 1555원에서 2365원까지 뛰어 52.09% 상승률을 기록했다. 최대주주 변경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1일 최대주주인 코와사가 보유한 주식 649만주(35.14%)를 디에스아이에 65억원에 양도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디에스아이가 최대주주로 올라 경영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젠은 중국 시장 출시를 앞둔 모바일 게임 '전민기적'에 대한 기대감에 48.35% 상승했다. 내달 중국 출시 예정인 모바일 게임 '전민기적'은 웹젠의 대표작 무언라이의 IP(지적재산권)를 활용, 중국 업체 킨넷이 제작한 게임이다. 웹젠은 현지 매출에 따라 일정 비율의 로열티를 받는다. 전민

의료기 쪽으로 압축된다. 오픈베이스는 삼성전자의 빅데이터, 사물인터넷과 크게 관련된 기업이다. 이 밖에 엘티에스, SM C&C, 제이씨현시스템, 엑사이씨, 메디아나, KJ프리티가 강세를 보였다. <아큐픽스, 29.73% ↓> 주가하락률 1위 = 11월 넷째주 코스닥시장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한 종목은 아큐픽스다. 지난 21일 1480원에 시작한 주가는 5거래일간 29.73% 하락하면서 1040원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이 회사 주가 등락이 꽤 컸다는 점. 지난달 18일부터 6거래일간 28% 상승했지만, 하락 반전해 27~28일 이틀간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분부는 지난달 28일 이 제각각의 시황변동(주가급락) 관련 공시규정 상 중요 공시사항 유무

'디아이디' 최대주주 변경에 52% 급등 상승 1위  
'웹젠' 모바일게임 중 출시 흥행예감에 48% 쟁쟁  
'바른손이앤에이' 신작 기대감 꺾이면서 19% 뚝

기적의 중국 현지 서비스 발표 후 현재까지 200만명이 사전등록을 마쳤다. 이에 앞서 무언라이 IP를 활용한 웹게임 대천사지검이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끈 바 있다. 라온스큐어는 삼성전자의 소프트웨어(SW)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에 24.2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사업재편 과정에서 사물인터넷과 스마트 헬스케어를 차세대 주력사업으로 꼽고, 기반기술인 빅데이터와 SW 육성책을 강화하고 있다. 라온스큐어는 삼성전자 공식 파트너사로 지난해부터 녹스 기반 MDM 솔루션 협력업체로 제품 개발을 진행해 왔던 점이 재부각되면서 주가가 영향을 받고 있다. 오픈베이스 역시 삼성전자의 턱을 보며 전주보다 21.48% 상승했다. 한화그룹에 화학·방위산업 등 계열사 4곳을 전격 매각한 삼성은 그룹 경쟁력 회복을 위한 미래신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크게 빠져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그리고

에 대해 답변공시를 요청했다. 답변 시한은 1일 오후 6시까지다. 바른손이앤에이는 기대 신작 '배틀리그'의 출시에도 약세를 이어갔다. 1740원에서 1395원으로 19.83%나 하락한 것. 전주 21.27% 하락한 데 이어 2주 연속 약세다. 기대작이었던 신작 모바일게임인 '배틀리그'가 지난달 18일 출시됐지만, 당초 예상보다 지연된 데 앞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된 데 따른 것이라 분석된다.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기업들도 동반 하락했다. 차이나하오안과 차이나그레이트 주가는 각각 16.91%, 14.60% 떨어졌다.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늘고 있고 중국원자율 등 일부 종목에 내려진 투자위험중독 지정 등이 악재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스틸플라워, 삼보산업, 우전엔한단, 한솔신텍, 테크사이언스, 제이비어뮤즈먼트가 약세를 보였다. 송영록 기자 syr@

## 압도적 1위 반기문 리더십의 실체를 증명하다!



세계를 설득해낸 반전 드라마! 반기문의 유엔 7년을 밀착 취재한 단 하나의 기록



## 반기문, 나는 일하는 사무총장입니다

중앙일보 부국장·국제선임기자 남정호 지음 | 396쪽 | 값 16,000원



김영사 TEL: 031955-3200 www.gimyoung.com 책은 상황에 맞습니다.



# ‘작게 만들어 크게 키운’ 비아이이엠티 신사업

초소형 사이즈 ‘마이크로 SD카드’ 매출 ↑...부채비율 지난해 967%→63.9% 낮춰

비아이이엠티가 신사업인 마이크로 SD카드 사업에서 순항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채비율을 100% 아래로 낮추는 등 재무구조도 건실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일 비아이이엠티 관계자는 “올 초 삼성전자, 바른전자 등에서 마이크로 SD카드 표면인쇄 의뢰받아 해당 인쇄공정을 개발 및 양산하고 있다”며 “1분기 매출 약 4억원에서 2분기 12억원, 3분기 9억원을 달성했으며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크로 SD카드는 기존 SD카드 보다 초소형 사이즈로 생산돼 블랙박스, 휴대 폰 보조저장장치 등 다양한 전자제품에 사용된다.

특히 이 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올 4월 성능과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한 ‘메모리카드’를 출시하며 브랜드 메모리카드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태블릿PC에 주로 사용되는



‘마이크로SD 카드사업도 강화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유럽 등 글로벌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바른전자 역시 지난 3월 ‘초박형 칩 집적’ 기술을 적용해 세계 최대 용량 128GB 마이크로 SD카드 개발에 성공했다. 바른전자가 만든 마이크로 SD카드는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 등에 삽입된다.

비아이이엠티는 최근 유상증자를 통해 재

무구조도 건실하게 바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아이이엠티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967%에 달했다. 올해 5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꾸준히 차입금 상환에 나서며 부채비율을 63.9%까지 낮췄다. 연간 매출이자율 5억 원 이상 줄일 수 있게 돼 회사 수익성 개선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실적 개선도 눈에 띈다. 비아이이엠티는 올 3분기 매출액 153억원, 영업이익의 9억원을 기록, 3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특히 3분기 당기순이익은 8억원으로 전분기대비 182% 증가했다. 올해 당기순이익의 연간 흑자전환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비아이이엠티 관계자는 “새로운 최대주주와 현 경영진이 안정된 경영권을 기반으로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고객다변화를 통한 실적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 공시 돋보기

### 보락 맛 들린 ‘미식개미’ 최경애

지난 한달간 20만주 추가매입... 지분율 10.82%로

‘주부 슈퍼개미’ 최경애씨의 ‘보락’ 사랑이 지극하다. 지난 한달간 보락 주식을 무려 20만주 가까이 사들이며 꾸준히 지분 확대에 나서고 있는 것.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구에 사는 주부 최경애씨는 지난달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3차례에 걸쳐 보락 주식 4만1592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달 12일에도 보락 주식 15만여주(1.32%)를 매수한 바 있으며 10월에도 세 차례에 걸쳐 보락 주식 5만7847주를 매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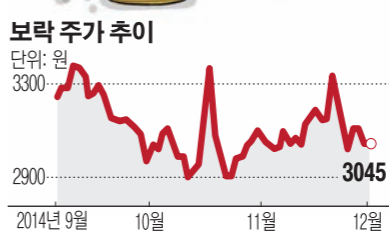
이따른 주식 매입으로 최 씨와 그 특수관계인(남편 배만조씨)의 보유 주식 수는 현재 129만6695주(10.82%)를 기록하고 있다.

최 씨의 보락 주식 매입은 단순 투자 목적으로 알려졌지만 지분이 10%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일각에서는 경영 참여 목적으로 주식 매입에 나서는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락 측은 “최경애씨의 주식 매입은 단순 투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주식 매입과 관련해 회사 측과 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2011년에 처음으로 보락에 투자한 이후 올 상반기에만 8억6100만원에 달하는 평가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씨는 보락 이외에도 동양물산과 태원물산의 지분을 7% 이상씩 보유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



고 있는 것과 달리 최 씨는 관련 업계에서 조용한(?) 투자자로 알려져 있다. 보유 지분율이 높은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참석이나 주가와 관련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나서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대량 매수에 나서지는 경우에도 사전 연락이 온다면 지 하는 일이 없다”며 “기업설명회(IR) 담당자와 통화를 하는 경우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 ‘에비타 11배’ 메가박스 제이콘텐츠리 품 떠나나

인수후보자 제시금액 우선매수권 행사 한계점 달해

메가박스 인수후보자들이 모두 에비타(EBITDA·상각 전 영업이익) 11배 이상의 가격을 제시하면서 제이콘텐츠리의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일 투자은행(IB)업계에 관계자는 “제이콘텐츠리 측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우선협상자가 제시한 금액이 에비타의 일정 배수를 넘기면(우선매수권 행사)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당초 메가박스 매각가격이 높지 않을 것

으로 보였지만, 입찰참가자들이 예상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면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높아졌다. 이 때문에 당초 메가박스를 팔 생각이 없었던 제이콘텐츠리가 비용부담으로 인해 우선매수권 행사를 포기하고 보유지분을 매각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앞서 제이콘텐츠리는 메가박스 인수 추진에 대한 조희공시 요구에 “현재 진행 중인 공개매각 결과에 따라 일정한 조건 하에 지분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 행사를 포함해

계열회사 또는 외부투자자와 연계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이콘텐츠리의 최대주주인 중앙일보 측은 이미 국내 금융권과 SI로부터 자금 조달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월 27일 실시된 본인찰에서는 인수후보자 3곳이 2개의 비드(확정가격 입찰)를 제출했다. 모두 에비타 11배 이상을 제출해 제이콘텐츠리도 쉽게 우선매수권 행사를 결정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특히 인수가격이 에비타(470억원)의 10배를 넘겼기 제이콘텐츠리가 보유한 지분 46.3%도 자동적으로 동반 매도 대상이 됐다. 제이콘텐츠리가 지분을 인수하지 않으면 보유하고 있는 메가박스 지분을 맥쿼리와 함께 팔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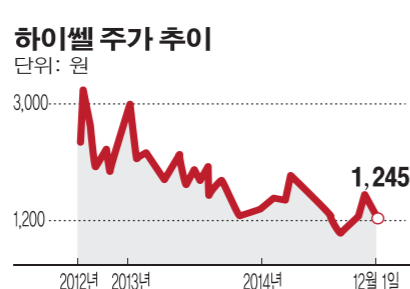
이번 딜을 잘 아는 관계자는 “우선매수권 행사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우선협상대상자가 먼저 결정된 뒤 중앙에서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윤주 기자 hyj@

## 알리바바 덕에... 하이셀 자회사 실적·증자 ‘두 토끼’

하이셀이 알리바바 덕에 자회사인 글로벌텍스프리카(GTF)의 폭발적인 실적 증과 유상증자 성공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1일 하이셀에 따르면 지난달 진행된 주주배정 유상증자 구주주 청약결과 총 2557만2282주가 청약돼 102.5%의 높은 청약률을 기록했다. 하이셀의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자회사인 GTF 효과에 힘입어 일반공모 절차 없이 구주주 청약만으로 조기종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최대주주인 리치커뮤니케이션즈는 이번 증자에 따른 주주배정분 172만2104주와 초과청약분 34만4421주를 포함해 총



206만6525주의 신규 청약을 완료했다. 또 특수관계인인 이용복 대표도 신주배정분 전부와 20% 초과분에 대한 청약을 모두 완료했다.

특히 기존 주주들의 초과 청약을 포함

한 높은 증자참여로 구주주 청약에서 청약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이번 증자로 대주주와 회사의 대표이사 모두 주주배정분을 비롯해 초과배정분까지 120% 청약에 참여해 증자 완료 후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지분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셀은 이번 증자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해 부채비율을 낮출 계획이다.

하이셀 관계자는 “유상증자로 207억 원대의 자금을 확보해 차입금 상환, 설비투자 및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 ‘GOD’ 밀고 ‘피노키오’ 끌고 IHQ, 3분기 흑자전환 성공

IHQ가 3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그 룹 GOD의 컴백과 드라마 ‘피노키오’의 흥행에 힘입은 결과다.

IHQ는 지난달 28일 분기보고서를 통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212억6400만원, 영업이익의 7억4100만원, 당기 순이익의 7억 6900만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연결기준 매출액 235억원에 영업손실 35억8000만원, 당기순손실 37억4000만원을 기록했던 IHQ는 3분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흑자전환을 달성, 턴어라운드 성공했다.

특히 이번달 달성한 3분기 212억원의 매출액은 전년동기 기록한 138억원 대

비 53.6%, 전분기 매출액 97억원 대비 118.5%나 상승한 금액으로 실적 개선세가 가시화되고 있다.

IHQ 관계자는 “상반기 세월호 참사의 여파와 지상파 드라마 라인업의 부재 등으로 실적이 부진했다”며 “그러나 하반기 들어 GOD의 정규앨범 발매와 국내·해외 콘서트 등 재결합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고, KBS ‘아이언맨’과 현재 방영 중인 SBS ‘피노키오’ 등 지상파 드라마 제작·공급도 계획대로 순항 중”이라고 말했다.

IHQ에 따르면 이번 달에 선보인 자체 제작 웹드라마 ‘연애세포’의 해외판매도



증가세에 있고, 계열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도 비스트의 신규 앨범 ‘TIME’과 신인 그룹 비투비의 일본 데뷔싱글 ‘여우’가 성공을 거두고 있어 향후 실적도 좋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경아 기자 kakim@

## 엠게임 특명... ‘다크호스’ 키워라

3분기 흑전... 신작 론칭 총력

엠게임은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흑자전환했다고 지난달 28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60억 1000만원으로 28.7%감소한 수치다.

대폭적인 비용절감으로 영업이익이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또 사육의 일부 매각으로 인한 영업외수익으로 당기순이익이 상승했다. 반면 매출액은 하락했다. 기존 온라인게임들의 매출이 저연 감소했기 때문이다.

엠게임은 국내 및 해외 모바일게임 신규 론칭을 통해 신규 매출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8일 출시된 세계의 유명 IP(지적재산권) ‘다크호스’를 시작으로 ‘장화신은 고양이 for Kakao’, ‘드래곤엔라카스 for Kakao’를 12월중에 출시할 예정이다.

또, 중국과 대만에서 해외 파트너사의 적극적인 마케팅 속에 모바일 ‘프린세스메이커’를 출시하고, 온라인게임 ‘열혈강호2’의 중국 내 2차 비공개 테스트 및 정식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엠게임은 중국의 유명 웹게임 개발사인 유런테크와 함께 ‘열혈강호 온라인’의 개발 리소스를 활용한 웹게임을 개발해 2015년 2분기 중국을 비롯한 대만, 마카오, 홍콩에서 상용화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유현 기자 yhss00@

## 소프트센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빅데이터·클라우드 전문기업 소프트센은 1일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은 산업융합의 성과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했다.

소프트센은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선정되면서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의 연구개발과 컨설팅 프로그램 참여시 각종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산업융합품목으로 지정된 회사의 ‘빅센메드(의료정보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에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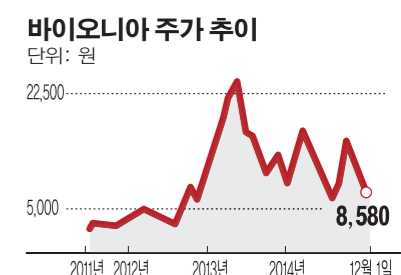
특히 이번 지정으로 소프트센의 빅센메

드는 국가로부터 산업융합의 성과 및 품질의 우수와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등을 인정받게 됐다.

수여식에 참가한 김재홍 대표이사는 “기업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산업 간 기술인력 교류 등을 통해 산업융합 성과를 이루고 안정적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산업융합 유망자, 산업융합 선도기업, 산업통상자원부 간 상담회를 통해 국내 산업융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송영록 기자 syr@



## 바이오니아 ‘모유 유산균’ 체지방감소 원료로 인정

바이오니아가 국내 최초로 한국인 산모의 모유에서 유산균을 분리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국내는 물론 미국, 영국, 일본, 네덜란드, 불가리아 등 10개국에서 항비만 유산균으로 특허를 취득했다.

1일 바이오니아에 따르면 한국인의 모유에서 분리한 ‘Lactobacillus gasseri BNR17’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 원료 2등급 인정을 받았다. 이는 임상평가에서 체지방(복부 내장지방) 감소 효과가 입증된 결과다.

바이오니아는 모유 수유를 받은 영유아가 비만 및 당뇨 등 대사질환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논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국내 최초로 한국인 산모의 모유에서 유산균을 분리하는데 성공했다.

이 유산균은 내산성, 내담즙성 및 장세포에 대한 부착 능력과 병원성세균에 대한 높은 항균 활성을 갖는 등 프로바이오틱스로서의 기본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 2건의 동물실험을 통해 지방산화의 기전을 밝혀냈고, 대학병원 2곳에서 인체적용시험을 거쳐 체지방 감소 효과를 검증했다.

그동안 식약처가 개별 인정한 대다수의 유산균의 기능은 주로 장 건강과 면역과민반응에 대한 피부상태 개선 등이다. 바이오니아의 ‘L.B gasseri BNR17’은 복부내장지방, 체중 및 허리둘레의 감소 등 비만과 관련된 영역에서 효과가 검증돼 체지방 감소 기능성 분야에서 인정을 받았다. 유산균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이다.

바이오니아는 ‘L.B gasseri BNR17’에 대해 ‘인간의 모유에서 분리한 프로바이오틱스 활성 및 체중 증가 억제 효과’를 갖는 유산균’으로 이미 국내는 물론 미국, 영국, 일본, 네덜란드, 불가리아 등 10개국에서 항비만 유산균으로 특허를 취득했다.

바이오니아 관계자는 “이번 기능성 원료 2등급 인정은 국내는 물론, 해외 제약 및 식품회사와의 기술이전 및 사업 추진에 있어 가속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 가장 새로운 것을 찾는 당신에게 갤럭시가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이 가장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전엔 없던 기준을 만들 때 비로소 새로움은 시작되죠  
그래서 갤럭시는 광대역 LTE-A 폰으로 모바일의 새 기준을 만들었고  
당신에겐 이런 갤럭시가 가장 어울립니다



갤럭시 노트 엣지  
갤럭시 노트4  
갤럭시 알파  
갤럭시S5 광대역 LTE-A

국내최다 광대역 LTE-A폰

# Samsung GALAXY

지금, 갤럭시에서 가장 다양한 광대역 LTE-A 폰을 만나세요 (2014년 11월 11일 기준)

삼성전자 